

무여 스님(축서사 회주)
화두 놓지 않으면
내면의 평화 저절로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9월 30일) · 주간

제1015호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게 하라.

송담스님 '할' 청정승가가 '답'

'바른불교', 14일 공동선언
"권승, 三寶로 인정않겠다"

각계 165명 재가불자 참여
부패 출가자 척결운동 전개
"불교 위기 극복 힘 모을 것"



'청청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의 모임'은 10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담 스님 탈종에 즈음한 재가불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불교 선지식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조계종 탈종을 현 불교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경책으로 받아들이고 청정 승가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청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의 모임(이하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10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담 스님 탈종에 즈음한 재가불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모임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송담 스님의 탈종은 청정 수행 가풍이 퇴락한 데 대한 준엄한 경책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선언문에서 "송담 스님의 '수행가풍이 맞지 않다'는 말씀은 종단의 타락한 수행 풍토를 만들어낸 정치승들을 척결하지 못한 종도들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청정하지 못한 출가자들은 더 이상 존경 받는 승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준엄한 경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꼬삼비 불자들이 승단을 분열하고 다투던 비구들에게 공양을 거부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부패, 도박, 폭력, 은처, 정치권승 등 수행자답지 못한 출가자들을 스님으로 인정 않고 공양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로지 바른 수행을 이어가는 지계청정한 스님만을 삼보로 공경하겠는 것이다.

종단의 위기를 보고도 침묵하는 종단의 구조적 부패 현실에 대해서도 재가불자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이권 이해 관계에 따라 합종연횡을 일삼는 권승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주요 사찰을 장악하여 참 수행자는 바랑 하나 풀 곳이 없는 것이 종단의 현 모습"이라며 "송담 스님의 청정한 종단 구현에 대한 경책을 송구스럽게 받아들여할 종단 집행부는 '송담 스님은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승적이 없으므로 제적원 처리조차도 필요 없다'는 참담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청정 수행자로 이름 높은 스님조차 계실 수 없게 하는 조계종이 과연 한국불교의 법맥을 이은 종단인가"라고 반문하며 "송담 스님의 '할'로 이미 부패한 종단은 '멸빈'을 당한 것"이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종단에 스님의 승적을 회복하고 여법하게 모실 것을 비롯해 △'분한신고' 발언으로 송담 스님을 모욕한 총무부장 정만 스님 해임 △종단의 정치 파벌 모두 해체 △청정하지 못한 승려 발본색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불교의 청정성 회복과 수행풍토 쇄신을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사부대중의 외연을 확대하고 바른 스님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며 매달 1번씩 세미나를 개최해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방안과 현안 해결 모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조계종이 진행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가짜 쇄신 운동"이라며 "제방에서 청정하게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종단 내부의 자정능력을 회복해 청정 승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정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은 지난 9월 12일, 송담스님의 탈종선언 이후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계종의 청정 수행가풍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결집됐다. 현재까지 총 165명이 연명을 통해 동참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도 가을 나들이 전국의 사찰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이다. 10월 17일부터 국화축제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 다더라'를 열고 있는 서울 조계사 도량엔 가을국화가 가득하다. 가을국화를 감상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사부대중 사이로 부처님도 가을축제에 나투셨다. 조계사가 국화밭에 마련한 '허허금강(사진 왼쪽)'과 '허허부처'이다. 미술가 임옥상의 작품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금강경의 글자로 형상화 한 것이다. 글씨 사이의 텅빈 공간은 물질로 존재하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부처님을 나타낸 것이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당선자 확정

16일 전국 교구서 선거… 직선 51명 · 직능 및 비구니 29명 당선

총 12곳서 경선 진행돼
44%가 초선 의원 '약진'
첫 종회 내달 10일 예정

조계종 종도들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당선자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51명과 직능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29명 등 80명으로 16대 중앙종회가 구성되게 된다.

조계종은 10월 16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진행했다. 의원 정수에 맞게 출마한 8곳 포함해 중도 사퇴 등을 이유로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 지은 12곳은 투표하지 않았다.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직할교구에서는 당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호 5번 가섭 스님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763명의 선거인단 중 4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우봉 스님이 122표, 법원 스님이 108표, 현민 스님이 103표, 덕현 스님이 8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가섭 스님은 72표, 성원 스님은 3표를 받았으며,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용주사는 성무 스님과 환적 스님이 각각 81표와 41표를 얻어 당선됐고, 법주사는 정덕 스님이 102표, 원경 스님이 96표를 받아 중앙종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마곡사는 선일 스님(41표)과 제민 스님(39표)이, 직지사는 장명 스님(42표)과 법보 스님(28표)이, 동화사는 지원 스님(73표)과 선광 스님(72표), 해인사는 제정 스님(133표)과 원타 스님(112표), 도현 스님(99표)이 통도사는 진각 스님(181표)과 오심 스님(141표)이, 송광사는 연광 스님(76표)과 자공 스님(71표)이 당선자로 확정됐다.

대흥사는 당선이 유력했던 법인 스님이 탈락해 법원 스님과 월우 스님이 각각 26표, 24표로 당선자로 확정됐으며, 선거인단 논란을 빚은 관음사는 함결 스님(21표)과 정인 스님(16표)이 봉선사는 동산 스님(63표)과 해송 스님(44표)이 당선됐다.

12곳은 의원 정수에 맞게 출마하거나 후보자들의 사퇴로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조계종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20명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9명은 13일 열린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당선자를 뽑았다.

이번 선거 결과 비구니 대표를 제외한 71명 중 31명이 초선의원(44%)으로 중앙종회의 세대교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다선 의원은 7선인 영담 스님이며, 지홍 스님과 영배 스님이 6선이다.

16대 중앙종회 의원들은 11월 9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16대 중앙종회 개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기를 시작한지 일주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어 11월 1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2면〉

법인관리법, 현실 맞게 다시 개정한다

조계종 총무원, 14일 개정안 입법 예고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일선 법인에 맞게 새롭게 조정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4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찰보유법인에 대해 '이사의 자격은 종단소속 승려'를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완화시켰다. 이는 일부 사찰보유법인에서 투명한 법인 운영을 위해 재가자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업무관장 및 협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 역시 법인들의 종단등록과정에서 제시된 일선 법인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권리 제한을 삽입했다. 이에 따른 징계 역시 강화됐다.

미등록법인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사찰보유법인 임원 조정
종단 · 법인 협의체 구성 등
현장에 맞는 개정 추진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을 제한받게 된다.

미등록법인의 도제에 대해서는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종비장학 △종단 교육 및 교육기관 입학 △선원 입방이 제한되며 고의로 법을 회피한 자도 같은 내용의 권리 제한이 이뤄진다.

또한, 미등록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권리인 및 관리인과 고의로 법을 회피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는 징계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법인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이의와 의견 수렴은 오는 11월 2일까지 총무부 총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론 수렴 이후에는 11월 개원할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법인관리법 시행 과정에서 법인 성격에 따른 이사 비율 조정 및 법인 협의체 구성 등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 개정을 통해 법인 설립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등록법인에 대한 법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기에 제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재 사항을 명료하게 밝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1015호 INDEX

시방세계 5
명상가 차드 멩 탄
방한 현장을 가다



기획연재 13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
-천수 맥적산 석굴



한옥 최신공법 (금속공법) (금속+목조 결합공법)



■ 비용절감, 시공기간 단축
■ 사후관리 편의성
■ 법당, 요사채, 교육관, 강당
■ 단열성 우수
■ 공간 활용도 100%
■ 고층 시공 전문화









Samhan DCM
주소 :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778번길 42-1 회사홈페이지 : www.samhan-ksh.com
E-mail : samhandcm@naver.com H.P : 010-8725-7753 TEL : 031)997-0760 / FAX : 031)997-3963

“종교 분쟁없는 종무행정해달라”

자승 스님, 나종민 문광부 종무실장 예방서 당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종무실장은 10월 14일 취임 후 첫 종교계 예방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직은 정부의 종교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자승 스님은 예방자리에서 “불교계만 담당 하는 것이 아닌만큼 다양한 종교의 일에 관심을 갖고 종교간 분쟁이 없도록 골고루 형평성 있게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종민 신임 종무실장은 1988년 교통부 근무를 시작해 1997년부터 문화부와 관계 단체 업무에 종사했다. 문체부 대변인과 문화정책국장을 지낸 데 이어 10월 8일 종무실장에 임명됐다.

이날 예방자리에는 총무부장 정만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문화부장 혜일 스님 등이 배석했으며 이병두 종무관도 함께 예방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나종민 종무실장(사진 오른쪽 세번째)에게 종교화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수행가풍으로 보살심 이끌어내 결집을”

진각종 회당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념불사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10월 16일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추념불사에는 성초 총인예하를 비롯한 경혜, 경정, 수성 정사 등 원로스승들과 교육원장 경당 정사 등 3백여명이 동참해 회당대종사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교육원장 경당 정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우리 모든 진언행자들은 은혜 크신 대 스승님의 다함없는 서원을 받들어 육자진언 수행과 중생교화의 본지를 부단히 실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상을 올바로 구현할 것을 서원한다”고 전했다.

회정 정사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는 더 늦기 전에 참회하고 창종이념과 수행의 가풍을 다시 되살려 대승보살심을 이끌어내고 결집하는 일”이라며 “그 시작이 되는 오늘 추념불사의 단 역사의 분수령이 될 진각 100년을 향해 ‘진각 수행의 대중적 이해와 실천’ 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성지 불승심인당을 비롯해 미국 LA 불광심인당 등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도 51주기 열반절불사를 일제히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진각종은 10월 16일 진각문화전승원에서 회당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거대 여당’ 탄생… 獨走의 ‘명암’이 보인다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남긴 것들

조계종 종도들의 민의는 현 총무원 집행부를 선택했다. 10월 16일 열린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끄는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45석으로 압승했다. 반면 집행부 견제 나섰던 삼화도량은 16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권 세력으로 분류된 무량회는 10석을 지켰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 34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종무행정에 대한 입법 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불교광장과 무량회가 연대를 할 경우 종헌 개정이 가능한 의석 수인 55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두 종책모임의 연대 · 통합은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불교광장과 무량회는 소속 의원 55명을 4개 계파로 나누고 이를 ‘불교광장’이라는 단일화한 이름으로 묶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총무원이 추진하는 종책과 입법에 날개가 달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독주 체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수의 논리’라는 세력을 앞세워 종회가 운영될 경우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불교광장 회장 지홍 스님은 “선거는 별 탈 없이 종법에 의거해 잘 치러졌고, 좋은 결과를 받았다”면서 “종도들이 현 집행부 종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문제다. 힘의 논리로 종회 활동을 할 경우 종단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며 “개헌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 불교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책임 있는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남긴 숙제도 적지 않다. 늘 보여줬던 구태들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종책적 이슈는 전혀 없었다. 직할교구에 출마한 가섭 스님과 해인사에서 출마한 성공 스님은 종책 자료집을 발표하고 선거운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종책보다는 문중 등 다른 요소들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불교광장 45석 · 삼화도량 16석

광장의 압승, 개헌 의석까지 확보

‘여대야소’로 비판 · 견제 퇴색 우려

불교광장 “향후 활동에 책임 느껴”

대표성 잃은 직능직 의원 선출부터

관음사 선거인단 논란 등 구태 여전

선거 제도 · 종도 인식 개선 시급

매회 선거마다 지적되는 대표성을 잃은 직능직 선출도 여전했다. 중앙종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직능직 제도가 계파간 나눠먹기로 변질됐다. 실제 이번 직능직 종회의원에 지원한 후보 21명 중 강원과 율원에 지원한 스님은 아무도 없었고 대신 문화나 복지 등 분류가 애매한 분야에 편중됐다.

이는 직능직 종회의원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선출 방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상도량 측 직능직 후보로 나선 이암 스님의 탈락이 논란이 되는 것도 낙선자 표기 투표로 선출을 진행해서다. 삼화도량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고, 당사자 이암 스님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효 소청을 냈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 제소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선거 후유증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관음사는 선거를 앞두고 미입주 사찰을 포함해 9곳에 주지를 무더기로 임명하고 제2교구 용주사에 사찰을 이관 받아 문제가 됐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신종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명암과 존자암을 선거인단에 제외시켰고,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을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회의에서 “문제가 보이는 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대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해 거주승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신종 편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성희롱 · 막말 · 폭력 · 음주 등으로 자격 미달 후보로 분류돼 불교시민단체들의 후보 퇴진 요구가 이어진 후보 중 상당수가 종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도 종단 선거의 구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이 더 이상 정치세력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 전문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가가 종회에 입성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재가 분야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광장의 독주에 대해서는 “종단에 필요한 입법활동으로 긍정적인 개혁을 이끌었으면 한다”면서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종도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거대 여당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불교광장은 더 긴장해서 종회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현황

직선직

교구	당선자
직할교구	우봉, 법원, 현민, 덕현 스님
2교구 용주사	성무, 환적 스님
3교구 신흥사	정념, 삼조 스님(무투표 당선)
4교구 월정사	삼혜, 설암 스님(무투표 당선)
5교구 법주사	정덕, 원경 스님
6교구 마곡사	선일, 제민 스님
7교구 수덕사	주경, 정범 스님(무투표 당선)
8교구 직지사	장명, 법보 스님
9교구 동화사	지원, 선광 스님
10교구 은해사	태관, 덕조 스님(무투표 당선)
11교구 불국사	종민, 정수 스님(무투표 당선)
12교구 해인사	제정, 원타, 도현 스님
13교구 쌍계사	영담, 명진 스님(무투표 당선)
14교구 범어사	무관, 정오 스님(무투표 당선)
15교구 통도사	진각, 오심 스님(무투표 당선)
16교구 고운사	자현, 등운 스님(무투표 당선)
17교구 금산사	원행, 덕산 스님(무투표 당선)
18교구 백양사	만당, 광전 스님(무투표 당선)
19교구 화엄사	종삼, 진성 스님(무투표 당선)
21교구 송광사	연광, 자공 스님
22교구 대흥사	법원, 월우 스님
23교구 관음사	함결, 정인 스님
24교구 선운사	경우, 태효 스님(무투표 당선)
25교구 봉선사	동산, 해송 스님

직능 및 비구니

분야	당선자
율원	혜자, 법상 스님
선원	호산, 심우 스님
강원	범해, 진화 스님
교육	영배, 각림 스님
포교	성행, 수암 스님
사회	지홍, 적광 스님
복지	정도, 탄원 스님
문화	정산, 도견 스님
법제	초격, 혜초 스님
행정	성문, 지현 스님
비구니	계환, 지홍, 지성, 명준, 도수, 묘주, 혜범, 희유, 혜정 스님

관음종 내년 창종 50년, 개산조 선양 나서

선암사 · 낙산 묘각사 등서 태허 스님 기념 행사 잇달아

10월 27일 태허 스님 사리친견

‘한국불교전승’ 주제 세미나도

11월 1일 부도 · 탑비 봉안법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2015년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개산조 태허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관음종은 10월 27일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태허 스님 사리친견 법회’와 학술대회를 여는데 이어 11월 1일 오후 2시 순천 선암사에서 ‘태허 스님 탑비 · 부도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종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조계종과 태고종의 협조를 통해 순천 선암사에 태허 스님 탑비 및 부도를 봉안한다.

태허 스님 사리친견법회와 함께 열리는 기념학술대회는’ 한국불교문화의 전승과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평래 전 충남대 교수의 ‘법화경과 화엄경의 원융일체 사상’ 기조발제에 이어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의 ‘전통사경의 역사와 전개’, △김재권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의 ‘법신사상에서 본 법화경과 화엄경’, △정영식 동국대 교수의 ‘보살운동에서 본 법화경과 화엄경’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 교수의 ‘수행의 행법에서 본 법화경’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화엄대강백 경운선사와 법화행자 태허대법사’, △도업 스님의 ‘화엄의 수행론’ △버스웰 교수의 ‘불교위경 연구’가 각각 발표된다.

홍파 스님은 “창종 50주년을 즈음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관음종을 개산하신 태허 조사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태허 조사의 탑비와 부도를 순천 선암사에 봉안하기 전 스님의 사리를 마지막으로 친견하며,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은 1905년 태어나 1930년 선암사에서 출가해 경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소요산 백운암에서 천일 안거를, 백화산 백화암에서 6년 안거를 마치고 일승불교현정회를 설립한 후 현 탑골공원에서 2년간 야외설법을 하기도 했다.

1965년 관음종을 창종해 초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1971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으며, 1979년 법랍 50년, 세납 75세로 입적했다.

노덕현 기자

東國 Forum 2014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宅內平安하심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전체 동문사회의 친목과
국가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東國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4. 10. 22 (수) AM 07:30 ~ 09:00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서울시청 뒤편)
주 제 : “한국 정치의 현실과 미래”
연 사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경기도지사)
주 최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문의처 : 02)733-3991, Fax. 02)733-3992

2014년 10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박종윤 배상

남한산성 의승군 수륙재 복원 '눈길'

장경사, 오는 26일 수륙법회

남한산성 장경사가 의승군이 머물렀던 독특한 남한산성의 불교문화 복원을 위해 3년째 문화원형 발굴에 나서 눈길을 끈다. 장경사(주지 경우)는 일제강점시대 이후 중단된 남한산성 의승군 수륙재를 복원, 10월 26일 장경사내 특설도량에서 제3회 의승군 수륙무대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앞서 25일에는 남한산성내 의승군 팔도사찰 걷기 순례를 진행한다.

남한산성 의승군에 대한 수륙재는 조선 인조 때부터 고종때까지 봉은사에서 봉행해왔다. 구한말 일제에 의해 남한산성내 팔도사찰이 폐사되면서 의승군을 기리는 수륙재도 중단됐다.

올해 수륙무차대법회는 조계종 종립 어산학교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전통 수륙무차평등의식으로 진행된다.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은 "남한산성은 산성내 유일하게 종묘를 갖고 있는 등 독특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무형의 문화 복원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남한산성 의승군 수륙무차대법회와 팔도사찰 복원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온 생명은 부처' … 평창선언 공감한다"

정념 스님 · 바이거 교수, 14일 '생명' 주제로 대담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숙제가 된지 오래이다. 단순히 한 국가만 관심을 가지고 지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생 환경운동을 주도한 독일 환경학자와 생명 평화를 삶의 기치로 삼고 있는 수행자가 만났다.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UN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 참가한 독일 분트(BUND)의 후베르트 바이거 의장(67, 카셀대 도시경관계획과 교수)는 불교생명윤리협회 주관으로 10월 14일 월정사를 방문해 주지 정념 스님과 생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2012년 봄 방한하여 국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던 바이거 교수는 탈핵 등 독일의 환경운동을 주도해왔고, 메르켈정부와 EU의 환경정책을 리드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생명윤리협회와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사회)와 배동인 강원대 전 교수(통역)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정념 스님과 바이거 교수는 문명 발달로 인한 생명 파괴 현상을 이제 인간이 나서서 치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생물자원의 경제적 자원적 가치에만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바이거 교수는 "독일에서는 500만 명가량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분트에는 5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며 "시민 중심의 환경운동을 벌여온 덕분에 정부가 탈핵을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표명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생태계 보존과 민주주의는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생태계 보존 문제 역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이 곧 인간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충고하며 "자연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본의 성격을 띤다.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삶을 위한 기반인만큼 인간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의식이 보편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념 스님은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만물은 하나의 뿌리다. 세계를 하나의 꽃으로 보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며 생명관"이라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을 지니지 않으면 그 피해가 인간 자신에게 온다.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 가운데 왼쪽)과 독일 분트(BUND) 후베르트 바이거 의장(사진 가운데 오른쪽)은 10월 14일 월정사에서 만나 생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사진은 대담 후 바이거 교수가 건넨 '탈핵하라! 지금!'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제공= 이원영 수원대 교수

정념 스님
"모든 만물은 한 뿌리 인간 때문에 순환 멈춰"

바이거 교수
"인간, 자연을 과도 사용 일상부터 공존 실천해야"

10월 11일에 발표된 불교의 생명평화 선언인 '2014 생명평화를 위한 평창불교선언'에 대해서는 정념 스님과 바이거 교수 모두 미래 사회에서 추구돼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정념 스님은 "평창불교선언은 모든 존재는 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모두가 다 꽃이라는 불교의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우리의 입장을 총회에 즈음해 세계인에 천명한 것"이라며 "인류가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할 때 생물다양성 보존만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 속에서 행복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거 교수는 "모든 존재의 연결돼 있고 각 존재가 고귀한 꽃이라는 인식이 감동적"이라며 "우리가 선언에 밝힌 세계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정념 스님과 바이거 교수는 이날 대담의 말미에 '공존'의 가치를 강조했다. 바이거 교수는 "모든 생명체가 존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귀중히 여기는 태도가 절실하다"면서 "적절하게 적정한 수준에서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공존하는 일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생명존중사상에 기반해 발전했으면 한다"며 "신자유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욕망의 발로가 생태계 교란과 핵 천착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의 생명관으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실천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무원조합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14일 총무원 국제회의장서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심주완)이 10월 14일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희생자 정예진, 임도운 학생의 어머니 2명이 자리했다.

유가족들은 사건 당일 아이들과의 마지막 통화, 지난 6개월간의 심경을 전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더 보고 싶다. 억장이 무너지고 창자가 터질 것 같다"며 울음을 삼켰다. 이들은 부모로서의 죄책감,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며 유가족을 향한 비판과 사회적 매도로 입은 상처 등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종무원조합은 현재 진도에 남아있는 희생자 가족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0월 17일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에 동승할 예정이다. 종무원 10여 명은 1박 2일간 진도에서 머물며 실종자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종합센터 · 복지대학원 설립… 청사진 제시

조계종복지재단, 내년 20주년 맞아 발전 아젠다 발표

불교 복지 역량 집중해
인적 · 물적 인프라 확보
다양한 분야서 복지 진행
20주년 사업 추진위 구성

조계종을 대표해 복지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내년 설립 20년을 앞두고 불교복지종합지원센터와 복지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놨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복지재단 20주년 기념사업 및 발전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재단 측은 앞으로 불교복지계 역량을 결집하고 인적, 물리적 인프라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 생산 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격인 불교복지종합지원센터와 불교계 인재양성시스템 마련을 위한 복지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술연구출판, 불교복지포럼 등의 연구개발 사업과 함께 정신복지, 생태, 통일, 문화복지, 사회적 기업 등 복지 아젠다를 개발하게 된다. 정부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를 극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복지 정책 생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다문화, 남북관계, 네트워크, 사회융합적 측면에서 접근, 대안적 불교복지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종환 사무국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재단 설립 후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불교상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영역은 개혁종단 출범 후 가장 성장이 뚜렷한 영역이었다"면서도 "복지정책 수립의 한계, 제도 · 미래전략 수립의 전문성 결여 등의 부정적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종단과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측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금껏 추진해왔던 교구본사 중심 사회복지법인 설립 추진은 그대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회복지사업은 재단이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종단과 산하시설을 연결하여 자비나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20주년 사업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된다. 20년사 발간을 시작으로 CI 개발, 창립기념법회 및 비전선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공동체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학술심포지엄 등이 개최된다. 또한 불교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조계종자원봉사단 축제와 봉사센터 설립 구체화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20주년을 맞아 '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로 거듭나고 '자비와 인간존중'을 기조로 하는 불교복지사업 전개를 통해 불교계 사회적 역할 제시 및 선도적 복지모델을 확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2월 25일 설립 이후 현재 전국에 180여개의 산하시설을 두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노동자 위해 종교 · 시민단체 역량 결집

조계종 노동위 등 13일 세미나서 네트워크 구성 합의

노동자 지원 연대 모색을 위해 종교 · 시민단체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노동자 현안 사업장 문제, 노동정책, 비정규 대책 등에 공동보조와 연대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고민하기로 했다. 우선은 대량 해고와 직장폐쇄에 맞서고 있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복직 문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10월 13일 템플스테이정보관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위원회, 기독교 인권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참여연대 등과 함께 노동자 연대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민교협 노동위원장인 권영숙 서울대 교수는 '현 노동 상황 진단과 그간 희망버스 이후 노동연대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고립화됐다"며 "연대의 결과를 어떻게 사회화하고 장기적으로 추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10월 13일 템플스테이정보관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위원회, 기독교 인권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참여연대 등과 함께 노동자 연대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성우상사 거위털 제품의 특징은 가볍고 따뜻하며 땀이 차지않습니다.(거위털이불, 패드, 베개)
강력한 흡습, 발산, 공기층 형성으로 체온을 33° ±1 유지하고 숙면을 도우며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모든 제품 거위솜털 100% 간편한 세탁(물빨래)/다양한 사이즈(M,L,XL,77,88,99) www.namsungwoo.co.kr


누비 적삼 55만,50만,45만원
누비 바지 55만,50만원


속조끼 230,000원(녹차)
148,000원(일반)
속바지 380,000원


다리토시 45,000원


수면버선 80,000원




후드점퍼 410,000원
480,000원




〈소매 착용시〉 ---> 〈소매탈착시〉
거위털 점퍼 (지퍼 타입) 320,000원


조끼 180,000원


저고리 500,000원
450,000원
350,000원


복대 50,000원


목워머 16,000원


목도리 28,000 / 50,000원


바람막이 상의 180,000원
바람막이 하의 110,000원


팔토시 20,000원(방수)
공양실 앞치마 32,000원


공양 앞치마 20,000원


귀마개 펼친모습(큰사진)
귀마개 안으로 접은모습
모자 95,000원(생활방수)
(모자 사이즈 조절가능)


휴대용이불 가격,색상,사이즈 다양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5가 20번지 B1 22호
대표 02)2679-2848
010-3707-7016

일 주 문



동국대 108주년 기념관 기금 기부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0월 14일 동국대를 찾아 건학108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억원을 전달했다.



불어판 〈깨달음…〉 출간 봉정식

향적 스님은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어판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 출간 기념 봉정식을 연다.



뉴고려병원과 의료MOU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은 10월 6일 중앙승가대에서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과 승가대 스님 의료비 감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호당 성준 스님 추모 다례재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0월 17일 설악산 신흥사 중창 법주인 정호당 성준 스님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학업원만성취 3000배 기도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10월 25일부터 매일 3000배 학업원만 성취 정진기도를 진행한다.



제4회 어린이미술대회 개최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11월 2일 조계사에서 제4회 어린이미술대회 '나는 화가다' 를 개최한다.



제4회 전국금강경 강송대회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0월 18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4회 전국금강경 강송대회를 열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기념 범패 시연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장 능화 스님은 10월 19일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성만을 위해 대회에서 범패 시연을 선보였다.



제8회 금강대 국내학술대회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10월 25~26일 2일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한국 천태법화신행의 역사적 전개' 제8회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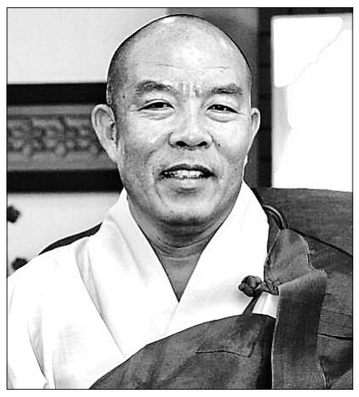


교육부 장관 표창

전병훈 동국대 교수는 10월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산학협력 엑스포' 에서 학생창업활성화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불교 미래 밝힐 스님들 지원 할 터"

조계종 제3기 장학위원장 보광 스님



종단 장학생 선발 스님들
외국서도 긍지 갖고 공부
원활한 장학금 · 지원 위해
장기적으로 재단 설립돼야

"종단 장학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계속 위원장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사하려고 했는데 총무원장, 교육원장 스님이 추천하셔서 다시 소임을 보게 됐습니다. 3번째 위원장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10월 7일 조계종 제3기 장학위원장으로 위촉된 보광 스님〈사진〉은 1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소회를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보광 스님은 종단 장학승 선발제도가 연임을 이어온 현 집행부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발된 스님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일본 인도학불교학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종단 장학금 수혜자인 법장 스님이 발표했습니다. 장학위원장으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종단 장학승으로 선발되면 해외 대학에서 '조계종이 인정한 인재' 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단 장학승들의 자긍심은 매우 높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 장학승 선발에 대한 계획과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보광 스님은 불교의 미래를 밝히 승가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비교적 연구와 전문가가 적은 계율, 한국 근현대 불교사, 불교 윤리학(생명?생태), 불교문화(문화?예술?건축?콘텐츠)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가선점을 부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근현대 불교사는 종단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에 꼭 필요한 것이고, 불교문화 분야는 미래 핵심 기술인 'CT(Culture Technology)' 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스님들이 활동해야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고, 장학위원회는 그런 초석을 닦는 일을 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장학승들의 원할한 지원을 위한 장기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광 스님은 주장했다. 조계종 종단 장학승은 지난 2011년 6명, 2012년 7명, 2013년 3명, 2014년 20명이 선정됐으며 현재 국내외 25명의 장학승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2012년 1,925만원이었던 장학금 지원 규모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1억7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승가교육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3억 원가량은 항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5년 종단 장학승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석 · 박사 과정에 수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자, 사찰승가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스님이다.

선발분야는 불교학, 불교사, 불교문화, 응용불교학, 언어학, 기타 전공으로 나뉜다. 중점 선발분야는 계율(율장 · 청규), 한국불교사(근 · 현대), 불교윤리학(생명 · 생태), 불교문화(문화 · 예술 · 건축 · 콘텐츠)로 해당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계사 복원 7주년 합동법회 봉행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과 함께 10월 13일 오후 12시 금강산 신계사에서 '신계사 복원 7주년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 를 봉행했다. 남북 불교도가 함께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재를 봉행한 이후 4개월만이다.

남측 대표단으로는 지홍 스님을 비롯 중앙종회 부의장 정묵, 기획실장 일감,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 종책특보단장 정념, 조계사 주지 원명,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 등이, 북측 대표단으로는 조불련 리규룡 부위원장, 차금철 서기장, 신계사 주지 진각스님, 리현숙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가했다.

지홍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자들이 불교와 민족 번영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합동법회를 계기로 남북 불교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길을 다시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사부대중 위한 열린 수행공간 마련"

울산에 수행공간 불사 윤광식 대표



(주)현대골든라이트 윤광식 대표(52세)가 울산 시내권에 스님들의 수행공간 불사를 계획해 눈길을 끈다. 10년전 울산 염포동에 위치한 현대그룹 간부 사택지 1만여 평을 사업상 매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교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노스님들의 노후복지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재가자들이 수행하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에 3천 여 평의 종교시설과 5천여평의 복합시설, 2천여평의 의료시설 등으로 구성된 수행공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스님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공간, 템플스테이관 등도 갖추어 다용도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직은 설계단계지만 앞으로 건축과정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 저렴한 실비용으로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종단의 위탁운영 등도 고려해 사부대중들의 수행을 돕겠습니다."

3년전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박 대표는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구촌공생회 자비의햅쌀 나누기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0월 17일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와 함께 익산 저소득 가정을 후원하기 위해 자비의 햅쌀 400kg을 익산시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과 익산지회 박순자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비햅쌀은 지구촌공생회 봉사동호회 '투비위모두' 회원들이 모은 것이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양평 20사단 자장면 공양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0월 14일 경기도 양평 소재 20사단 12전차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자장면 공양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BTN불교TV 무상사(회주 성우) 신도회와 함께 했다. 이날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스님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제20기계화보병사단 김상철 사단장 등과 환담을 나눈 뒤, 무상사 신도 40여명과 함께 호국연화사 신축불사 현장을 둘러보고 불사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김삼철 서보실업 대표, 1억 기부



김삼철 서보실업 대표는 10월 16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방문해 바이오관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농과대학 농학과 63학번인 김 대표는 "동국대의 인재양성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동국대가 근로장학사 건립, 교지매입 등 주요 모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차례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총 2억 7천여만 원을 넘어섰다.

노덕현 기자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안내

신청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피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피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한 : 2014. 12. 31. 까지

2 신청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4)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3 신청서 접수기관

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직접(방문) 제출 : 일과 시간 내(09:00 ~ 18:00)
2)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달

나. 주소 : 우 110-3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유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 2)의 서류 생략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산정.

6 심의 · 결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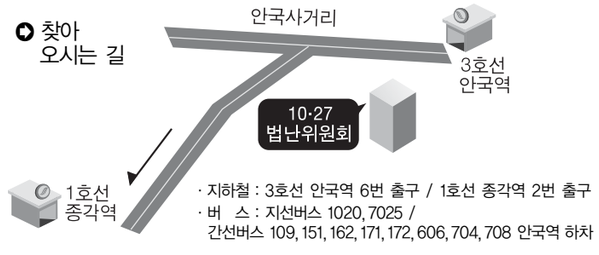
7 기타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내 「피해자 신고서식」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화 (02)738-62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27법난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 자료범위 : 법난 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 방 법 : 전화, 방문, 우편제출 등
- 활용계획 : 향후 건립될 기념관 · 전시관 내 전시 및 자료발간 등
- 기 타 :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찾아 오시는 길



·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 버 스 : 지선버스 1020, 7025 / 간선버스 109, 151, 162, 171, 172, 606, 704, 708 안국역 하차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9층
연락처 : 02)738-6210



차드 멩탄은 10월 15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 내에 있는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창의적 리더십과 명상'이라는 주제로 포럼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인사들과 김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 · 재계 CEO, 주한 외국 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육지장사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왼쪽) · 진우기 통역사(오른쪽)와 발우공양 체험중인 차드 멩탄(가운데).



차드 멩탄은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의 세계적 트렌드와 불교명상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자… 성공이 보인다"

구글 엔지니어 · 세계적인 명상가 차드 멩탄 내한

현대 사회에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입으로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떠들지만 상대를 짓밟고 경쟁을 통해 목표물을 쟁취해야 하는, 지독한 경쟁만 존재하는 성공 지향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치열한 현실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이 '세계평화'를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각국을 다니며 명상 수련법을 전파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구글(Google) 엔지니어인 차드 멩탄(Chad Meng Tan · 43)이다. 2000년 구글에 입사한 차드 멩탄은 사내 비영리법인 '내면검색 리더십 교육기관(SIYLI, Search Inside Yourself Leadership Institute)'을 설립해 '마음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11~15일 차드 멩탄을 초청해 무한경쟁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선(禪)과 명상을 통해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육지장사서 템플스테이… 호흡에 집중

차드 멩탄의 첫 일정은 10월 11~12일 1박 2일 동안 육지장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참가자들에게 명상강의를 펼치는 시간이었다.

아내 · 딸과 함께 한국을 찾은 멩탄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발우공양, 온구체험, 건강명상, 산행명상 등을 체험했다.

강의에 앞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육지장사 경내를 둘러본 멩탄은 발우공양을 체험하면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을 알겠다. 사찰음식이 맛있기 때문"이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한국불교를 체험한 소감에 대해 "매우 특별하고 뜻 깊은 경험이었다. 초청해준 지원 스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강연에서 멩탄은 "명상은 쉽고 간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번의 들이쉼과 내쉼에 온전히 집중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라. 이것을 반복해 10번 100번 늘려가라. 근력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을 키우듯 호흡명상을 꾸준히 하면 마음의 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가 전파하는 명상기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자비관 등 남방불교 수행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루에 한 호흡만이라도 집중하라"고 강조한 그는 "호흡에 집중하면 자동적으로 숨이 느려지고, 긴 숨이 척추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박 수가 낮아진다"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멩탄은 10초 동안 배가 닻을 내리듯 마음을 내려놓기,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위에 나비가 앉아 있는 모습 상상하기 등을 통한 명상법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는 명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버리고 그냥 쉬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으로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숙달이 되고 선정에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멩탄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라. 그게 어렵다면 하루에 두 명씩 그들에게 행복을 축원해 주자"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비심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운이 쌓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 나를 세속적인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고 말했다.

불교는 미래지향적인 과학의 종교

차드 멩탄은 템플스테이에 이어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이날 차드 멩탄이 방한했다는 소식에 불교와 명상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의 열기를 더했다.



차드 멩탄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자비관 등 남방불교 수행법을 바탕으로 한 마음챙김 명상을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10월 11~18일 방한, 한국불교 체험 템플스테이, 명상세미나 · 포럼서 강연
"호흡 집중하면 두려움서 자유로워져"
불교 각광 이유…고통해결, 과학 · 체계적

'명상의 세계적 트렌드와 불교명상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는 불교가 왜 서양에서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멩탄이 살 던 곳에서는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고 하면 창피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멋진 사람으로 인정해줬다.

멩탄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불교가 과학의 시대와 알맞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며 "불교는 미래지향적인 우주적 종교에 기대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멩탄은 불교가 3가지 이유로 서양에서 각광받는다고 했다. 첫 번째로 불교는 고통 해결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 두 번째는 불교는 과학적 ·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상당히 체계적이며 영적으로 깊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고통을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부처님은 '내 가르침은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교는 과학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달라이라마는 '과학적 분석이 불교의 그릇된 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불교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교가 자연스럽게 현대 과학적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종교인 불교도 처음 구글에 도입했을 때는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 20~30대의 젊은이였던 구글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명예훈장이나 우등상장처럼 여겼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 클래스'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

멩탄은 '위빠사나' 같은 전문용어 대신 '주의력 발달' '내적 평화' 같은 표현을 쓰면서 성공가도를 달리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포장했다.

그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불교에 마케팅은 필수였다. 불교와 명상을 현대인에게 맞추어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명상에 대한 가르침을 널리 알리며, 보통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로 선택해 구성하고, 유튜브에 가르침을 올리거나 원격으로 비디오 컨퍼런스를 여는 등 기술을 사용하여 명상 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 지속적으로 과학자들과 일하며, 신경학적인 면에서 명상에 대한 이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드 멩탄은 세미나에 이어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창의적 리더십과 명상'을 주제로 포럼의 장을 열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나은 기자

"불교명상 관심커지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명상이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창의력과 통찰력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기업문화의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어 명상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 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차드 멩탄을 초청,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했다.

인류의 진정한 평화는 깊은 명상에서 싹트고 자라나며,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모든 갈등과 번민이 잠들고,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빛을 발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창조적인 깨달음이다.

이번 차드 멩탄의 방한동안 마련된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은 과학과 명상을 접목시킨 현대적인 선을 체험함으로써 비즈니스 통찰과 내면에 잠재돼 있는 리더십을 자각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치열한 무한경쟁의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선과 명상을 통해 무한 향상, 무한 상생의 블루 오션을 열어가며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의 방한을 계기로 불교명상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

내 삶의 전환점 대비주를 만나다!

一山 법상스님 구미 대비주 법회

일 시 ▌2014년 11월 9일 (일) 오후 1시 20분 ~ 5시
장 소 ▌구미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 / TEL 054-454-6601/5)
내 용 ▌대비주 수행법문, 대비주 49독, 축원, 합동천도재
동 참 금 ▌1인 1만원, 설판재자 1인 35만원, 영가1위 35만원
차량운행 ▌일산 덕양선원에서 07:30 출발
문 의 ▌덕양선원 031. 907. 7172. / 구미 수행회 도연 010. 3531. 7500

구미 대비주 수행회

경기도 일산의 〈덕양선원〉을 본원으로 하고 구미/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대비주 수행의 전국화, 세계화〉에 앞장서고자 출범한 수행단체입니다.

대비주 수행도량 덕 양 선 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메리트원 BD 607호 (031.907.7172)
다음카페 http://cafe.daum.net/zeol



덕양선원 一山 법상스님은

2004년부터 시작된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금년 4월에 회향하고 2024년까지 새로운 10년 결사에 돌입,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시는 대비주 수행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저녁 7시 30분)마다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 대비주 수행 지도법사 (2005년 ~ 2013년 12월)
○ BTN불교TV '대비주 수행' 강설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 저서 : – 다라니 수행 (일산 법상 지음 / 비움과소통 / 15,000원)
– 다라니의 힘 (일산 법상 지음 / 비움과소통 / 15,000원)
– 내 생애 단 한번 뿐인, 오늘 (수행예화집 / 10,000원)
– 대비주 수행의 힘 (덕양선원 엮음 / 12,800원)
○ 음반 CD : 신묘장구대다라니 음반 (10,000원)

'대비주 수행'이란?

대비주(大悲呪/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하며 대비주(大悲主/자성불 참나 주인공 등)로 사는 수행입니다.

대비주 수행은 스스로 밝고 주위를 밝힙니다. 위로는 조상님과 수평으로는 가족들과 깊은 인연들, 아래로는 자식과 후손들이 해탈하고 성취하는 수행입니다.

一山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과 〈자성불 수행〉은 남녀노소 빈부차별 직위고하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행이며,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 대원을 향하여 최상의 길을 여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입니다.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오늘날 一山 법상스님의 서원이 되어 펼치는 '대비주 수행'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수행을 함께 합시다.

“걱정은 금물, 모두 다 잘될거야”

템플스테이 스님들이 수험생에게 전하는 메시지

청춘의 꿈을 응원하는 ‘당당’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낙산사, 백담사, 법륜사 지도법사 스님들이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비해 심신의 안정을 돕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님들의 조언이다.

낙산사 적담 스님은 “자기 전 잠깐의 명상을 추천한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 15분 정도 자신의 숨을 관찰하면 머리도 몸도 가벼워진다”면서 “쉬는 것을 충분히 잘 해줘야 두뇌도 제대로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백담사 백거 스님은 “한계 속에서 충만을 발견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며 “먼저 호흡을 발바닥으로 내려 보낸 뒤, 용천(발을 오므릴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에 집중해 호흡해보라”고 충고했다.

법륜사 일묵 스님은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라. 걱정은 금물”이라며 “연잎밥과 연꽃차로 마음을 안정시켜 보라”라고 응원했다.

스님들은 학업에 지친 청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부처님 말씀 한 구절도 보탰다. 낙산사 적담스님은 “수행하는 데 마(나쁜 일)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마군을 수행을 돕는 벗 삼으라 하셨느니라”고 전했다.

백담사 백거 스님은 “마음에 반응할 것인가, 마음을 주도할 것인가”를, 법륜사 일묵 스님은 “백만 명의 적군을 무찌르는 장수보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장수”라는 경구를 수험생들에게 추천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당당 템플스테이에는 수험생과 가족이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동해바다 절경을 품은 양양 낙산사는 ‘파랑새를 찾아서’ 템플스테이를, 만해 한용운의 기운이 서린 인제 백담사는 ‘꿈! 알림. 다림. 누림’ 템플스테이를, 용인 법륜사에서는 ‘Dream 드림’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또는 각 사찰의 개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공불련, 14주년 기념법회 거행

10월 11~12일 양양 낙산사서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0월 11~12일 양양 낙산사에서 회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4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입재식, 대의원총회, 수행정진, 낙산사 순례 등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김상인 회장은 “입재식에서 김상인 회장은 “모든 행정기관에 1불자회 갖기를 목표로 회원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밖에 공불련 회원들은 각 기관불자회 대표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15년도 계획안을 논의했으며, 수행정진의 시간에는 낙산사 스님들과 함께 관음정근과 다라니기도로 새벽 예불 전까지 철야정진을 했다. **이나은 기자**



공무원불자연합회는 10월 11~12일 양양 낙산사에서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덕양선원, 구미서 대비주수행법회 연다

구미 수행회 발족 기념, 11월 9일 구미 상공회의소 강당서

대비주수행 전문도량인 덕양선원(원장 법상)의 수행정진이 경북 구미에서도 이어진다.

덕양선원은 11월 9일 오후 1시 20분 구미 상공회의소 2층 강당서 대비주수행법회를 거행한다.

덕양선원은 “지난 4월 법회 동참이 어려운 인근 지역 신도들이 대비주 수행을 전법하고자 ‘구미 대비주 수행회’를 발족했다”며 “매주 월요일 한자리에 모여 법상스님의 법문을 공부하고 한목소리로 대비주 정진을 해 온지 어느덧 30회차를 맞이해 공덕을 회향하고자 법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미 대비주수행법회는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 즉문즉설 그리고 대비주 49독 정진, 불공, 축원, 합동천도재 순으로 진행한다. (031)907-7172 **이나은 기자**

“파욱 숲속사원 수행법 국내서 배워요”

우실라 스님 향천선원서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 지도

“내가 괴로움 ·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내가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행복한 얼굴과 자비로운 마음에 집중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인중에 집중하고 들숨 날숨만 알아차리세요.”

토요일 오후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향천선원 법당. 미얀마에서 온 우실라 스님의 사무량심 수행 지도 법문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여 명의 재가자들은 서툰 한국말로 자애명상을 지도하는 우실라 스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무량심(四無量心)을 기르기 위해 들숨 날숨에 집중한다.

우실라 스님은 초기불교의 전통명상수행법인 사마타 집중 명상을 수행하는 미얀마 파욱 숲속사원에서 많은 수행자를 대상으로 지도한 인물이다.

법랍 21세인 우실라 스님은 우 웨봉라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고 사마타 수행의 달인이자 미얀마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지도자로 불리는 파욱 아친나 사야도(파욱 사야도)의 요청으로 수행자들을 지도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한국파욱명상(http://cafe.daum.net/paauk)은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6시 우실라 스님을 초청해 미얀마 파욱 숲속사원에서 진행하는 ‘사마타 위빠사나’ 지도법회를 열고 있다.

법회는 우실라 스님의 지도아래 실제 수행하는 시간을 갖고 난 뒤 법문을 들고 개인별 수행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정기적으로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해온 전현수 박사(정신과 전문의)와 위오기 교수(공주대 경영학과)가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10월 4일 토요일 오후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향천선원 법당. 미얀마에서 온 우실라 스님의 사무량심 수행 지도 법문이 한창 진행 중이다.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3시 열려
우실라 스님이 직접 수행점검
체계적인 사마타 · 위빠사나 지도
파욱 사야도에게 지도력 인정받아

우실라 스님이 가르치는 수행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사마타 수행으로서 호흡관 수행법(아나빠나사띠), 사마타 수행으로서 네 가지 보호수행법, 4대 수행으로 시작하는 위빠사나 수행이다.

이 세 가지 수행법에서 호흡관은 파욱 사야도가 수행자들에게 삼매와 선정을 개발하게 하는 데 주로 이용하는 수행주제다. 수행자가 일정 기간 호흡관 수행을 하면 니밋따(심상 혹은 표상)가 뜨면서 초선을 비롯한 4선정을 얻게 된다. 만약 수행자가 호흡관으로 4선정에 도달하고 다섯 가지 자유자재함을 숙달했으며 삼매로 인해 얻어진 빛이 밝게 빛날 때, 수행자가 원한다면 거기서 바로 위빠사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더 몸의 32부분에 대한 수행, 백골관, 색깔 까시나(kasina)수행 등으로 무색계 4선정을 얻게 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게 한다.

그 다음 호흡관이나 흰색 까시나로 얻어진 선정의 빛을 바탕으로 자비희사 4무량심과 불수념, 죽음에 대한 명상하는 사념, 그리고 부정관 등을 수행하게 한다. 이 네 가지는 수행자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보호 수행법이라고 한다. 수행자가 위빠사나 본수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닦아야 할 가치 있는 수행이다.

다음으로 사마타 수행으로 얻은 선정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4대 수행을 통한 위빠사나를 시작해야 한다.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궁극적 실재를 분별 확인하고, 두 번째로 12연기의 관찰을 통해 모든 현상의 인과를 살펴야 한다.

이 두 단계가 파욱 숲속사원에서의 수행을 다른 순수 위빠사나 수행과 구별 짓는 깊이 있는 수행이라고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몸을 대상으로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함으로써 물질을 이루는 극미 요소인 깔라빠(kalapa)를 확인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깔라빠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지수화풍 4대와 색깔 · 냄새 · 맛 · 영양소와 부차적 요소인 감성물질 요소 · 성(性) 요소 · 심장 토대 요소들까지 확인한다. 이 단계까지 확인해야만 물질의 궁극적 실재를 본 것이고, 그래야만 제대로 위빠사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깔라빠의 요소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한 깔라빠가 생멸할 때, 17번 생멸한다는 심찰라를 확인한다. 또한 낱낱의 마음(心)과 마음부수(心所)들의 생멸을 확인한다. 이 단계까지 봐야만 정신의 궁극적 실재를 본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낱낱이 깔라빠의 생멸과 심찰라의 생멸을 보아야만 진정한 위빠사나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파욱 수행법의 특징이다.

법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파욱의 명상법을 책으로 읽는 것과 실제로 수행을 하신 분의 체험을 육성으로 듣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 같다. 명상 과정을 좀 더 세세히 알 수 있으며 수행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다”며 “또 질의 응답 시간도 있어 수행에 있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상세히 답변을 모두 들을 수 있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다. 부처님의 바른 법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꼭 법회에 참여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우수기업 사회공헌팀서 불교경제 배운다

날마다좋은날, 10월 28일 소셜임팩트포럼 개최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2014불교사회적경제 소셜임팩트포럼 ‘불교사회적경제! 대기업 사회공헌전략과 통(通) 하다’를 개최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0월 28일 오후 3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대기업 사회공헌팀 실무자들의 주제 강연으로 마련됐다. SK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지원팀의 조미현 팀장, KDB대우증권 CSR추진부 김성철 부장,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최재호 차장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오프닝 강연으로 임팩트스퀘어의 도현명 대표가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과 사회적경제 파트너쉽’의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후에는 강연자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시간이 마련된다.

날마다좋은날은 “이번 포럼은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와 대기업 사회공헌 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첫 번째 행사라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불교계에서는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 사회적경제 창업 전망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불교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기업의 사회공헌전략과 매칭해 향후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날마다좋은날은 ‘사회적경제, 불교와 만나다’를 주제로 조계종 교육원 스님 연수교육 인증과정을 실시한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가 최초로 스님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교육은 11월 5~7일 오후 2시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본부장이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방향’을, 강대성 SK행복나래 대표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현황 및 방향’을, 강윤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팀장이 ‘사회적경제 인증 · 설립 프로세스’를, 김광수 신나는조합 소장이 ‘불교사회적경제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임창규 한국사회투자 사무국장이 ‘사회적 금융 활용방안’을 각각 강의한다. 교육 후에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스님의 사찰을 방문해 집중적인 컨설팅 ·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verygoodday.org)를 참고하거나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02)732-7273 **이나은 기자**

봉 행

오백나한 점안식 및 법상종 제15대 총무원장

심지 해월 대종사 취임대법회

결실의 계절을 맞아 금번 (사)대한불교법상종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얀마정부로부터 기증받은 오백나한 점안식 및 법상종 제15대 총무원장 심지 해월 대종사 취임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 일 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1시
□ 장 소 : (사)대한불교법상종 본산 안성 쌍미륵사
□ 문 의 : 경기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 쌍미륵사 (☎전화 031-677-9950~1)
□ 식 순 : ◆ 1부 : 오백나한 점안식 (오전 9시 ~ 오전 10시 30분)
◆ 2부 : 총무원장 취임식 (오전 11시 ~ 12시 정오)
◆ 3부 : 마정수기 (티벳린포체) 오후 1시 ~ 오후 2시
◆ 4부 : 산사음악회 및 노래경연대회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초대가수 : 박진광, 홍원빈, 박승희, 현자, 미소걸스)

※ 화환은 사양하고 뜻이 계신분은 성금을 보내주시면 불우이웃돕기에 쓰겠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205013-51-003802 사단법인 법상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심지 해월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촌스럽고 쓸모없다고? "우린 꽃할매"

종로노인복지관, 신노인문화 인식개선 걷기대회

"못생겼고 이기적이며 쓸모없다. 고집세고 불만이 많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적힌 풍선. 다트 한 개가 날아오더니 '게으르다' 고 쓰여진 풍선을 터뜨렸다. 조계사 앞 마당에서 열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깨기 이벤트였다.

이하연양(9)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사셔서 아는 것이 많다. 보고 배우고 싶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게으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대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고령화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늙고 의존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고 신노인의 면모를 젊은 세대에 알리고자 어르신들이 거리로 나섰다. 노란 모자, 주황 가방, 파스텔 풍선을 든 채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10월 15일 개최한 신노인문화 인식개선 걷기대회. 조계사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돌아오는 코스에 어르신 1천여명이 참가했다.

"평소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존재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김직형(75) 어르신은 노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대답하며 "경제력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노인들이 하는 말은 다 일방적 주장으로 들린다. 쓰레기줍기라도 좋으니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줄 때 우리 역시 당당할 수 있다"며 노인들이 무기력한 존재로 물러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황수해(73) 어르신 또한 조심스레 입을 뗐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 예의가 바로설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 역시 자리잡게 될텐데 오늘날 사회에서 도덕을 찾아보기 힘든것도 예절문화가 퇴색돼서 그런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돼 있었던 이유로 소통부족을 꼽은 것이다. 참가자들은 '독립적이고 지혜로우며 존경받는 노인이 되겠다' 는 피켓을 앞세우고 종로구 일대를 1시간동안 걸었다.

> 늙고 의존적 이미지 탈피 노력
> 걷기 일정에 1천여 어르신 참가
> 지혜롭고 활동적인 신노인 부각

정관 스님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노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사회에 확산되고 어르신들 역시 사회에 기여하고 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분들로 거듭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10월 15일 개최한 신노인문화 인식개선 걷기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환한 모습으로 조계사를 나서고 있다.

참가 어르신들은 각자 소원을 담은 풍선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대다수가 가족 건강을 염원하는 글로 채워졌다. '나라발전' 이라고 쓴 풍선도 볼 수 있었다.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국민들 전부 화합하고 돈독한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는 박영자(71) 어르신의 풍선이었다. 박 어르신은 "70평생 살아온 나라에 애정이 담길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욕심많고 고집센 노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어한다"고 답했다.

남정훈(28)씨도 "어르신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분들이 가진 지혜에 감탄하게 된다"며 "세대간 갈등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부족해서 빚어지는 일이다. 젊은이들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미얀마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지구촌공생회-백천문화재단, 도서관 건립 예정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10월 13일 백천문화재단과 미얀마 제야아웅 마하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백천문화재단은 미얀마 양곤주흘레구 타운쉽에 위치한 제야아웅 마하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도서관 건립을 위해 1천8백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마하학교 도서관은 20여 평 규모로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물 신축 뿐 아니라 도서 및 책장 등 기자재 지원도 함께 이뤄져 도서관이 완공되면 아이들이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제야아웅 마하학교는 조계종 '마하회' 의 1억4백만원 후원으로 지난 2012년 건립된 학교. 그전까지 제야아웅 사원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실이 없어 150여 명의 아이들이 스님 처소나 법당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당시 초등학생 200명으로 시작한 제야아웅 마하학교는 현재 중등 교과과정까지 개설돼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지구촌공생회는 "미얀마에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등록금이 비싼 공립학교를 다니지 못해 열악한 환경의 사원학교에서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며 마하학교 도서관이 건립되면 꾸준히 모니터링과 도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3일 지구촌공생회 서울 사무국에서 백천문화재단과 지구촌공생회가 미얀마 제야아웅 마하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전기 시설이 없어 어둡고 더운 교실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제야아웅 마하학교를 비롯한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만화가 꿈꾸는 청소년이라면?

나래꿈터, 만화공모전 · 동아리 참여자 모집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나래꿈터(센터장 보련)는 '제1회 꿈의 만화 공모전' 참여자를 모집한다.

꿈의 만화 공모전은 만화가나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경험과 기회를 주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사다.

만화 공모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만화작가와의 만남이 준비되며 만화 창작에 대한 궁금증과 직업인으로서의 만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직업 · 꿈에 대한 주제로 8컷만화를 그려 제출하면 된다. 1인당 2작품으로 한정되며 작품은 10월 30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한다. 이와 함께 나래꿈터에서는 만화에 관심있어하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550-3628

배현진 기자

"똑똑, 희망다발 배달 왔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꽃배달 신청자 모집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와 비영리민간단체 착한사람들(회장 송정준)은 10월 9일 희망꽃배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사람들' 은 저소득 이웃들에게 꽃배달 지원사업을 통해 나눔 활동 확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단체.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상 기념일을 챙길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고자 발족됐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거주 최저 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5가정에게 매월 꽃바구니, 케이크, 축하 메시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대상자 모집과 선정을, 착한사람들은 희망꽃배달을 매월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현옥 실장은 "착한사람들과 함께하는 희망꽃배달 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착한사람들과 함께하는 희망꽃배달 지원사업은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은 한부모가족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추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

접수는 매월 20일까지 받는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인문학과 함께 하는 가을데이트

중림·은평 복지관, 한국사부터 노후설계까지 인문강좌 마련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 (02)362-3348)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사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고대, 중세, 근세, 근 현대사 등 한국사의 주요한 인물과 사건을 알기 쉽게 익히며 한국사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다.

청량고 김규태 교사가 강의를 맡아 우리 역사 중 중요한 사건을 짚어가며 강의를 펼칠 계획이다.

강좌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총 4회기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수시로 접수하며 대상 제한은 없다.

복지관 측은 "자신만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 (02)385-1351)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노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르신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다.

노후설계, 노년기 사회참여 및 관계형성,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 건강관리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0회기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이어진다.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5천원이다.

복지관측은 "어르신 아카데미는 노후의 지적욕구 충족과 효율적인 여가선용으로 제2의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홍천군복지관, 장애인육상대회 선전

선수 5명, 금메달 5개 획득

제2회 강원도 장애인육상대회에서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 소속 5명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10월 10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이뤄진 경기에서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조준연(28 · 지적장애2급)씨는 육상 일반 트랙 100m와 8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허원혁(17 · 지적장애3급)군은 육상 고등 트랙 100m 금메달과 200m 은메달, 심영미(22 · 지적장애2급)씨는 여자 일반 트랙 1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진주(22 · 지적장애3급)씨는 여자 일반 트랙 200m 금메달과 100m 은메달, 최은희(17 · 지적장애3급)양은 고등 필드 창던지기 동메달과 포환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강원도 장애인육상대회에서 입상한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소속 선수들이 메달을 걸고 즐거워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무구스님과 함께하는 인도불교 성지순례!

성지순례+세계문화유산 탐방 할인특전에 선착순으로 모십시다!!!

▶ 일 시 : 2014년 11월 26일~12월 5일(9박10일)
▶ 여 정 : 델리-아우랑가바드(엘로라 석굴사원, 아잔타 석굴사원)-보팔(산치대탑)-오차(사원)-카주라호(사원)-사르나트(녹야원)-아르라(타지마할)-델리-인천공항
▶ 경 비 : 1인/ ₩2,800,000
▶ 문의전화 : 우리출판사 02-313-5047 · 010-5474-1233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16-214784(수효사 김동금)
※ 전 일정 호텔 숙박 및 한식 제공으로 인도여행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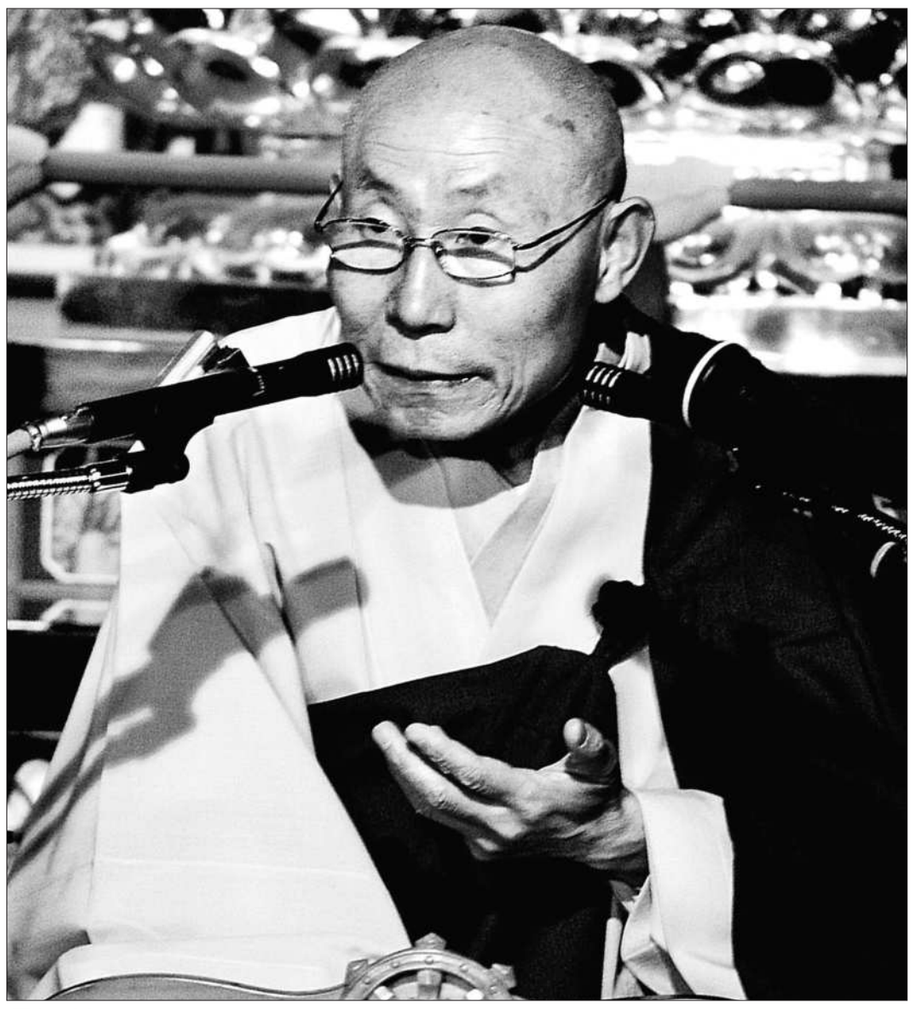
화두 놓지 않으면 내면의 평화 저절로

불광사 선지식 초청법회 **'선, 행복으로 가는 길'**

무여 스님(축서사 회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돈과 명예에 있지 않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래서 어떤 경계에 부딪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경지를 행복이라 한다. 이런 행복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축서사 회주 무여 스님은 참선 수행을 하라고 권유한다. 참선을 잘하면 늘 순일한 상태가 되고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늘 화두를 놓지 말고 공부하라고 스님은 법문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여 스님은 … 경북 김천 출생으로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1966년부터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제방선원에서 20여년 동안 수선안거하며 칠불사 망원사 선원장을 역임했다. 1988년 이후부터는 축서사에 주석하면서 불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오늘 법문은 불교적인 수행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합니다. '행복' 사실은 말만 들어도 설레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 누구나 바라는 말이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찾는 나그네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일생동안 행복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이기도 하고, 또 행복을 찾기 위해 여우처럼 온갖 잔꾀를 부리는 존재라고도 해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행복을 찾는 가장 좋은 마음은 마음을 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쉰다 비운다 놓는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옛 어른께서는 마음을 천 번 쉬고 만 번 쉬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쉬고 쉬고 또 쉬고 하면 바로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쉬면 곧 깨닫는다 하셨고 유명한 임제 스님께서도 쉬면 곧 청정법신이다 하셨습니다. 쉬기만 하면 부처님처럼 청정한 법신을 갖는다 하셨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마음은 벽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쉬고 쉬어서 벽과 같이 꿈쩍하지 않아야 진정한 도에 든다는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일시에 놓아버리는 것이 참된 공부입니다. 놓아도 참으로 놓고 쉬어도 참으로 쉬고 비워도 무섭게 비워야 합니다. 쉬고 쉬어서 쉰다는 생각까지도 일체 쉬어서 망상과 집착이 사라져 자신의 참모습이 저절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해가 허공에 떠올라 사방을 바로 비추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쉬어버리면 허공계와 법계가 자기 게 아닌 것이 없고 본래부터 그대로 열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지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지식이니 지식이 판을 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마음공부에서는 번뇌망상이고 불행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지식 때문에 괴로워지고 불행해지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일수록 더 수행을 많이 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 납자가 20여년간 이 절 저 절 다니면서 나름 공부하느라 애썼는데 진정한 공부가 못됐어요. 쉰을 바라보는데 육체도 쇠잔해지니 망상이 들었어요. '금생에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몸을 바꾸어야겠다' 하고 강물에 빠져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몸을 던지려는 순간 뱃사공이 뒷덜미를 잡아 버렸어요.

뱃사공은 "보아하니 산중 스님인데 공부함네 말만 번지르르했지 얼마나 애써봤소? 출가까지 해서 못난 짓거리하지 말고 한번 애써 공부해 봐라. 이렇게 죽으면 당신 고기는 물고기도 피할 거요." 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납승은 부끄럽고 괴롭고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이게 발심이 되는 거였어요. "죽자 사자 애써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며 "여기서 깨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뭐꼬 이뭐꼬 이뭐꼬" 하면서 애를 쓰니 20년 안 되던 공부가 불과 몇 십분만 되면서 화두가 성성하더랍니다. 그러니 3일만에 깨치게 되었죠. 어찌나 좋든지 춤을 덩실덩실 췄다고 합니다.

화두 공부는 진심으로 발심해서 간절하게 참구하게 해야 함을 뱃사공이 가르쳐준거죠. 당신처럼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망상이나 피우고 졸리면 자고 그러니 안 된다고 가르쳐 준 거에요. 화두 참구의 요령은 수행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발심해라 발심해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입니다. 그 보리란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상정등각' 꼭 깨닫고야 말겠다는 마음입니다.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고 이 마음이 여래를 만듭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니 마음만 제대로 내면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큰 마음을 내면 발심이 보리요 열반이 될 수 있다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양종을 창종한 앙산선사는 9살에 출가를 했다가 부모가 14살에 다시 데려와 장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린 나이에 손가락 두개를 잘라 부모에게 바치며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고 수행해 불도를 이루겠다"고 간청해 뜻을 이루고 큰스님이 됐습니다.

그렇게 발심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두가 안된다, 화두 공부하기 어렵다 하지 말고 발심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발심 있는 곳에 화두가 있고 화두 있는 곳에 발심이 있습니다. 발심을 하셔서 이 공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두 참선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직 간절하게 해야 참으로 잘할 수 있다 합니다.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 하듯이 화두를 챙기라는 거지요. 물론 염불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외아들을 걱정하듯이, 두세살 먹은 아이가 가출한 어머니 생각하듯 해야 합니다. 화두를 간절하게 해야 참으로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선하시는 분 염불하시는 분은 생사문제를 늘 생각하면서 해야 이 공부에 대해 진정한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도 번뇌망상
참선으로 순일한 상태 이르면
가정과 사회에도 행복 찾아와

현대사회는 수행법의 홍수시대
스승의 지도 무엇보다 '중요'

그러니 참선은 하는둥마는둥 성의 없이 하면 어렵습니다. 오직 이 공부뿐인듯 애써야 제대로 하기 쉽고 공부에 자신을 바치고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란 도대체 누구인가' 참선 수행자는 자기의 화두에 대해 대단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화두뿐입니다. 한마음을 내야 대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어떤 화두를 하든지 '이뭐꼬' 하면서 의심이 나야 돼요. 보통은 염불하듯이 해야하는데 간절하게 하고 성심성의껏 하면서 아주 진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내야 합니다.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절절한 상태가 되면 화두에 대한 진정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잘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사시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안과 공포도 생기고 노여움과 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화두가 되는 상태가 되면 그런 복잡함과 번뇌망상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몇 년 전에 〈화〉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여기도 읽은 분이 계실 겁니다. 〈화〉라는 책 자체도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 상태가 되면 없어져요. 화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사라져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고요해집니다.

오래 사시다 보면 부부간도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꼴도 보기 싫다 정이 떨어진다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이혼률이 가장 높습니다. 가정의 만족도도 최하위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을 잘하면 화두가 잘 돼서 늘 순일한 상태가 되고 새벽에 일어나도 들리는 상태 꿈에도 들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보기 싫던 남편 얼굴이 부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그렇게 싫어 보이던 아내의 얼굴이 환한 달덩이 같은 보살의 얼굴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공경하고 모시는 부처님처럼 아내 남편을 모신다는 말이죠. 신도님들 중에서 남편이 출근할 때 부부가 정성껏 3배를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도 부정부패 전쟁, 패륜아 파렴치범 등 사회악 일체가 사라져요. 핵을 쓰겠다 그런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참선 잘하고 염불을 잘하면 아주 살만한 지구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정도만 되면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구름 위에 떠다니고 걸어다니는 것도 사뿐사뿐 유리 위를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듭니다. 이 정도가 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괴롭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하면 됐지 돈 그거 있어 뭐하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마음의 평화만 느껴도 온 몸에 기운이 돌듯이 온 몸에 즐거움까지 느끼고 오묘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즐겁다고 할 수도 있고 기쁘다 할 수도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사시면 참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정도만 되면 불교 수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즉 부처님 말씀에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근본 자성을 가졌다고 한다. 선수행으로 얻은 지혜는 태양과 같아 학문으로 얻은 지혜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참선은 젊은 사람, 머리 쓰는 직업일수록 해야 합니다.

수행은 화두나 염불로도 가능하고 주역도 가능하지만 화두가 가장 빠르다 합니다. 참선을 잘하면 둔재가 천재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범부가 부처가 되고 도인이 되기 때문에, 인간 개조법 인간 재생법이 참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몸은 저절로 좋아져요.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그런 증세가 다 없어지고 아주 건강하게 돼요.

물론 선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효능은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죠. 참선의 목적은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 부처가 되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스님들처럼 늘 하지 못하더라도 아침저녁 주말 등 할 수 있는 시간에 수행에 푹 빠져 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정 · 염불 삼매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돼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수행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피우기 쉬운 때가 요즘이기도 하죠. 수행은 바른 수행을 하고 스승에게 안내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깨칠 때까지 꾸준히 의지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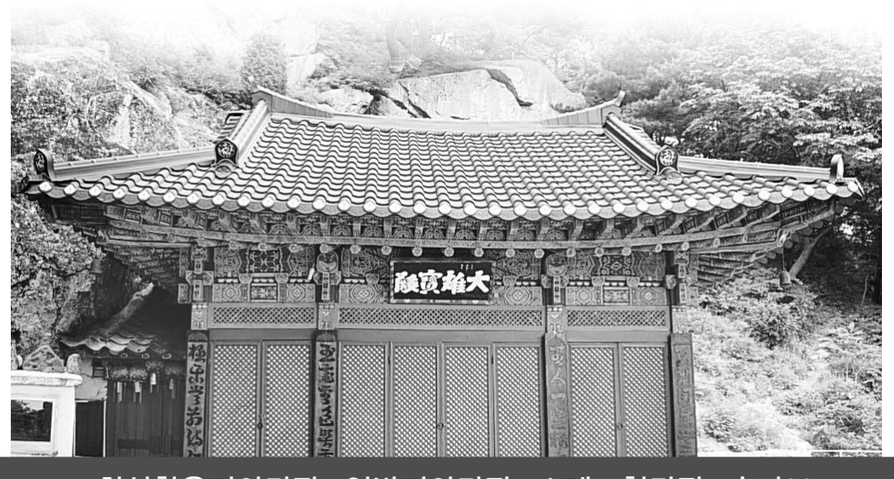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교의 효사상은 보은 윤리서 비롯"

한국정토학회 '조상신앙' 주제 학술세미나 '눈길'

49재를 비롯한 다양한 조상신앙 불교의식에 대한 고찰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한국정토학회(회장 보광)는 10월 11일 인천 흥륜사에서 '조상신앙'을 주제로 제17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생전예수재, 죽음 미리 준비하는 과정

첫 발제를 맡은 보광 스님은 '생전예수재'에 대해 조명했다. 생전예수재는 스스로의 사후를 위해 수행하고 염불하며 복을 닦고 공덕을 짓는 49재 의식으로 죽은자의 천도의식과 접합된 불교만의 독특한 의식이다.

보광 스님은 "본인이 살아있을때 49재를 미리 지냄으로 사후세계를 체험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의 신앙형태"라고 정의하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조상을 천도하는 효 신앙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광 스님은 "일각에서 기독교계의 면죄부 판매와 비슷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생전예수재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예수신앙은 불교의 지장신앙과 중국 도교의 사상이 결합돼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시식, 불교철학 드러난 대표 의식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관음시식'을 주제로 이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고찰했다. 신 교수는 "관음시식은 불교의식 중 불보살 공양에 이어 영가들을 대접하는 하단시식에 속한다"며 "이 과정에는 삼천대천세계라는 방대한 불교의 세계관과, 번뇌망상으로 가려진 지혜와 덕을 발현하기 원하는 불교의 인간관이 모두 녹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 불교의식에는 문학 성악 기악 미술 무용과 함께 철학이 함께 녹아 있다"며 "조상들이 물려준 철학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이를 미신적 요소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10월 11일 불교재의식 전면 고찰
생전예수재 · 관욕 등 참의미 밝혀
"단순한 기복 시각 버려야" 주장

관욕, 심신정화 기능이 더 크다

구미래 건국대 외래교수는 '관욕'을 중심으로 종교의 공통요소인 '씻음의례'가 불교에서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밝혔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관욕을 제외하고는 천도재 등에서 불보살을 모신 상단과 중단 관욕을 보기 힘든데 이는 한국문화의 특징"이라며 "'중생이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싹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상과 신상은 물론, 산자를 대상으로 한 씻음의례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월 11일 인천 흥륜사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재의식을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구 교수는 ""특히 대상에게 공덕을 베푼다는 의미보다 행하는 이의 심신을 정화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본래 의미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문화, 효사상 저촉 안돼

이철영 을지대 교수는 화장문화의 시작이 선사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고유한 장법이었음을 밝히고, 고려시대 불교가 융성하며 매장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장법으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 들어 불교 배척과 함께 화장이 배척의 대상이 된 이후 유교 정체성으로 기피대상이 됐다. 하지만 유교 생사관과 논리에는 화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다"며 "가장 큰 저촉점은 효사상이지만 최근에는 효와 분리하여 인식함으로서 새로운 죽음의례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효사상, 평화공존주의에 기여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불교 효사상은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윤리"라며 "보은 사상으로 우란분재 등 세시풍속이 설행되며 이러한 윤리는 사회적인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양 명예교수는 "이는 유교윤리와는 대응되는데, 현세에서 부모를 섬기는 효와 달리 삼세의 부모와 망부모의 천도를 논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이라며 "이는 지극한 인본주의와 이타주의, 평화공존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물질문명의 이기에 함몰된 현대사회를 새롭게 꾸려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청, 성보문화재 장기 보존대책 수립한다

국정감사서 연이은 지적에 10월 17일 수습 대책 발표

문화재청이 최근 관리부실을 지적받은 문화재의 영구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0월 17일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하 팔만대장경)의 종합적인 보존 ·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 중인 종합 보존관리계획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팔만대장경의 보존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영구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보존관리의 틀과 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진행해왔던 '대장경판 디지털 영상 및 DB 구축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중복판'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일제강점기 보물로 지정(1934년)된 이후, 유지해 오던 팔만대장경의 수량(8만1258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재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또 매직 표시, 톱질 보수, 왜못 사용 등 경판의 훼손과 관련해 훼손 경판의 일회성 보수보다는 종합적인 보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리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 5월 완료예정인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 보존관리계획'에선 경판의 손상 유형과 손상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재료, 수리방법 등을 포함한 상시, 응급 수리매뉴얼을 제작해 손상경판의 종합적인 보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문화재 긴급점검 당시 보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榮州 浮石寺 無量壽殿)'은 '보수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3년 6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점검 과정

대장경판 재조사 및 장기 보존계획
부석사 무량수전, 백화현상 개선

문화재청은 2010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계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기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무량수전은 1916년 일제에 의해 해체 수리 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목재 열화(劣化) 등 보수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특히 방염제로 인해 단청 백화현상 등 부작용이 확인돼 2009년부터 단청 부분을 제외한 기둥 높이 이하만 방염제를 도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방염제 성능평가 및 도포기준 연구'가 완료되는 2015년부터 방염제 성능과 검정 기준 등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청담사상硏, 제13회 청담학술세미나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불교정화의 주역이었던 청담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구)는 11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청담사상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대한불교조계종의 토대를 형성한 동산스님과 청담스님의 역할', 최원섭 동국대 박사가 '청담대종사의 영산도가 구현하려고 한 거대총림 조계종',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마가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출범 50년을 맞아 살펴본 청담대종사의 6대 사업'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응 스님이 '청담대종사의 조계종지와 청정승가 전통회복 운동', 김완정 동국대 외래강사가 '청담대종사의 조계종의 간화선 전통계승과 마음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예硏, '불교상담과 청소년' 포럼

10월 29일, 성폭력 · 집단따돌림 등 문제해결 모색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10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 동방대학원대 호운미술관에서 '불교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4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청소년 상담기법 개발을 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미숙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해결을 위한 불교 상담-십우도를 중심으로' △황임란 한남대 교수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성적 이해와 불교 상담의 시사점' △신애경 목포대 교수의 '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에 대한 유식학적 접근' △서신자 목포대 교수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 고찰' △김재옥 송원대 교수의 '청소년의 성폭력 사례 연구' △전현주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청소년을 위한 만다라 프로그램 개발'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밝은사람들 '깨달음' 학술연찬회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서… 수불 스님 기조강연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은 11월 2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이 기조연설을 하며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의 '선종의 깨달음과 그 유형',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깨달아 감'과 '깨달음' 그리고 '깨달아 마침', 성해영 서울대 교수의 '깨달음 체험과 완성의 의미', 윤호균 가톨릭대 교수의 '온마음 상담과 불교적 성찰'이 발표된다.(02)720-3629

노덕현 기자

'세월호와 종교' 불교평론 열린논단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박사 주제 강연 맡아

〈불교평론〉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와 함께 10월 23일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논단을 진행한다. 발제는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박사(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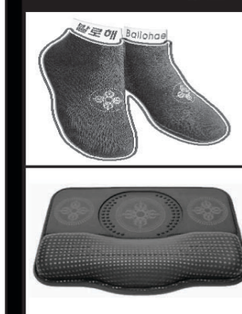
불교평론은 "사고를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한 일이란 겨우 천도재나 추도예배가 고작이었다"며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문제를 설명해온 종교인, 종교학자라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강남 박사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맥매스터(McMaster) 대학교에서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에 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학위(Ph.D.)를 받은 후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을 가르쳐온 원로학자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광주는 벌써 2015년 봉축 준비중

광주불교연합회 '2015 봉축기획단' 구성

내년 광주지역 봉축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이 발족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9월 12일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빛고을관등제 봉축행사 준비 특별위원회(이하 봉축기획단)' 를 구성하고, 단장에 시각스님(만덕사 주지), 부단장에 법선스님(문빈정사 주지), 아도스님(유유암 주지), 인성스님(관음암 주지)을 각각 임명했다.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총무부장 효진스님(광덕사 주지)도 봉축기획단에 합류했다.

이어 봉축기획단은 9월 22일 첫 면담을 통해 봉축기획위원에 11명의 재가불자를 추천했다. 재가불자는 청소년, 언론, 포교사단, 복지, 방송, 환경, 외국인단체, 종립학교, 군법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불교활동가들이 추천됐다.

봉축기획단은 10월 1일 첫 회의를 갖고 내년 봉축사업에 대한 계획을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립할 예정이다.

시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년 봉축행사가 광주불교를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봉축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준비에 들어간 봉축기획단은 지난 10월 10~11일 양일간 진주 유등축제 관람과 1박 2일 워크샵을 개최하고, 매주 수요

단장에 만덕사 주지 시각 스님
불교활동가 11명 기획위원 위촉
12월 19일 '송년의밤' 서 계획 발표

일에 정기회의를 통해 봉축행사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기회위원에 참여한 이주성 대표(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오랜기간 침체기에 있었던 광주불교가 새롭게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단순한 봉축행사가 아닌 광주불교인들의 화합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법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진주유등제를 참관하며 2015봉축 행사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기획위원들의 모습

특히 광주불교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봉축행사의 주요한 의제로 '광주불교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는 행사, 어린이 · 청소년 불자를 키워내는 행사,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러질 수 있는 행사' 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내년 광주지역 봉축행사 준비는 예년에 비해 4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한다. 특히 2015년 예산이 올 해 예산보다 2~3배 크게 증액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섬세한 준비의 필요성이 요구 되었기 때문이다.

봉축기획단은 향후 3개월 동안 회의를 거쳐 봉축행사의 계획안을 만들어 12월 19일 개최되는 '빛고을 불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불자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오는 11월 3일 정기총회와 빛고을 나눔나무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강 영신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 봉행


전강문도회 스님들이 대흥사에 마련된 부도탑비를 10월 15일 제막하고 있다.

현대 한국 선종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전강(田岡) 영신 스님(1898~1975)의 부도와 탑비 제막식이 10월 15일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에서 개최됐다.

전강문도회(대표 송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인제 용화선원 성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원경스님, 대흥사 회주 보선스님, 동국선원 유나 정찬스님을 비롯해 용화선원 신도 등 30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제막, 정근, 헌다, 헌향, 헌화, 종사영반, 행장소개, 인사말, 청법가, 전강스님 육성법문, 헌화가 진행됐다.

범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강 대종사께서 대흥사 주지로 부임하시여 서산대사 이후 13대 종사, 13대 강사의 법맥을 면면히 계승하시고자 큰 원력을 세우셨던 곳으로, 송담 큰스님께서 최근 부도탑비를 대흥사 부도전에 세워달라는 뜻을 밝히시어, 보선스님(대흥사 회주), 정찬스님(대흥사 동국선원)이 뜻을 받들어 제막식을 봉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된 부도탑비의 비문(碑文)은 문도들이 전강스님의 행장과 오도송, 열반송을 중심으로 간략히 짓고 글씨는 전남지역의 대표적 명필가인 학정 이돈흥 거사가 썼다.

부도탑은 총높이 7자 반, 가로 2자반, 폭 4자로 상륜부, 탑신, 기단부로 구성되었으며, 추모비는 총높이 11자, 가로 5자 반, 전체 10자 반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후에는 대흥사 성보박물관에서 현재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으로 알려진 송담스님의 글, 그림을 전시하는 송담관 개관식이 봉행됐다.

송담스님의 은사이기도 한 전강스님은 1898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16세에 해인사 제산스님을 은사로 응해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출가후 만공스님으로부터 '無' 자 화두를 들고 수행했으며, 직지사에서 6년간의 고행과 당대 선지식었던 제산 · 용성 · 만공 스님 밑에서 정진했다.

스님은 1923년 25세 되던 해 덕숭산 금선대에서 만공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고 선종 77대 조사가 되었다. 33세에 통도사 조실로 추대된 이래 법주사 복천선원, 수도암 선원 등 전국의 조실을 역임하며 후진을 양성하던 스님은 1962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을 건립하고 주석하면서 송담스님을 제자로 남겼다. 스님은 1975년 1월 세수 77세, 법납 62세로 좌탈입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대흥사는 경내에는 서산대사를 모시는 표충사가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비빔밥축제 사찰조리 체험 마련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2014' 전주비빔밥축제에 연(蓮)음식을 주제로 한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음식의 고장 전주시 한옥마을 일원에서 10월 23~26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4 전주 비빔밥 축제에는 송광사에서 준비한 사찰음식을 직접 시식하고 조리 체험을 통해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찰음식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린다.

행사에서는 과식과 육식을 삼가고 채식위주의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 '비움과 나눔' 이라는 사찰음식의 정신을 바로 알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송광사는 비빔밥 축제 기간동안 송광사에서 직접 재배한 연과 관련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2014' 전주 비빔밥 축제에 선보이는 사찰음식은 송광사에서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연을 중심으로 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연잎밥, 연꽃차, 연자 죽, 연잎 차, 연 칼국수 등이다.

또 적게 먹고(小食) 적당히 먹고(笑食), 채소위주의 식사를 하는 소식(蔬食)등 3가지 소식을 권장하는 3소식 캠페인도 진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사 침탈사료관, '쌀의 나라 군산' 전


쌀의나라 군산전 전시품 모습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가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쌀을 수탈해가는 역사 현장을 고발하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015년 1월까지 동국사 침탈사료관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타임캡슐– 쌀의 나라 군산' 전으로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쌀을 수탈해가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사진과 당시 직접 사용하던 기구, 문서 등 유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4개의 소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는 1898년 경부철도합동계약서, 1901년 군산상황, 1894년 청일전쟁 종군일지, 1929년 황손 이우 감시일지, 쌀 확대사진, 군산미곡취인소 미두통장, 구마모토 농장의 쌀 선적용 대형 계수판, 토지 수탈을 위한 측량기 세트, 소작계약서, 식량영단 서류 등과 당시 사용하던 관련 유물들이다.

또한 군산 축항기념으로 804가마의 쌀을 쌓아놓은 쌀탑, 일제 정미소 등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일제의 강제개항으로 외국인을 위한 조계지가 만들어지고, 평화롭던 어촌은 하루아침에 파헤쳐지고 군산진 관아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삶의 터전을 잃은 민초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100년전 우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종걸스님은 "그동안 3회에 걸쳐 일제의 조선 침탈 역사현장을 기록물 중심으로 전시해오고 있다" 며 "가리고만 싶은 아픈 기억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현장을 전시를 통해 다시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사는 10월 4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규장각실에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일본불교문화' 를 주제로 한일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교구신도회 구성 위한 발기인대회



공주 마곡사는 10월 12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제6교구본사 신도회 구성을 위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제6교구 본말사 신도회 임원 수련회를 겸해 열린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18개 사찰 66명의 각 사찰 신도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40명이 신도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교구신도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장은 최병권 마곡사 신도회장이 추대됐으며 말사 신도회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다.

최병권 임시의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부처님의 법을 익히고 자기 성불과 주변을 불국토로 가꾸는 포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여 최고의 신도회를 마들어 나가겠다"며 "교구 내의 공통의 사업을 목표로 본말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교구본사 신도회 창립법회는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장흥 보림사, 명상치유 산사음악회

천년고찰 구산선문 장흥 보림사가 10월 18일 '템플스테이 및 명상치유 산사음악회' 를 개최했다. '산사의 향기를 듣는다' 를 주제로 열린 산사음악회는 혜민 스님과 임동창 보림사 예술감독을 초청해 풍성함을 더했다.

1부는 청태전 들차회 및 장흥 특산물 홍보, 2부는 '국민멘토 혜민 스님 법문, 3부는 임동창이 진행하는 음악회로 흥야라밴드, 소프라노 박성희 씨가 출연했다.

보림사는 산사음악회와 함께 선차일여 단기출가 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박 2일,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선차일여 템플스테이에서는 청태전 만들기, 108배, 비자숲길 명상, 탑돌이, 참선, 선체조, 산행, 차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단기출가 템플스테이에서는 간화선 집중수행 등이 진행됐다. (061)864-205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말씀 충실히 담아 밝고 맑은 출판포교 25년

300호 발행 앞둔 혜원정사 사보 〈혜원〉


부산 혜원정사가 발행하는 월간 〈혜원〉이 오는 12월호로 통권 300호를 맞는다. 주지 원허 스님은 1990년 창간 이후 매달 빠짐없이 〈혜원〉지를 발행했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가 발행하는 월간 사보지 〈혜원〉이 오는 12월호로 통권 300호를 맞는다.

〈혜원〉은 주지 원허 스님과 혜원정사 신도들이 포교 활성화 및 도량의 소식을 전하고자 만들어졌다. 1990년 5월 2일 창간호 발행부터 시작해 제298호인 10월까지 한 번도 미발행이 된 적이 없을 만큼 혜원정사의 역사를 매월 기록하고 있다. 오는 12월은 혜원정사가 사보를 발행된 지 꼬박 25년이 되는 달이다.

혜원지의 슬로건은 '넓은 세상 밝은 마음 맑은 불교' 이다. 온 세상에 불국토를 펼치고 마음을 여여하게 하여 행복한 밝은 마음인 선정, 즉 맑은 불교를 완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법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혜원정사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혜원지가 발행됐던 1990년만해도 불교 서적을 구하는 것이 흔치 않았다. 그 당시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과 큰 스님의 법문을 접하지 못해 목마름이 항상 있었고 주지 원허 스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고자 혜원지를 발행했다. 혜원지는 혜원정사 창건주이자 쌍계총림 방장인 고산 큰스님의 법문과 주지 원허 스님의 글, 사경, 교리특강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싣고 혜원정사 및 산하단체들의 크고 작은 활동을 실어 신도들이 혜원정사 신도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소개했다.

이 중 인기 있는 코너는 바로 원허 스님의 글과 사경이다. 원허 스님은 그달 마다 이슈가 되는 신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화두를 가지고 고심하여 글을 완성한다. 현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되 불교의 관점으로 '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삶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코너의 목적이다. 사경은 금강경 이후 법화경을 2페이지씩 싣고 있는데 평소 대승경전인 금강경, 법화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자세한 뜻풀이도 함께 넣어 정기적인 수행을 권하고 있다. 이 코너 덕분에 금강경 사경을 성공한 신도들도 생겼으니 포교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1990년 5월 창간호 발행
사찰역사, 신도 신행담 실어
새 코너 '행복한 담소' 눈길

첫 호 발행 후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혜원지에도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 바로 '행복한 담소' 이다. 이 코너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라는 스마트폰 앱의 일종인 밴드에 올라오는 원허 스님 글에 대한 신도들의 댓글을 옮긴 것으로 원허 스님과 신도들의 소통을 느낄 수 있다.

내용뿐만 아니라 혜원지는 형태면에서도 변화를 거쳤다.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태로 시작했던 혜원지는 책자 형식으로 몇 년간 발행되다가 IMF 시기인 1999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신문형태로 되돌아갔다. 어려운 경제 분위기도 있었지만 혜원이 올바르게 발행이 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했고 새로운 형태로 신도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소책자, A4 크기의 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다가 최근 16절 사이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주지 원허 스님은 "포교지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고 앞으로도 혜원지가 400 · 500호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의 역사로 영원히 남겨지길 바란다. 매월 신도들에게 배달되는 혜원지가 약처럼 귀하고 유용하게 쓰일지 아니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종이가 될지는 신도들에게 달렸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깨닫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앞으로도 혜원지를 통해 불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혜원정사는 300호를 기념한 '추억' 을 공모한다. 혜원정사와 함께한 인연담과 사진, 축하 인사 등을 보내면 12월 발행되는 300호에 반영할 예정이다. (010)2572-7164 김나영 객원기자

佛音으로 학도병 값진 희생 기려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 학도병 추모재 및 음악회


부산승가연합회는 10월 11일 6.25전쟁 학도병희생자를 위한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이사장 조연, 회장 법민)가 6 · 25 전쟁 학도병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를 10월 11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봉행했다.

'호국안보 · 국가경제발전 · 국민화합기원' 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한국전쟁 학도병 희생자 추모음악회' 에는 제1부 위령대재 및 천도재를, 제2부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호국영령들이여!' , '사변영가를 위하여' 등 추모곡 공연이 1시간 가량 펼쳐졌다. 제3부에서는 발원문, 추모사 낭송, 헌화와 헌향, 봉행사 등의 순서로 남북전쟁 시 나라 수호를 위해 희생된 어린 학도병의 영가를 추모하고 나아가 나라의 평안과 화합을 발원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장 법민 스님은 봉행사에서 "6 · 25 전쟁으로 조국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적탄을 몸으로 막아낸 학도병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지만 학도병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는 이 조차 없음에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가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는 2012년 12월 창립식을 가지고 부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불자봉정 사자후청법대법회 등으로 나라의 평안을 발원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한-스 부처님 인연으로 하나 됐어요"

스리랑카 이주민 위한 법회


(사)함께하는 세상이 주최하는 스리랑카 이주민을 위한 법회모습.

이주민지원단체 (사) '함께하는 세상' (이사장 지성)은 10월 11일~12일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스리랑카 사원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부산 태종사 도성 스님, 아미사 주지 덕현 스님과 스리랑카 스님 12명,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들과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의 전통 가사공양 의식인 '카티나 판카마' 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분황사 제18회 원효예술제


분황사가 주최하는 제 18회 원효예술제

분황사 원효학연구원은 제18회 원효예술제를 10월11일 경내에서 열었다.

신라문화제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원효 스님의 무애행과 화쟁사상을 널리 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효예술제는 1부 법요식과 2부 예술제의 순으로 진행되어 퓨전국악과 민요, 가수공연 등이 펼쳐졌다.

경주 분황사는 원효 스님이 주석하며 많은 저술을 남긴 곳으로 매년 원효예술제를 열어 스님을 추모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경남지역 16개 합창단 열띤 경합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부산문화회관서



파라미타 청소년합창제 장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10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합창제에는 부산, 울산, 김해 등 16개의 학교들이 참가해 다채롭고 열띤 경합을 펼쳤다.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청소년 여러분의 삶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행복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합창제에는 대천여자중학교 '옥갓티코러스' 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해연합창단' , 김해여자중학교 '가오니아 걸즈 싱어즈' 가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1996년 5월 조계종이 설립한 청소년 육성단체 법인으로 올바른 청소년 문화 정착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대한민국청소년 합창제' , 우리 문화체험 및 문화탐방과 문화재 애호활동 등 다양한 참여활동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두송복지관 최우수프로그램 선정

'동무야 모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대회서 호평

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맹자) 병설 두송노인복지센터가 장기요양급여제공 우수사례선정대회에서 '동무야 모여라! 손주들 왔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선정대회는 치매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 고령화 사회에서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 방법을 구상하는데 취지가 있다. 두송노인복지센터의 '동무야 모여라! 손주들 왔다' 는 매월 어르신과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명절 음식 만들기, 재래시장 놀이 등으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어르신의 옛 추억을 되살려 인지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두송노인복지센터는 주간에는 원예치료, 음악치료,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난치병 환자 위한 희망콘서트

보리선수약사선원, 11월 8일 벡스코 오디토리움관서

보리선수 약사선원(주지 법생)은 11월 8일 오후 4시 벡스코 오디토리움관에서 백혈병 어린이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

오후 2시 제8차 약사여래불 가피대법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각성 스님의 치유명상음악과 국민가수 조광조, 전자바이올린 연주가 마리, 가수 박경훈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행사 모연금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게 전달 백혈병 어린이와 난치병 환자들에게 전액 기부된다.

법생 스님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가장 소중한 결실은 사람이다"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회를 통해 자비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051)744-7735 하성미 기자



극락정토 염원하는 백제불교의 숨결

기도사찰을 찾아서

③ 부여 무량사(아미타기도도량)


무량사 극락전은 통층구조의 2층 형식으로 장엄한 극락세계를 표현한 전각이다. 다소 빛바랜 단청과 함께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통해 정토세계를 잘 드러낸다.


김시습이 기거했다는 자리에 세워진 삼성각


동양 최대 규모의 무량사 소조 삼존불

무량(無量). 한없이 그지없고, 측정할 수 없는 만큼을 뜻하는 이 말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무엇으로도 셀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래서 무량이란 이름이 붙은 사찰은 보통 극락정토를 염원하는 이들이 이상향으로 구성한 곳이다.

부여 만수산(萬壽山) 기슭에 자리한 무량사는 바로 서방 극락정토를 가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곳이다. 무량사가 위치한 산의 명칭인 만수(萬壽) 또한 무병장수와 함께 극락을 의미한다. 서방정토를 의미하기에 사찰에 흐르는 분위기는 장엄하면서도 고요하다. 퇴색된 단청을 그대로 놔두어 오히려 고즈넉한 분위기를 뽐낸다.

장중함 돋보이는 전각들 위용 드러내

무량사를 찾는 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은 입구에 있는 일주문이다. 마치 정토세상의 입구인 것 처럼 두 사람이 안아도 남음이 있는 큰 둥치의 기둥이 양쪽에 버티고 섰다.

이 일주문에 붙은 '만수산 무량사' 편액에는 작은 재미가 숨어있다. 흰 글씨로 쓴 글머리에 아주 작게 한반도 문양을 새겨 놓았다. 이 문양은 사천왕문 편액에도 찍혀 있다. 무량사 편액은 부산 태종대 태종사, 통영 미륵산 관음암, 양산 영축산 통도사 등 전국 유명사찰의 편액을 남긴 차우 김찬균이 쓴 것으로 편액 한쪽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이다.

왼쪽 교량을 건너고 꼬부랑한 길을 따라가면 드디어 무량사 경내다. 사천왕문 계단에 올라서면 아름드리 느티나무 가지 아래로 극락전에 앞서 석등과 5층석탑이 버티고 선다. 바로 보물 제233호 석등과 보물 제185호 오층석탑이다. 장중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모습이 느티나무 한 귀퉁이에 든 단풍물과 함께 분위기를 자아낸다.

석등과 석탑은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백제와 통일신라의 양식이 적절하게 조화된 고려전기석탑이라고 한다.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과 비슷하게 생겼고 1971년 해체 수리했다. 오층탑 보수 때 5층 몸돌에서 수정병, 다라니경, 향가루 등이 1층 몸돌에서는 고려시대 금동아마타삼존불이 출토됐다. 석탑의 부분재료들이 따로 만들어진 점이나 지붕돌이 얇고 넓은 점, 2층부터 그 높이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은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쏙 닮아 있다.

극락전은 규모면에서 다른 전각을 압도한다. 극락전은 밖에서 보기에는 2층이지만 안은 통층으로 천장이 높다. 이런 통층 형식은 국내에서는 흔치않은 형식으로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마곡사 대웅보전이 이러한 양식이다. 이렇게 2층을 올린 것은 기능보다 위엄과 장엄에 그 뜻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안에 거대한 소조 삼존불(보물 제1565호)을 모셔놓고 있다. 가운데 아미타불, 좌우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셔놓았다. 흙으로 빚은 소조불로는 동양 최대의 규모다.

아미타 기도를 올리는 스님들의 염불소리가 경내에 울려퍼지자 사찰을 찾은 기도객들이 삼삼오오 극락전으로 모였다. 자식의 성공, 가족의 건강 등을 기원하는 모습이 옛 선조들이 무량사를 지은 모습과 닿아있었다.

신라 범일국사 창건… 5층석탑은 백제양식

무량사는 통일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5층 석탑이 백제양식이며 여기서 출토된 발원문 등이 백제시대 것 임을 감안해 백제시대 창건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동양 최대 소조삼존불 등 성보 다수
김시습, 설잠 스님으로 말년 기거
예로부터 정토길 여는 '광명지혜' 전해

사찰은 고려 초에 중창돼 대웅전, 극락전, 천불전, 웅진전, 명부전 등 불전과 30여 동의 요사와 12암자가 만들어졌다. 당시 60만평에 이르는 대가람이었다고 한다. 무량사가 있는 현재 위치의 동쪽에는 사찰지가 발견돼 그 웅장함을 전한다. 하지만 무량사는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고 조선 인조 11년인 1633년 진묵선사에 의해 중수됐다.

극락전을 중심으로 5층 석탑과 석등, 미륵 괘불 등의 국가지정보물과 사천왕문, 명부전, 영산전, 천불전, 산신각, 극락전 후불탱, 동종과 당간 지주 등이 현재 보존돼 있다. 무량사의 맞은편 산은 아미산이며, 또 주변에는 도솔천을 의미하는 도솔암 등 극락정토와 연관된 암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일대가 말 그대로 극락정토다.

생육신 김시습의 고고한 정신 살아있어

무량사는 또 조선 세조 당시 생육신의 한명인 매월당 김시습의 부도와 영정이 있다. 김시습(1435~1493)은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5세 때 세종에게 불려가 그 앞에서 시를 지어 백관들을 놀라게 했다고한다. 세종은 이런 김시습에게 훗날 장성하면 나라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약조까지 했다. 하지만 21세 때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북한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김시습은 책을 불태우며 통곡한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는 죽음을 당한 사육신의 시신을 하나하나 수습해 노량진에 묻은 이가 김시습이었다고 전한다. 김시습은 이후 9년 동안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유관서록' '유관동록' '유호남록' 등을 썼다.

머리를 깎은 그는 만행길에 올라 설잠(雪岑)이란 승명으로 명을 이어갔다. 전국을 유람하여 경주 금오산 용장사에서 첫 한문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었다. 세조 이후 세상이 바뀌자 김시습은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한 듯하다. 1481년 환속한 그는 두번째 결혼을 했으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리고 폐비 윤씨 사건과 함께 그의 방랑이 다시 시작된다.

그는 말년에 무량사에 기거했다. 경내 구석의 산신각 자리가 김시습이 머물던 토굴이었다고 전해진다.

무량사 영정각에는 김시습의 초상이 걸려 있다. 보물 제1479호로 김시습이 그린 자화상으로 알려져 잇다. 미간에 주름이 졌고 시선 둔 곳은 알 수 없다. 김시습은 유불선을 넘나든 사상가였고, 자유로운 문장가였다. 세조의 패륜을 조소하고 당시 거침없는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 무량사는 말년의 김시습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담긴 안식을 전했을 것이다. 김시습은 죽으며 다비를 하지말고 절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3년 뒤 파보니 마치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여서 사람들이 모두 부처가 됐다고 여겼다고 한다. 이후 다비를 거행하고 사리를 봉안하는 부도를 세웠다.

무량사는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낮추며 드러내지 않은 김시습처럼 많은 성보를 갖고 있음에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산사였다. 무량사를 돌아보고 사천왕문을 빠져 나오니 일주문에는 '광명문' 이란 편액이 눈에 들어온다. 꾸미지 않는 지혜를 한가득 안고 사찰 문을 나섰다.

부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량사에 보관된 보물 제1479호 김시습 초상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을 지나 회덕 분기점에서 공주 방향으로 간다. 서공주 분기점에서 서천공주 고속도를 따라가다 서부여IC에 내려 보령 대천해수욕장 방향으로 간다. 외산면 소재지에서 무량사 이정표를 따르면 된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대천IC나 보령IC에서 외산면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주변 볼거리

부여 방면

▲정림사지

대한민국 사적 제301호로 지정돼있으며 국보 제19호 5층석탑과 보물 제108호인 석불좌상 등 유물이 남아있다. 5층석탑과 박물관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백제문화 이미지가 그대로 녹아 있다.

▲부소산 낙화암

부소산과 낙화암은 백재왕실의 후어 · 이자 사비백제의 최후의 보루로 3000궁녀가 꽃처럼 떨어졌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는 곳이다.

▲궁남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다. 무왕이 선화공주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 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가 되는 곳에서 물을 끌어들여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궁남지는 일본 정원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보령 방면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하루에 한번 갈라지는 바닷길로 유명하다. 매월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을 전후하여 2~3회 해변에서부터 석대도까지1.5km의 바닷길이 열린다. 해송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운치를 더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실 현봉근일
회주 송암혜각호
동당 조전운
주지 원남등
부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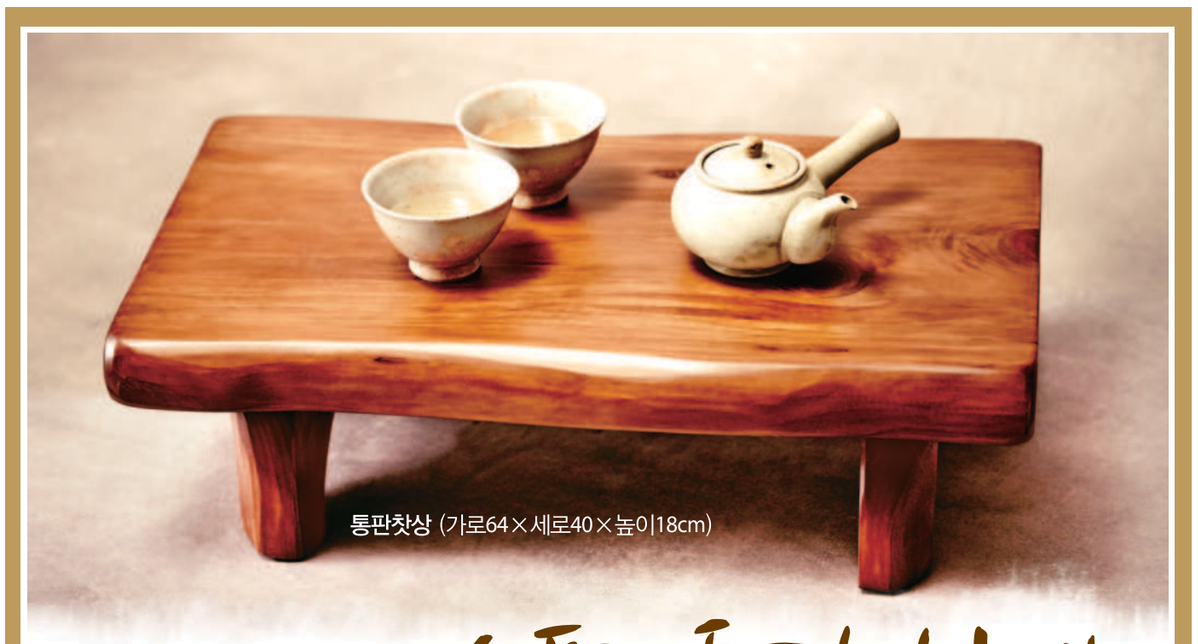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재무국장 승봉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지담
사부대중일동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구
연화마을관장 운걸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 이호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청국장,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둘째 · 넷째주 토 ~ 일(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통판찻상 (가로64×세로40×높이18cm)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풀림 통판찻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찻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입금계좌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볏짚산 위에는 '千佛' 께서 상주하셨네

〈麥積山〉



신성민 기자의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기

② 천수 맥적산 석굴

중국 실크로드의 옛 루트는 두 가지가 있다. 실크로드의 시작인 서안(옛 장안)에서 위수-진주-농서-난주를 지나 병령사를 통과해 하서주랑(河西朱廊)에 이르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길은 서안을 출발해 빈현-경천-평량-정원-홍산협으로 가는 것이다.

위수에서 난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진주(秦州)다. 진주는 현재 천수(天水)의 옛 지명으로 한 무제(재위 BC 141~BC 87) 당시 장건에 의해서 서역과 교역할 수 있는 비단길이 개척되기 시작했다. 이곳에 불법을 얻기 위한 구법승들이 모여든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함께 동행한 가이드는 천수를 구법승들에게 '베이스캠프' 로 소개했다. 스님들을 모셔다 법회를 열고 서역에서 유입된 불경(佛經)들을 한역(漢譯)했던 곳이 천수였다는 것이다. 구법의 길의 관문이기도 했던 천수에 그 불심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수를 대표하는 불교 유적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맥적산(麥積山) 석굴이다. 이동하는 차량에서 맥적산의 유래를 짚단을 포개어 쌓은 모습이라서 붙여졌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실감은 나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10여 분을 오르니 정말 설명대로 짚단을 쌓아 놓은 듯한 기암절벽의 산이 보였다. 기암절벽 사이 대불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멀리에서도 확인할 정도니 그 크기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맥적산 석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운강 · 용문 · 돈황석굴과 함께 중국의 4대 석굴로 불린다. 석굴의 굴착과 불상 조성은 4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위 · 서위 · 북주 · 수 · 당 · 송 · 원대 등 10여개 왕조를 거치며 불사가 이뤄졌다. 그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석굴과 소조불상들이 맥적산에는 존재한다. 소조불의 크기부터 형태, 기법까지 다채롭고 자연의 풍광이 한데 어우러져 중국 사람들은 맥적산을 '동방예술조소관(東方藝術雕塑館)' 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맥적산 석굴은 산의 서남, 남, 동쪽 세 곳의 낭떠러지에 개착돼 있다. 시기는 서쪽 절벽이 오래됐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비교적 연대가 내려온다. 가파른 낭떠러지에 194개의 석굴과 감실들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으며, 여기에 소상(塑像) 3513구, 석상(石像) 3662구 등 7200여 불상이 봉안돼 있다.

이들 불상들은 대부분 '석태니소상(石胎泥塑像)' 이다. 석태는 돌을 깎아 윤곽을 만들고 니소란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채색을 했다는 것으로 다채로운 표정의 불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던 것도 '석태니소' 기법 때문이다.

맥적산 석굴에는 본생도와 서방정토변상도와 같은 벽화도 1600여개가 남아있다. 세월에 따른 풍파로 석벽들이 탈락해 상당부분 벽화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길이가 1000㎡에 이르러 돈황 막고굴 다음으로 많은 양을 자랑한다.

이 같은 다양한 불상과 불화로 맥적산은 많은 이들이 상찬을 아끼지 않았던 곳이었다. 실제 〈태평광기(太平廣記)〉에는 맥적산에 대해 "푸른 구름 어린 가파른 절벽 사이에 돌을 깎아 불상을 만들었다. 만개나 되는 감과 천개나 되는 방이 있는데 비록 사람의 힘으로 이뤘다 하나 신의 솜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극찬했다.

천수는 구법 여정의 베이스캠프
구법승 모셔 법회와 역경하기도

짚단을 쌓아놓은 듯한 맥적산에
190여 석굴 조성해 부처님 예경
북위~당대 불상 변천사 '한눈에'

깎아진 절벽에 조성된 대불 · 석굴
바라보면 선현들 佛心에 감탄이

맥적산 앞에서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멀리서도 보였던 거대한 삼존불이다. 대불과 190여 석굴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는 좁고 아찔한 계단을 올라야 한다. 개인적으로 경증의 고소 공포가 존재해 안전 장치가 거의 없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일은 고역 중에 고역이었다.

위태롭게 계단을 오르자 동쪽 절벽에 조성된 13호굴 대형 삼존불 입상의 발 아래에 이르렀다.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조각된 삼존불 입상은 그 크기가 15m에 달한다.

이 대불은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문제가 조성한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대업을 기념해 엄청난 불사를 일으켰는데 당시 스님이 23만명, 절 3792개소, 불상 10만6580구를 조성했다. 또한 문제는 맥적산의 정상에 사리탑을 세우고 정염사(淨念寺)란 사호를 내리기도 했다.



맥적산 석굴의 서편 마애불. 멀리서도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북위 시기 조성된 것으로 인체가 호리호리하고 청아한 모습이 특징이다.



5호굴에 조성된 불상과 전실 천정 일부.



5호굴의 불보살상. 채색기법이 매우 특이하고 화려하다.

삼존대불이 보여주는 위용은 웅장하기만하다. 하지만 웅장함과 더불어 자비로운 상호와 섬세한 가사의 표현, 산 앞으로 펼쳐진 풍광까지 어우러진다. 오로지 지극한 신심으로 만들어졌을 이 절경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다.

대불 옆으로 난 계단을 올라 다른 석굴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석굴 상당부분은 훼손을 우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3, 5호굴 등 대표적 석굴들을 친견할 수 있었던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다.

3호굴은 긴 복도의 석굴 형태로 이뤄져 있다. 절벽에 총 297개의 불상이 조성돼 있는데 호상과 수인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채색불의 기법인 특이해 눈길을 끌었다. 9호굴은 산에 의거해 7개의 굴이 병렬돼 있으며, 목조 건축을 모방한 건축물이 앞에 나와 있다.

동쪽에서 올랐던 석굴은 서쪽으로 갈수록 연대가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온다.

동쪽 석굴의 불상들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만하고 뚜렷한 호상의 당나라 시기가 주류라면 서쪽 석굴의 불상들은 북위 등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됐다. 북위 시기의 불상들은 인체 비율이 호리호리하고 말쑥하고 청아한 호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수불청상' 이라고 한다.

순례에 동행한 유근자 동국대 겸임 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위 시기 불상은 인체 비율이 매우 호리호리하고 청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서 "맥적산은 북위부터 당나라까지 조성된 불상들의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맥적산 대불들의 모습을 통해 서산마애불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한국 마애불에서 사라져 복원되지 않고 있는 예불 공간인 '전실'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유 교수는 "서산마애삼존불과 경주 남산 마애불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불을 위한 공간인 전실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이 같은 전실을 복원하고 있지 않다. 전실이 복원돼야 전국에 산재된 마애불들은 단순한 문화재를 넘어 예경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석굴은 '천불신앙'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맥적산에는 '천불동(千佛洞)' 이라고 불리우는 복도 형식의 3호굴이 있었고, 5호굴의 벽화에는 수많은 불보살이 빼곡이 그려져 있었다.

그 옛날 기암절벽에 수많은 천여 불상을 조성한 것은 순수한 신앙의 발로였을까, 왕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수많은 정적을 죽이고 황제라는 지위를 얻었던 미혹한 자의 참회였을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천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옛 선현들이 조성한 불상 앞에 머리를 낮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는 것이다. 천년 전에도 21세기에도 부처님은 시방세계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

motp79@hyunbul.com

이 기사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협찬으로 격주 연재됩니다.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이 살아있는 도량 '영산불교 현지사'-오탁악세에 준엄한 계율정신의 횃불을 들다!

출가자는 음계(婬戒)를 생명처럼 지키고 재가불자들은 오계십선 인륜도덕을 실천해야



▲대적광전에서 경전을 읽는 스님들

현대사회에서 계율의 중요성

불법은 출가 재가를 떠나서 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출가자는 비구(니)계를 수지함으로써 비구(니)가 되고 재가자 또한 삼귀의의 서원과 5계를 수지해야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자가 되는 길은 계문(戒門)을 통해서입니다. 계의 1차적인 목적은 방비지악 (防非止惡-그릇된 행위를 막아 악을 그치게 함)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계율은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은 누구나가 다 지켜야 할 우주의 이법(理法)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 – 좋은 과보를 불러오는 모든 행위)의 으뜸이고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악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해탈하게 한다.' (청정도론)고 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 사회

물질적 풍요가 넘실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와 진리 대신에 감각적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파괴, 이혼율과 범죄율의 급증,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없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를 오탁악세(五濁惡世)라고 했습니다.

이 오탁악세에서 행복을 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잘 실천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불행을 예방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첩경입니다.

계율이란 –계율은 방편인 동시에 목표

계율이란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불선(不善)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결심의 측면에서는 계(sila)라 하고, 불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의 측면에서는 율(vinaya)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불자에게 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파티목카(patimokkha –바라제목차pratimoksha)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는 '첫문(初門)' , '얼굴' 의 뜻이 있습니다. 팔리율 포살건도에서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의 상수(上首–우두머리)' 라고 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이 '모든 경전 중에서 으뜸이다' 라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계율은 모든 불자들에게 불선법을 막고 선법을 증장시키는, 행복한 삶과 해탈열반으로 인도하는 가장 유력한 방편이자 동시에 불법의 목표 자체이기도 합니다.

출가자의 계율에 대해 – '청정' 의 계율정신 회복해야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대반열반경) 이는 부처님의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서도 불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해서도 출가수행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출가자들은 무엇보다도 음계(婬戒)를 생명처럼 수지해야 합니다. 비구계의 첫 바라이계가 바로 음계이고 승잔이나 바일제 항목의 가장 많은 계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행과 관련된 계입니다. 한국의 출가수행자에게는 음주식육(飮酒食肉)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물에 있어서 자가용이나 토굴 등 분에 넘치는 소유물을 추구해서도 안됩니다.

계목(戒目)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언행은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는 것 입니다.

재가자 –오계·십선계를 지키고 불효오역과 훼욕삼보의 죄를 짓지 말아야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계율의 토대가 되는 계가 바로 5계입니다. 불자들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오계를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금생과 내생의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생활지침이며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정화되고 향상될 수 있는 윤리규범입니다.

오계의 목적은 악행을 그치게 하는 것이지만 불자라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선계(신구의 3업으로 선행을 하게하는 계)입니다.

이 5계10선을 잘 행하는 불자는 당연히 인륜도덕을 잘 지키게 됩니다. 부모님께 신구의로 10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효도이고 나라에 대해 10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충성입니다. 인륜도덕은 유교적 덕목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계율정신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또한 불자들은 이타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특히 불효오역죄를 짓지 말고 절대 삼보(三寶)를 훼욕(–파괴하고 비방하는 행위)하는 죄업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현지사 –부처님 계율을 실천하는 선봉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지계(持戒)의 공덕으로 개인적으로는 3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오탁악세에서 5계10선·인륜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사회를 정화하는 큰 보살행이 된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지사는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말법시대에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정신을 선양하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영산불교대학에서의 계율수업



현지사 정기법회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10월 19일 (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2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4〉 능가산 개암사 대웅전

一期一會의 찰라적 인연이 맺은 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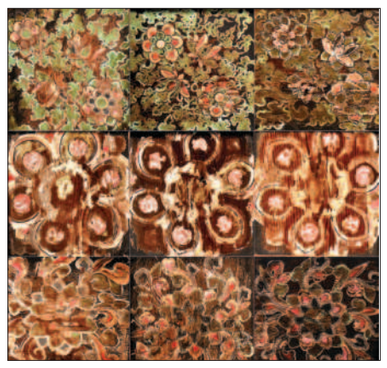
〈일기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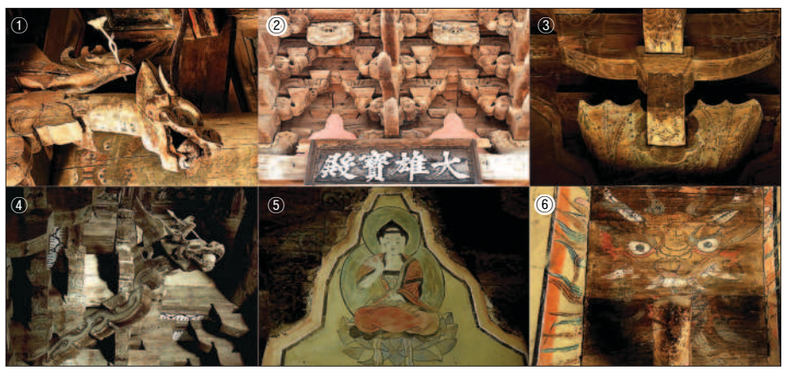
대웅보전 어칸 천정과 닫집, 삼존불상. 어칸 기둥사이에서 세 용이 긴 몸통을 빼고는 신령의 기운을 내뿜고 있다.



좌에서부터 차례로 대웅보전 내부포벽의 뒤, 정면, 측면에 두루 경영한 조형세계다.



대웅보전 우물천정에 베푼 세 가지 문양.



①어칸의 용과 봉황 ②대웅보전 편액과 용의 정면얼굴 ③정면공포의 연잎 하엽문 주두
④향우측 귀공포의 용과 봉황 ⑤포벽에 베푼 여래불 벽화 ⑥향좌측 포벽의 용면벽화

개암사 절집은 앉은 자리가 매력적이다. 우금산 정상부에 있는 울금바위가 가람의 예사롭지 않은 신령의 기운을 북돋운다. 두 바위가 불국토를 수호하는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의 금강역사의 기세다. 울금바위는 개암사의 마음자리이자, 원력의 당처다. 산수화의 부벽준 준법의 기세를 대하는, 암산의 바위기운이 느껴진다. 능가산 반대편 자락의 내소사가 여성적이고 음악적이라면, 개암사는 남성적이고 웅변적이다. 대웅보전은 그 기세를 고스란히 품어 당당하고 카리스마를 지녔다. 건축에서 단단한 뼈대의 힘이 흐른다. 사람도, 건축도 자연을 닮는 법이다.

연꽃잎맥이 그려진 '하엽문' 주두

개암사 대웅보전은 17세기 중엽에 중건된 3×3칸 건물이다. 근래에 외벽에 단청을 새로 올리면서 고색의 옛 멋과 가구식 건축 뼈대에 흐르던 힘을 잃었다. 다행히 내부는 고색 그대로다. 내3출목의 포작은 교두형으로, 짧고 강한 입체적 획들의 중첩이다. 재단된 재목들이 짧고 단단해서 강한 결속력을 보이며 화석처럼 한 몸으로 일체화를 이루고 있다.

수평, 수직이 중첩하는 단순한 뼈대끼리의 가구식 결구에서 강건한 힘이 흐른다. 살미와 첨자의 표면에는 미묘한 기운이 스멀거리듯 초새김 한 청동빛 운기문넝쿨이 꿈틀거린다. 기둥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나무다. 정면 평방 위 주두(柱頭)의 모양도 예사롭지 않다. 연잎의 끝이 뒤집히고 잎맥이 그려진 소위 '하엽문(荷葉文)' 모양을 갖추었다. 연잎도 연꽃의 상징과 다르지 않다. 그 발상에서 마음의 여유로움과 관용이 묻어난다.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나 익산 숭림사 보광전 등에서 드물게 보이는 주두 모양이다.

용면 벽화, 전등사 법주사서 나타나

외벽의 정면포벽에서도 독특한 의장을 갖췄다. 주두와 첨자가 연잎, 연꽃줄기로 초각(草刻)된 형태다. 첨자가 좌우대칭의 연꽃으로 피어올라 역동적인 S자 곡선으로 꿈틀대면서 건축에 생동감의 운율을 불어넣고 있다. 대웅보전 편액 위 제공의 양끝에는 벽사의 장치로 용의 정면 얼굴을 조각해 두었다. 용의 정면 얼굴을 갖춘 의장장치는 강화도 전등사 대웅보전과 예천 용문사 대장전, 법주사 팔상전 등에서도 간혹 찾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불단의 기단부에서 종종 표현되는 벽사장치다. 벽사적 용 얼굴의 연원과 모티브는 고구려고분벽화 안악 3호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악 3호분 전실 입구 주두에 여러 용면벽화가 나타난다.

그런데 대웅전 내부에서도 같은 취지의 표현이 보인다. 향좌측 후불벽 뒤편 상벽에 베푼 용의 정면얼굴 벽화가 그것이다. 용면(龍面)벽화에 사용된 색채는 청(靑), 적(赤), 황(黃), 흑(黑), 백(白)의 다섯 가지 오방색(五方色)이다. 벽화는 정면얼굴만 묘사한 단순한 꼴이지만, 사자의 갈기 형식을 빌려 뻗치는 힘과 신령의 기운을 드러냈다. 폭발하듯 넘치는 기운은 화폭의 경계마저 허물고 있다. 직시하는 눈빛은 깊고도 깊어서 사람 저마다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행한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의 내력을 궤뚫어 보는 듯 하다.

내3출목의 살미부재 끝자락은 정면 어칸과 귀공포에서 절묘한 구상으로 마감했다. 측면이나 양협칸의 내부공포 살미끝은 넝쿨줄기에서 새싹의 기운이 뾰족하게 나오는 형태로 마감처리 하였지만, 정면 어칸의 공포와 귀포에서는 몸통을 길게 뺀 용과 봉황으로 조영해서 보궁의 풍부한 입체감과 신령함을 증폭하고 있다.

특히 어칸에는 세 포작의 주간포(柱間包)가 있어 각 주간포의 살미 끝마다 세 용이 앞을 다투듯 조영되어 유례없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연출한다. 삼라만상 가운데 홀연히 나타나, 아래에서 보면 마치 세 용선이 편대를 이루며 무명과 미혹의 세계를 가로지르는 형세다. 용 몸통과 살미부재는 주먹장 이음으로 이어서, 극대화 된 신령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기일회(一期一會)의 찰라적 인연이 맺은 극적인 조우이다. 세 용의 기세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고 신령의 체감이 현실적일 정도로 삼엄하다. 삼엄한

문양은 그림아닌 소리이며 진리
천정문양에 적정(寂靜)의 정밀함
어칸에 신령한 기운 쏟아져

체감은 보다 직관적이면서도 직접적이어서 저절로 옷 매무새를 돌아보고 숙연케 한다. 신령의 훈습(薰習)이 옷에 저민다.

불전건물, 연기법계 구현된 인드라망

용은 곧 신령의 기운이며, 생명 에너지다. 불전건물의 기둥과 포작은 생명력의 표징이다. 그것은 자연의 숲에서 길러 온 조형방편이다.

독일의 미학자 힐데브란트는 고딕건축의 아치형 열주(列柱)들은 숲 속 나무의 형상을 실내에 모사해 놓은 것이라 하였고, 일본의 사카이 다케시 교수도 〈고딕, 불멸의 아름다움〉에서 중세 고딕성당의 무수한 기둥들과 아치는 졸참나무, 떡갈나무로 무성한 중세 숲 속의 나무들과 생명력의 반영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불전건물 공포구조에서도 자연의 숲과 나무의 모티브를 포착한다. 불전의 본질은 연기법계가 구현된 생명의 인드라망 세계이며, 대자대비의 세계다. 생명력의 본질은 기(氣)와 물, 법(法)의 진리일 것인데, 법당에는 그 본질적 요소들이 고도로 심화된 상징체계와 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용과 봉황, 연화, 범자문양이 대표적이다. 본질의 뜻은 형상 너머에 감춰진 무진장이다. 언제나 그러하듯 문자나 형상에 집착하면 손가락만 보고 정작 달은 놓치게 마련이다.

넝쿨영기문 용의 구상적 신령으로 폭발

용의 몸통 위에는 봉황이 나래를 폈다. 날개는 따로 조각해서 몸통의 측면에 끼워 넣었다. 양 날개를 온전히 간직한 봉황이 없어 안타까움이 남는다.

봉황은 전등사 대웅보전 빗반자 천정조형에서처럼 연꽃가지나 연잎을 입에 물었다. 용은 여의보주를 취했고, 봉황은 연꽃가지를 취했다. 신령과 변재(辯才)를 두루 구족한 셈이다. 용과 봉황의 조형 중에서도 향우측 뒷벽 귀공포에 베푼 조형은 압권이다. 짙은 진흙빛으로 넝쿨문양의 살미로 층층이 툇아오르던 평면 넝쿨영기문이 용봉의 구상적 신령으로 폭발하는 놀라운 장면이다. 넝쿨에서 용으로 차원을 가일층 심화하고 있다. 문양과 무늬는 그림이 아니라 성스러운 소리이며 진리이고, 생명의 에너지임을 여실히 반증한다.

내3출목 위는 상벽(上壁)이다. 상벽은 회칠이 모두 벗겨지고 퇴색한 흙빛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공포 사이의 포벽에는 여래불 벽화를 모셨고, 상벽의 보다 넓은 칸에는 십이지신상과 나한상의 벽화를 베풀었다. 나한상 벽화는 해남 미황사 응진당과 익산 숭림사 보광전에서처럼 먹선의 백묘로 그려서 주목된다. 상벽의 백묘벽화에서 연담(蓮潭) 김명국의 거침없이 내달리는 일필휘지의 필선이 나란히 견줘진다.

천정양식은 3단 층급의 평행우물천정이다. 외진주 영역의 천정은 층급 계단차가 미미한 2단층급에 넝쿨꽃 형식의 영기문 문양을 갖추었다. 내진주 영역의 천정은 한 층급 더 위로 우물반자를 올린 후 6엽연화문 문양을 베푼 우물천정이다. 제일 아래 층급과 중간층의 천정은 사방벽면을 따라 각각 한 겹의 우물 띠로 가설했다. 아래 층은 45칸, 중간 층은 35칸, 내진주 천정의 우물반자는 총 85칸이다. 우물반자에 베푼 문양은 세 가지다. 변두리 부분에는 단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능화형' 과 '연화형' 꽃을 그려 넣은 반면에 중앙부분 중심부에는 육엽연화문에 범자 육자대명왕진언을 넣었다.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돋보여

연화형 문양은 형태와 색상처리에서 심미적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검거나 혹은 옅은 초록의 꽃잎 사이로 붉은 기운을 띤 새싹들이 폭발하듯 미어터지고 있다. 검은 바탕의 천공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장면을 극도로 단순화하면 저 무늬가 될 듯 하다. 영산회의 법열이 환희심으로 발산하고, 고요하고 정밀한 아름다움이 빛난다. 능화형 문양은 형태에 있어서는 4개의 연화가 대각선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하였고, 색상에서는 주사와 밝은 석록계 색상으로 보색대비를 주고 있다.

그런데 보색대비에서는 채도와 차고 따스함의 대비를 낮은 에너르기 상태로 낮췄다. 즉 중간 톤의 색을 취해서 보색대비의 강도를 낮춘 것이다. 그 결과 색의 결렬한 충돌이나 경박함, 요란스러움은 피하고 적정(寂靜)의 고요한 법열은 살려냈다.

작은 공간에 생명력의 법계를 담담히 담아냈다. 천정의 단순한 문양에서 적정의 정밀함이 고요히 흐른다. 독일의 미학자 빙켈만이 말한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이라는 예술의 이상을 천정장엄의 우물반자 한 칸에서 발견한다.

불전 천정(天井)에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은 깊다. 감로의 우물이고, 생명의 우물이고, 부처님의 우물이라, 미점의 꽃봉오리에 일승의 법계가 펼쳐지는 이치가 담겨 있을 것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봉행

세계최초 해상법당 반야용선 점안식 및 방생용왕대재

• 일시 :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반야용선사 해상법당 반야용선

세계 최초의 지혜의 배, 반야용선을 조성해서 만 중생들의 소원성취를 이루어주고, 참된 지혜와 깨달음으로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피안(彼岸)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기 위함입니다.

반야용선(般若龍船)이란,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타는 배를 말합니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진리의 지혜)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法)을 통달하여 일체(형상)의 것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아미타불의 협시불인 관세음보살이 영가를 맞이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가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이르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반야용선(般若龍船)을 타야만 아미타불이 기다리는 극락(極樂)세계로 간다고 합니다. 서방극락정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야용선을 꼭 타야만 하기 때문에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타기를 원합니다.

운문사 비로전 천정을 보면 반야용선과 반야용선을 타려고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악착보살(불교경전에 나오는 보살의 이름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생에 기필코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악착같이 용맹 정진한다고 하여 악착보살이라고 하지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어느 옛날 청정하고 신앙심 깊은 이들을 서방의 극락정토로 인도해 가는 반야용선이 도착했을 때 이 용선을 타야 할 어떤 보살이 자식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로 그만 너무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보살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용선이 떠나가고 있었기에 보살은 용선의 밧줄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서방 극락정토로 갔다고 합니다.





큰 지혜로써
피안(깨달음의 세계)의 세계로
반야용선이 이끄는 지혜의 배
피안으로 가는 자비의 손길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서방극락정토에
가세 가세
극락왕생 하세
부처님과 보살님과 함께 가세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가세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로 183번길 4 반야용선사
전화 055)862-9841 / 팩스 070-8677-9841
주지스님 010-6483-2565 / 이메일 banyaship@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용선사 주지 동운 합장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반연 일으키는 그놈이 '진심' 이구나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④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써. 다시 말하면 반연(攀緣). 아, 여러 가지 인연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반연 일으키는 그 진심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반연이라는 거는 지가 올바로 생각했던지 그르게 생각했던지, 거기서 한 가닥 여김을 일으켜서 말이지 반연을 일으켜 놨는데 이것 헛것이거든요. 지가 일으켰으니 헛거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짓는 거나 한가지란 말이죠. 아, 요거 헛거로구나 하고 딱 알아버리면은 말이죠 반연에서 일어나는 망심은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진심이 그대로 나타나. 그대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거 어디서 딴 데서 숨어가 있다가 다시 오는 그것도 아니거든. 아, 반연을 일으키던 그놈이 바로 진심이구나. 그러면 내가 반연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구나.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망심을 내가 쓰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거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눈의 소재를 찾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지 눈이라는 마음을 대표한 겁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이 맑아. 그러니까 눈부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거 다 나옵니다. 하하하. 초학자는 차차 차차 이래 해가야 좋습니다. 그 소재(所在,) 소재가 어디 있나요? 솔직한 말로. 소재라 해 봤든 당장의 마음 그 가운데 있거든. 진심을 찾을라는 거기에 있거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바로 그 자리거든.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와 이리 모르노. 나는 와 모르노 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럼 나는 와 모르노, 이거 반연에 따라 일어나는 망상이거든. 내가 와 몰랐노 하는 이 생각도 싹 치워 버리면, 그대로 뚜렷한, 이런 생각도 일으킬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일으킬 수 있고 오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그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의젓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것이 너무 쉬워놓으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운 선생, 어떻소? 좀 어렵게 들립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는 말이 너무 쉬워서 그렇나요? 말이 너무 쉬워서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 말이 쉬우나 어려우나 간에 이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이지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생각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는 것이지. 만약 선과 악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인자 어떤 철학가들은 선은 선이 있고 나면서부터 악한데 어떻고 어떻고….

왜 그러느냐. 당장의 내가 있거든. 부처님 환하게 아는데. 그러하니 이전 어른들이 대도를 통한 분들이 전부 말한 것이,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육년 동안 말이지 고생한 거 헛고생 했다. 아 마음 하나 탁 돌리면 그만인데 헛고생 했다. 이전의 다른 조사들도 헛고생 했다. 이러고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랬는데 이거 희한한 일이 있는 것이 육조대사 이 양반이 헛고생을 안 했어요. 나중에 참 도를 이룬 다음에 거 고생을 했는데 그건 좀 다르죠. 한 십여 년

> **경계에 닿질러 일어나는 망심**
> **오만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는**
> **빛깔도 냄새도 소리도 없어**
> **의젓하게 그대로 있는 거에요.**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아, 이 양반 어떻게 됐든지 말이지 천하의 무식쟁인데, 그 양반 그 얼굴 보면 말이죠 동상이나 목상이나 사진 찍어놓은 것 보면 얼굴 못났습니다. 얼굴도 못났지 키도 작지 상놈이지 무식하지, 그거 뭐 천하의 불행한 건 전부 독차지한 분이에요. 전매특허나 한가지에요.

이런 분이 고생을 안 하고 대도를 성취했습니다. 그 무슨 관곈가. 이 사람이 만약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 책을 좀 보고 공부를 했다면 안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안 됐을런지도 몰라요. 진심이 있고 사심이 있고 삼독심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고 저렇고 불도까지 닦아가는데는 오십삼단계가 있고 무엇은 어쩌고 무엇은 어찌하고. 그 지식이 만약 그 양반이 지식이 있어서 책을 봤더라면은 대성 못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과도한 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양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만 그저 산에 가서 일할 줄 알았고 나무 팔아서 어머니를 갖다 부양해야 되니, 또 효자라요.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니까 쌀 팔아서 어머니 갖다 드릴 줄 알아. 그리고 괴로우면 잠잘 줄 알았어. 화닥닥거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를 본다든지 해도 그것도 탐도 안했어. 좌우간 백 가지 탐이 있었다면 한가지 쯤 나도 이래 해 봤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이래 했을지 모르지만 그 얼굴 꼬라지 보니 말이지 나도 그래 했으면 이런 생각할 사람이 못 돼. 얼굴 꼬라지가. 순심 이거든 순심, 지견이 많은 사람은 공부 안 됩니다.

좌우간 어쨌든지 우리가 이 마음자리 하나만 어디 있다는 거 이거만 알면은, 요거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니 참말로 우리가 어렵느냐. 사실로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못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허공을 찾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또 허공을 걷어잡을라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자, 허공을 찾을라고 하는 사람도 걷어잡을라고 하는 사람도 허공 속에서 지금 걷어잡아 있는데 그걸 모를 따름이고, 또 허공을 버릴라 하는 것도 말이죠 허공 속에서 어디 가서 다른 데 가면 허공이 아닐까요. 지구 밖을 떠나더라도 허공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어디 있느냐 꼭 그거와 한가집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의 몸 가운데도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니까. 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 여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물거품처럼 이런 걸 나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공이 너무나 친해. 그 본래의 슬기 자리가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어디 깃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은 벌써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피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것이, 이 난초가 피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뵙니다. 안뵈요. 저 화분도 그렇지 꽃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환해. 이렇게 환해. 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환한 거와 같이 뵈는 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 쉬운 이유

14-4 십념(十念)

다른 설에 의하면 정정은 십주에서부터 그 이상, 십회향(十廻向)에까지 올라야 된다고도 한다. 십주의 자리가 퇴전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두설은 일반적으로 불교도들이 하는 소리다. 그러나 아미타불의 경우는 구품왕생(九品往生)을 일컫는다. 구품(九品)이란 하품하(下品下), 하품중(下品中), 하품상(下品上), 중품하(中品下), 중품중(中品中), 중품상(中品上), 상품하(上品下), 상품중(上品中), 상품상(上品上)의 아홉 가지다.

이를테면 상품하(上品下)가 제가끔 또 상중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극락세계의 연꽃도 하하품(下下品)에서 상상품(上上品)까지 있다는데, 최하 부분의 연꽃 봉오리 맺힌 그 자리가 하하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품하생(下品下生)의 연꽃이라도 나무아미타불하면 벌써 왕생할 자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정정취(正定聚)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교파에서 십신, 십주 또는 십행, 십회향이니 하여 정정취에 드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지만 아미타불은 정토문(淨土門)을 열어 나무아미타불만 외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아미타불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아미타불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서 생활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아주 수승한 인연에 의하여 불퇴전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원효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천당에 간다든가, 도통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데 극락세계 가는 것은 어떻게서 그리 쉬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천당에 간다 아라한이 된다 하는 따위의 일것은 제가 스스로 걸어가자니 그토록이나 어렵다 아무리 걸음이 빠르다 해도 하루 백리나 백오십리 길이면 고작이다. 비록 앉은뱅이 일지라도 비행기를 타거나 특급열차로, 큰 배로 순조로이 바람과 파도에 실려 간다면 하루에도 천리 만리를 간다. 현실 세계의 배나 비행기의 조종사들의 힘을 빌더라도 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인데 하물며 우리의 가장 뛰어나는 수승한 아미타불의 원력에 부딪칠 때, 우리는 곧 정정(正定)의 지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래서 참,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란 이가 얼마나 장한가.

신라 때 우리 선일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원효대사의 제자라고도 하는 광덕(廣德)이라느니, 광덕의 처라느니 이런 사람이 지었다는 노래지만, 어쨌든 원효대사 같은 큰 어른이 지도한 힘이 이런 데서도 엿보인다.

달이어,
이제 서방(西方)까지 가시나이까.
무량수불전(無量壽佛前)에
말씀아뢰다가
맹세 깊으신 무량수불전에
우러러 두 손 모아 사뢰기를
원왕생(願往生)이라고,
여기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뢰어 주소서,
아,
이 몸 버려두고,
사십팔원(四十八願)이 다 성취 하실까.
왕생(往生)하기를 바라던 먼 옛날 신라

> **천당에 가고 도통하는 일은**
> **매우 어려운 일이다.**
> **하지만 아미타불을 만날 때**
> **수승한 인연으로 극락세계**
> **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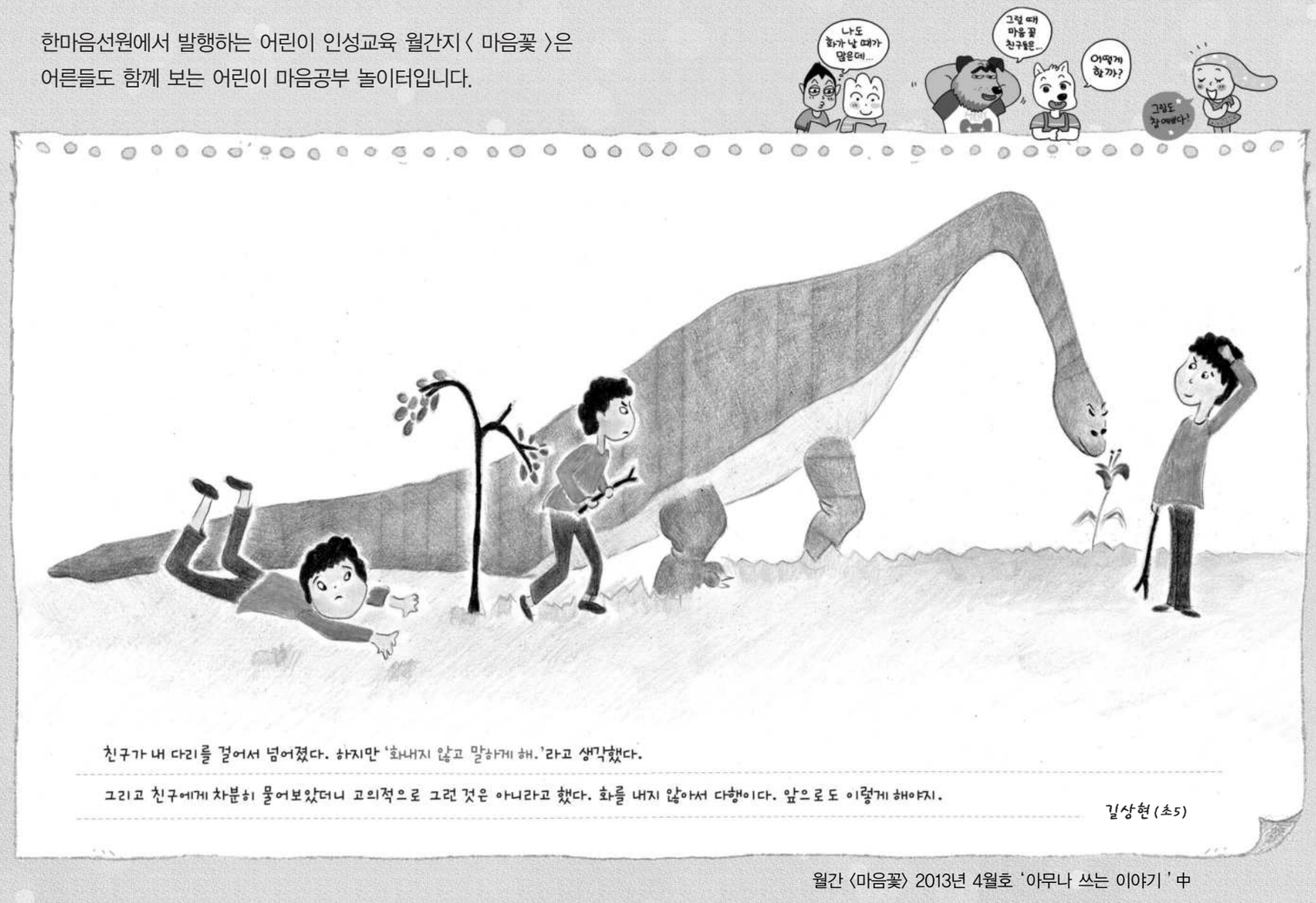
사람의 노래다. 서산마루에 걸린 하현달을 바라보고 기울어진 달더러 이르는 말이다. 아미타 무량수불 앞에 나아가거들랑 말씀 아뢰어 다오. 소복한 여인이 울바자 밑에 합장하고 서서 비는 말이다. 부처님께 맹서 하신 일인데, 설마 이를 어기시고 안 된다 하시지는 않겠지. '가고 싶어요. 님 곁에 나도 가고 싶어요' 가서 부처님께 드릴 말씀은 달아, 그리워 가슴 들먹이는 한 계집이, 님의 맹세를 믿고, 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듯 애달픔으로 여기 섰노라. 울바자의 하얀 박꽃이 이슬처럼 내리는 부처님의 은혜에 호젓이 젖어, 바르르 떨고 있다. 아 이 내 목숨을 바쳐 그리워하는…… 이 몸 버려두고, '날 더러 어떻게 살라고 혼자 버려두고'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아미타불이어, 저를 두고 님께서 혼자는 못 가십니다. 사십팔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시겠어요. 그립고 애달픔에 설레어 떨고 섰는, 이 신라 계집의 왕생 소원을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루시진 못한 것 아니신가요.

한 많은 우리 겨레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다. 신라 사람들에게는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영원한 정한(情恨)은 천년을 사이에 두고도 오히려 새로운 것이다. 전해 내려오기로는 광적이 죽자 그의 처가 가신 님 그리는 애절한 심회를 노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엄장이 얻어다 세상에 내어 놓았다고 한다. 원효대사가 이 노래를 보시고 퍽이나 기뻐하신 모양이다. 이를 엄장이 얻어 왔다고 하지만 그가 지은 것인지도 모른다. 원효대사께서 손수 이 노래를 지으시고 여기에다 기구한 사연을 달았는지도 알 수 없다. 작자는 누구였든지 간에 이 노래가 유포되면서 신라 사람들의 가슴을 친 것만은 틀림없다. 아무리 무량수불, 우리 아미타불게 드리는 말씀이기로니 이렇듯 다정하고 간곡할 수가 있을까. 순정한 연애 감정 그대로다. 어버이를 기리는 자식의 애틋한 심정보다는 조금 더 짙은, 그러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애욕에 얽힌 사랑 보다는 훨씬 승화한, 그러면서 애절하다고 할 만한 정한의 호소다. '이 몸 버려두고, 사십팔원이 다 이루어지실까' 하는 끝귀의 함원(含怨)은 바로 일품이다.

아미타불은 마흔 여덟가지 원을 세우셨는데, 그 중의 하나로 '내 이름 아미타불을 부르면 누군든지 왕생할 것이오. 반드시 극락세계로 가도록 손수 이끌어 주겠다. 만일이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내 맹세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는 것이 있어, 이를 들어 '사십팔원이 다 이루어지실까' 한 것이다. 아미타불 그리워하는 이 몸을 버려두고 그것이 될 수 있겠어요 한 것이다. 얼마나 아미타불의 대자 대비에 메어달린, 그리고 탁 맡겨버린 삼매(三昧)의 믿음에서 우러나는 정열의 노랜가. 우리는 이런 데서 신라 사람들의 행복스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온 겨레가 이러한 노래를 보르고 늘 보은 · 감사하는, 나무아미타불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생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흐뭇해 진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 中

마음꽃 펴어라, 마음꽃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茶(차)는 인류와 불교에 이로운 것"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소장



박동춘은 … 1953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한문을 배웠다. 1985년 초의선사의 차풍을 이은 응송 박영희 스님에게 '다도전게(茶道傳偈)'를 받음으로서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 받았다. '초의차'는 조선 후기 초의선사에 의해 정립된 우리 전통 차의 적통이다. '초의차'를 잇는 한편 초의선사 뿐 아니라 한국 차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성과를 모아 다수의 논문의 발표했다. 응송 박영희 스님으로부터 무공(無空)이라는 법호를 받았고,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에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전수하고 있다. 제2회 화봉학술문화상과 제 22회 행원학술 특별상을 수상했다. 현재 성균관대학 생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및 문화융성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의선사의 차 문화 연구〉(일지사), 〈맑은차 저멸을 깨우네〉〉(동아시아), 〈우리시대 동다송〉(북성재) 등이 있다.

"차(茶)를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차를 생각하고, 차를 만들며 35년을 살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시대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리라. 우리 차의 중흥조인 초의선사의 차맥을 잇고 우리 전통차 발전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동춘(61) 소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렇게 말했다.

초의의 차맥을 이은 응송을 만나다

성균관대학에서 유학을 전공한 박동춘은 한문에 관심이 많았다.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이 그에게도 미쳤던 것 같다. 박씨는 스물 네 살 되던 해에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 청명 임창순 선생을 찾는다. 그는 그 때 처음 찻잎을 우린 '차'를 맛본다.

"난생 처음 '차'라고 하는 것을 마셔봤는데, 그 맛과 향이 새로운 '세계'였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차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박씨는 '차'라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지만 아쉽게도 그 신세계를 오랫동안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박씨의 차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박씨에게 '차'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 처럼, 만나야 하는 '인연' 같은 것이었다. 오년 뒤인 1979년, 청명 선생으로부터의 공부를 마치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연수부에서 한문 공부를 이어가고 있던 박씨는 초의선사의 차맥을 이은 당시 대흥사 주지 응송 스님(1983~1990)을 만난다.

응송 스님 역시 차를 아끼며 곁에 두고 살았던 이로, 우리차 계승에 많은 노고를 더한 선조이다. 응송 스님은 초의선사의 공부에 자신이 이룬 공부를 더해 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가 완성되고 출간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응송 스님의 원고는 한글체가 아닌 한문혼용체였다. 출간을 위해선 한글체로의 윤문이 필요했다. 한문을 잘 아는 이가 있어야 했다. 응송 스님은 윤문을 부탁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인연은 '박동춘'이었다. "결국 한문공부가 차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했고, 불교의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했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 원고는 박동춘의 윤문을 거쳐 1985년 〈동다정통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4년 동안 스님을 모시면서 차의 세계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진정한 차의 세계로 들어서다

응송 스님을 모신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제다철이 되어 박씨는 대흥사 옆 백화사에서 스님과 함께 처음으로 차를 만들게 된다. 찻잎을 따고, 덖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당시는 찻잎을 따러 강진까지 가야했다. 대흥사 주변에 차밭이 없었다. 찻잎을 구해서 돌아왔을 땐 벌써 날이 저물었다. 찻잎의 숨이 사라지기 전에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다음날로 미룰 수가 없었다. 어둠을 겨우 걷어낸 희미한 백열등 밑에서 박씨는 스님과 함께 차를 만들었다. 차가 완성되었고 박씨는 스님과 함께 손수 만든 차를 맛본다.

"새벽 3시쯤 스님과 함께 우리가 손수 만든 햇차를 마시는데, 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덩어리 하나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조금 지나니 까 형언할 수 없는 향과 기운이 입과 코로 다시 뿜어져 나오는데,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차와는 또 다른, 엄청난 신세계였어요."

그렇게 박씨는 '차'라고 하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차를 맛보고 향을 느끼고 나니, 그 '과정'이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찻잎을 따는 순간부터 뜨거운 무쇠솥에서 차를 덖는 과정과 뜨거운 물로 우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음미하는 순간까지,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고 '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박씨는 차에 대한 생각이 단지 '마시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박씨는 차를 '생각'하게 됐고, 차의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초의차' 계승… 응송으로부터 부촉

응송 스님으로 인해 차의 세계를 알게 된 박씨이지만 그는 응송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우리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도, 지척에서

초의 다맥이은 응송 스님 만나
원고 윤문하며 초의차 처음 맛봐
스승으로부터 '초의 계승' 부촉
법호 '무공'과 다도전수게 받아
선종과 차는 불가분의 관계

단순한 '제조' 아닌 '제다' 의미
스승 열반 후 홀로 서며 깨달아
매년 만든 '동춘차 '무상 보시
사유화 할 수 없어 판매 안 해
11월 15일 미래 모색 위한 세미나

모시고 있는 응송 스님이 초의 스님의 차맥을 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1985년 응송 스님은 박씨에게 '무공(無空)'이라는 법호를 내리며 초의 스님과 스님의 차에 대한 연구를 부촉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다도전수게를 전한다.

"전함이 없이 전했고 받음이 없이 받았다. 전함이 없는 고로 참으로 전했고 받음이 없는 고로 참으로 받았다.(無傳而傳 無受而受 無傳故 眞傳 無受故眞受)" 승속간에 오간 전법게였다. 그때부터 그는 초의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박씨는 응송 스님이 부촉한 초의 스님의 대한 '연구'는 '복원'이라고 생각했다.

박씨는 그 복원에 자신의 이름을 걸기로 한다. '응송'이라는 살아있는 역사를 거쳐 '초의 차'를 복원하기 위한 길을 시작했던 것이다. 박씨는 초의 스님이 지은 〈동다송〉을 비롯해 각지에 산재해 있는 초의 스님의 자료를 찾아 모았다. 해남, 순천 등지에서 우리 전통 야생차를 채취하고, 한반도 차의 기원과 주변국들과의 비교 연구 등에 매진했으며, 한 해 한 해 차를 만들어가며 초의 스님의 제다법을 복원해 간다.

시련과 깨달음

1990년, 스승 응송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박씨에게 첫 시련이었다. 스승의 부재 자체가 시련이었다.

"스님이 가시고 첫 해에 차를 만드는데, 고열에 달아오른 찻잎이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여러 해 해온 일인데 그렇게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다는 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스님과 함께 차를 만들었을 땐 밤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찻잎의 미세한 변화들을 처음으로 밝은 낮에 작업을 하면서 박시는 처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찻잎이 순간순간 여러 빛깔로 변화무쌍하게 변했어요. 그때부터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 보는 경이로움에 모든 생각들이 날아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게 '공부'였어요. 눈을 감고 어두운 방에서 차를 만들던 기억으로 찻잎을 감각으로만 만지기 시작했더니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실상과 허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눈으로 보는 현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다닌 내 모습이 여지없는 '중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씨는 그 일을 계기로 '차'에 좀 더 다가가게 되었고, 부처님 공부의 진지한 맛을 경험한다. 차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제조'의 의미가 아니었다. 만드는 이의 '투영'이었다. 만드는 이의 마음이 '짓는' 것이었다. '과정' 자체가 주는 공부가 '차'였던 것이다. 박씨는 스승을 떠나보내고 홀로서면서 차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동춘차'

"성취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스님을, 당시의 초의차를 추측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해 한 해 그 당시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원의 성과를 묻자 박씨는 그렇게 대답했다. 박씨는 응송 스님이 열반에 든 뒤 해마다 전남 승주 송광사 산자락 야생차밭에서 손수 찻잎을 따고 초의 스님의 차에 다가가기 위해 차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져 온 박씨의 차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차가 된 지 오래다. 이 대목이 박씨의 성과를 이야기해준다고 생각된다. 박씨는 매년 30g 짜리 차 500통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차를 박씨는 주변의 지인들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량을 무상으로 보시하고 있다. 박씨의 차는 일명 '동춘차'로 불린다. 정식 이름은 아니다. 차를 받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우리의 전통차가 전승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력과 원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켜져 내려온 역사성과 선조의 노고를 사유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생전예수재 장엄 안내문



귀의삼보하옵시고!

가람수호에 정진하고 계시는 각 사암 대덕큰스님 법체 존안하시옵니까.

소승은 대구시내에서 불교의식 및 범음, 범패교육원을 개설하여 불교의식을 지도하고 있는 원장(동현)스님입니다. 올해 소승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들어있는 갑오년을 맞아 예수재 장엄일체를 제작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50년을 불교의식을 해온 것을 토대로 의식에 밝은 스님들의 고견을 얻어 장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예수재를 올리시는 각 사암 스님들을 위하여 올바른 재단 설치와 번 설치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수재장엄 구입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고 받으실 주소와 사찰명,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은 선결제입니다.
통장 입금 확인후 3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물품구입처 :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 계 좌 번 호 : 대구은행 508-11-906861-6 (예금주 : 주동주)
- 예수재 의식을 집전하실 스님도 알선해 드립니다.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석 동현 합장

동현스님 장엄 (생전예수재)

상표출원번호 제 40-2014-0040849호

1 대번


2 상단,중단,하단 위패


3 시왕단


4 26위판관 / 37위귀왕


5 사자단


6 고사단


7 영단


8 금란방, 정제소


9 예수시왕도량


10 일백사위 사화


•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 • 문의처 : 전화 053)781-4200 / H·P 010-2547-4200

… '초의차' 잇기 35년

박씨는 자신의 차를 무상 보시하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사유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씨의 동춘차는 한국의 전통차 문화 저변의 기준이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춘차는 '판매' 되지 않는다. 아니 판매하지 '않는' 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이룩한 성과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걸쳐 이룩해 놓은 것을 물려받은 것인 만큼 자신의 성과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유화의 일환인 상업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차의 세계는 맑음에서 출발하고 맑음에 도달하는 세계입니다. 맑지 않은 마음으로는 맑은 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맑음' 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흩어져버릴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극점에 도달해야 하고, 또 유지되지 않으면 순간 사라지는 세계인 것이죠. '상업화' 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자칫 마음을 잘못 운영하면 제가 추구해온 '맑음' 의 세계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업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춘차가 우리 차문화 저변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되고 기준과 목표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춘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이죠."

그랬다. 사유화할 수 없어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동춘차를 공유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다.


박동춘 소장이 손수 채취한 찻잎을 무쇠 솥에 덖고 있다.

차는 음료 아닌 '정신인문학'

"차의 가치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것에 있어요. 인류에게 이로운 것 중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와는 불가분의 관계죠. 차의 바탕에 선종이 있고, 선종의 곁에 차가 있었죠."

박씨가 오랜 세월 이토록 차에 매진해온 이유는 차가 인류에게 이로운 것이고 불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힘들대로 힘든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로운 것이고, 좌선의 수행법을 가진 선종의 가풍에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선종의 가풍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유산인 것이다.

이렇듯 차의 세계는 정서적 순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차의 세계를 단순한 음료의 영역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박씨는 말한다. 인류에게 정신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차' 는 정신인문학의한 분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책이 인류의 정신을 키운다면, 차는 인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결국 그는 인류를 위해 불교를 위해 차를 만들고 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춘차의 진정한 이름을 기다리며

"동춘차의 진정한 이름은 동춘차가 완성되는 날 동춘차에 꼭 맞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박씨는 아직 정식 이름이 없는 동춘차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씨는 응송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의 차를 잇고 있다. 초의 스님의 '차' 는 우리 전통차의 '중흥' 이다. 우리 차의 원형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의의 차는 초의의 차요, 응송의 차는 응송의 차다. 그리고 박동춘의 차는 동춘차다. 맑음을 추구하는 차의 세계에서 '완성' 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박씨는 말한다.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 '완성' 이라는 말은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그 노력이 박씨에게는 초의의 차맥을 계승하는 일인 것이다.



2014.9.29 전통문화전문위원 세미나에 참석한 박동춘 소장

현재 성균관대학 생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인 박씨는 오는 11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통차의 의미와 전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와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70년대 우리나라 차문화운동 초기의 원로 3인을 초청해 당시의 차문화 현상과 수준을 들어보고 현재 전승된 우리 전통차의 의미와 현대화를 위한 과제, 차관련 교육제도의 현황, 여성화된 우리 차문화의 명암 등을 짚어볼 계획이며, 청년들과 함께 현장 시음을 통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동춘 소장이 손수 만든 동춘차를 내리고 있다.

박씨는 이제 초의 스님의 차를 잇기 위해, 우리 전통차의 맥을 잇기 위해 차밭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또 책상에만 앉아 있지도 않는다. 차밭에서 찻잎만을 따지 않는다. 초의의 뜻을 응송이 잇고 응송의 뜻을 박동춘이 이었듯, 누군가 박동춘을 이어주기를 기다리며 또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구슬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일상의 지혜는 속담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인생을 고상하게 꾸며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싯구처럼 인생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한 모습이기 십상이다. 어느 스님이 유행가 법문이라고 이름지어 놓고, 법문 때마다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고 가사를 인용해서 법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듣다보니 정말 삶의 애환과 애정을 너무도 적적히 인용하는 법문이라서 점점 빠져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8년 10월 10일로 기억한다. 약천사에서 전국불교합창제를 개최하였다. 참가한 합창단원만 1,600명이 넘는 대합창제였다. 설망대할멍으로 시작하는 제주의 탄생설화부터 불교의 전례, 그리고 불교의 중흥을 주제로 엮은 합창제였다. 모든 합창단이 함께 부른 마지막 곡인 '제주의 아침' 은 두고두고 들어도 장엄하기가 이를 데 없다.

하지만 합창제를 하면서 깜짝 놀랐다. 전국에 300여개의 불교합창단이 있는데 전국적 조직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당시 삼보불교의 김귀련회장과 제주불교여성합창단장을 오래 역임한 채정희단장을 설득하여 전국적 불교합창단 조직을 결성하였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조직이 어수선 하기도 했고, 특정 종단에 소속되는 조직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도 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내라는 속담이 그래서 생각이 난다. 초대회장의 열의와 전국적 조직을 통한 불교의 발전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노고로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는 더욱 공고한 모습으로 조직이 안착되었다. 벌써 전국적 단위의 합창제를 여러 번 개최하였다. 올해도 11월 25일 전국불교합창제의 개최를 앞두고 어김없이 각 지역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림 · 박구원

많은 단체는 항상 몇 가지 공통된 방향으로 꾸며지는 것 같다. 합창단들은 무엇보다 노래를 잘하고자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합창단이 개별 사찰에서의 역할을 보면 단순히 노래만 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몇몇 사찰은 합창단이 사찰운영의 주도적인 단체로 역할 하는 곳도 있다. 이렇듯 이제 전국 불교합창단연합회는 고유의 목적인 노래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전국규모의 잘 갖추어진 전법단이라는 의식을 겸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제주에는 서귀포와 제주시에 불교합창단이 25개 정도가 있다. 놀라운 것은 이들 합창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기공연과 다양한 지역의 행사에 동참하여 하는 공연들을 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불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나던 항상 불교문화의 융성한 발전과 전법포교의 목적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전국불교합창단 연합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더없이 소중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단체이다. 합창을 통해 하나가 되고, 조직을 통해 더욱 견고히 연합한다면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음악의 전통과 발전을 주도해온 불교음악의 새 부흥기를 이룩하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우리들의 불교합창단원들이 연합을 통한 조직발전과 합창을 통한 개개인의 심성을 더욱 온화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싶다.

가을이 남모르게 깊어가고 있다. 오늘 하루쯤은 고요히 앉아 우리 합창단이 부른 노래를 듣고 싶다. 이제 나도 일타큰스님처럼 노래를 들어도 맘이 흥하지 않고 더욱 심성이 깊은 진 나이가 된 것일까?



갑자기 어느 불교합창단의 공연이라도 찾아 나서고 싶다. 노래하는 그들이 보고 싶어진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印 하이데라바드 젊은이들, 불교에 '퐁당'

불교의 종주국 인도. 그러나 동시대 인도에는 불교유적만이 덩그렁 있을 뿐, 불교도보다는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 국민의 80%를 웃도니 말이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도, 특히 젊고 유능한 불교도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 불교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주도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주목받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하니 말이다.

〈Indian Express〉 지가 지난 10월 13일 "인도 젊은이들, 특히 하이데라바드 시의 젊은이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며 "이들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있거나, 졸업 후 관련 기업에 갓 취업한 직장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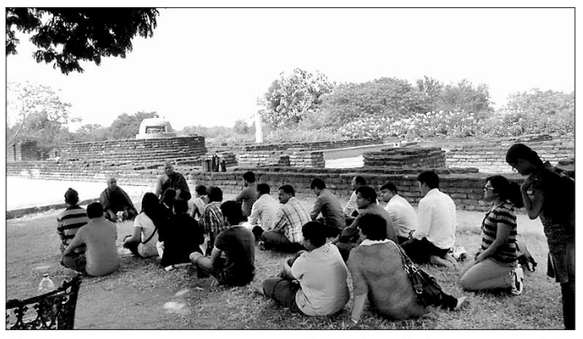
또한 〈Indian Express〉 지는 최근 다국적 정보통신 회사에 취직한 드벤다르(Devendar · 전자공학 전공) 씨의 말을 인용, "인도, 특히 하이데라바드 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교는 명상을 통해 자각을 돕는 가장 위대한 철학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Indian Express〉 지에 따르면, 이들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명상 동아리를 결성, 불교를 공부하기도 하고, '유바 불교 그룹(Yuva Buddhist Group, 이하 YBG)에 가입, 불교 공부는 물론 포교에도 나서기도 한다.

YBG는 2012년 라지시 수타리(Rajesh Suthari)를 중심으로 하이데라바드 시의 젊은이들이 한데 뭉쳐 'Follow Dharmma' 'Spread Dharmma' 'Build Sangha' 'Regular Meditation'을 모토로 설립된 불교단체이다. 현재 1,000여 회원을 거느린 YBG는 한마디로 '인도불교 부흥을 꾀하는 '청년 불자 그룹'인 셈이다.



유바 불교 그룹(Yuva Buddhist Group, 이하 YBG) 회원들은 하이데라바드 시의 주요 사원에서 매주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은 YBG 회원들이 제타반 붓다 비하르(Jetavan Buddha Vihara)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유바 불교 그룹(Yuva Buddhist Group)은 지난해 12월 인도 크리슈나 강변의 나가르주나사가르(Nagarjunasagar)의 불교유적을 답사했다.

정보통신 분야 젊은이들… '유바불교그룹' 열성 회원으로

〈Indian Express〉 지, "안드라프라데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

〈Indian Express〉 지는 "YBG 회원들은 하이데라바드 시의 주요 사원인 아난다 붓다 비하르(Ananda Buddha Vihara), 시타르타 붓다 비하르(Siddhartha Buddha Vihara), 제타반 붓다 비하르(Jetavan Buddha Vihara) 등에서 주말마다 법회를 봉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하이데라바드 청 · 장년층 포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YBG 회원 중에는 텔루구(Telugu)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한 〈Indian Express〉 지는 "인도에서 바라문 다음가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텔루구인은 대부분 힌두교도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TBG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즉, '젊고 유망한 힌두교도'들이 불교로 개종하고 있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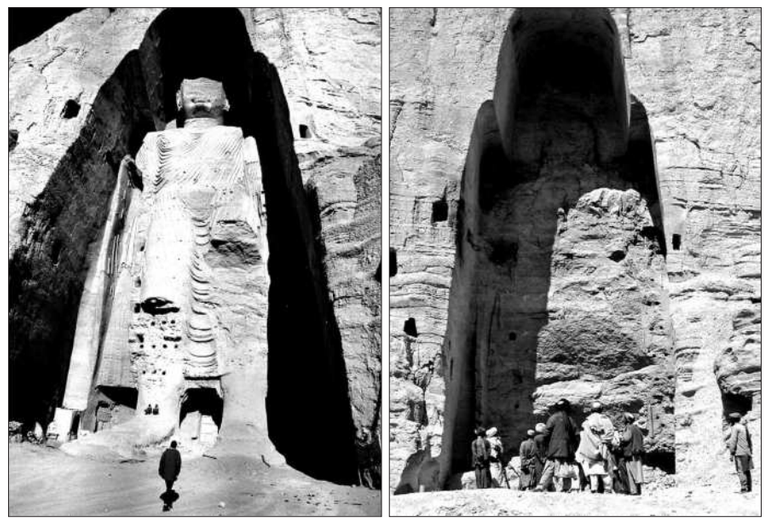
오스마니아대(Osmania University) 재학생 프라그아 초우한 씨는 "YBG 회원들 중에는 나를 비롯해 힌두교도 집안의 자녀들도 많다"며 "부모들 대부분 YBG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지만, 모두들 불교를 배우는 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유학생인 순리(Shoon Le) 씨는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동기들이 있어, 유학의 시름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특히 동년배들과 불교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YBG는 유학 생활의 안식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Indian Express〉 지는 "하이데라바드 불교부흥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YBG의 지도법사 케마차르(Khemachara) 스님의 말을 인용, "젊은이들의 열의와 비교해 하이데라바드 시에서 스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바미얀 석불… 재건 움직임 '가시화'

아프간 정부, 재건 추진 내년 1월 국제 콘퍼런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미얀 석불(왼쪽)과 2011년 탈레반에의해 파괴된 모습(오른쪽).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석불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미얀 석불 재건을 반대해오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최근 들어 입장을 누그러뜨리면서 지난 2001년 탈레반의 다이너마이트와 로켓포에 의해 파괴됐던 바미얀 석불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15년 1월 바미얀 석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일본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바미얀 석불 재건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콘퍼런스에는 유네스코 관계자, 아프간 정부 대표, 문화재 복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등 바미얀 석불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WSJ "석불 복원 가능성 높아져"

5년에 걸쳐 약 212억원 투입 예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바미얀 석불 2개 중 1개만이라도 재건할 경우, 약 5년에 걸쳐 최소 2천만 달러(약 212억5600만 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미얀 석불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서쪽으로 약 230㎞ 떨어진 바미얀 계곡의 사암 절벽에 자리잡고 있었던 2개의 초대형 불상이다. 507~544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발밑의 실크로드를 오가는 카라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석불의 모습이 장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3세기 인도 무굴 제국과 18세기 페르시아 제국 군이 석불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는가 하면, 19세기 중반 아프간 왕 압두르 라흐만 칸이 시아파 하자라족 반란을 진압하는 와중에 석불의 얼굴을 밀어내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약 1500년 동안 많은 위기와 수난이 있었다.

하지만 석불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2001년 탈레반이었다. 탈레반 지도자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는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우상을 없앤다는 이유로 석불을 다이너마이트와 로켓포로 파괴해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유네스코는 2003년 바미얀 석불을 '세계문화유산'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에 동시 등재했다.

석불 재건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아프간 정부다.

10월 1일자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는 카불과 바미얀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까지 펼치고 있다. 석불을 재건할 경우 아프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 전문가들도 바미얀 석불 재건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독일의 문화재 전문가인 베르트 프락센탈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바미얀 석불 재건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독일지역 책임자인 미카엘 페체트는 2013년 말 석불 지지대 공사를 하면서 아예 발 모양으로 만들어, 추후 석불 재건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유네스코 측은 "지지대 공사만 허가해준 것이지 석불의 발 모양으로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공사팀을 비판했고, 이를 계기로 문화계에서는 "이참에 석불 재건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해보자"는 주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최근까지 유네스코는 "석불이 파괴된 것 자체도 역사"라면서 재건을 반대해왔다. WSJ는 "아프간 시민사회에서 벌써부터 석불 재건을 위한 모금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크라우드 펀딩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시드니 불교센터, 리-모델링 성료 … 8일 '개축 기념 법회'

〈News Local〉 지, "호주 종교계 첫 사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는 다소 생소한 방법이 호주의 한 불교센터 리모델링에 큰 힘을 불어 넣었다.

〈News Local〉 지는 10월 13일 "시드니 불교센터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3만달러(약 2천8백만원)를 모금한 뒤 29일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밟고, 지난 8일 300여 명의 법우들이 모인 가운데 '개축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모금을 시작한 지 13일 만에 목표 금액 3만 달러를 모았다는 데 놀랐다"는 제레미 고드윈(Jeremy Godwin) 법사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복지시설 개 ·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게 주효했다"며 "시드니 불교센터는 모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드니 불교센터를 설립한 그는 현재까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드윈 법사에 따르면, 10여 년 전 개원한 불교센터의 리모델링을 고민하던 중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법우들과 의논 끝에 '붓다 브리츠(Buddha Blitz) 캠페인'을 기획했다.

붓다 브리츠 캠페인은 크라우드 펀딩 전문회사인 '스타트썸굿(Startsomegood)'의 사이트에 시드니 불교센터의 목적, 현황, 활동 등을 소개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모금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불교센터 재적 법우들의 노력봉사도 캠페인 진행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개원 1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시드니 불교센터' 전경.



지난 8일 봉행된 시드니 불교센터 '개축 기념 법회'를 준비했던 자원봉사들.

제레미 고드윈 법사는 "지난 10여 년간 맺어온 수많은 법연이 있어 '붓다 브리츠'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먼 곳에 있는 법우들은 후원금을 보내왔고, 가까이에 있는 법우들은 연차와 휴일을 아낌없이 투자했다"고 말했다.

붓다 브리츠 캠페인을 맡아 진행한 체리 하이드(Cheryl Hyde) 씨는 "대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 사례"라며 "시드니 불교센터는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드니 모든 주민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 Local〉지는 "시드니 불교센터의 '붓다 브리츠 캠페인'은 시드니 종교계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적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이는 앞으로 종교 시설 리모델링에 크라우드 펀딩이 적극 수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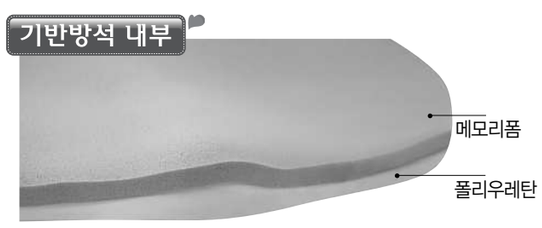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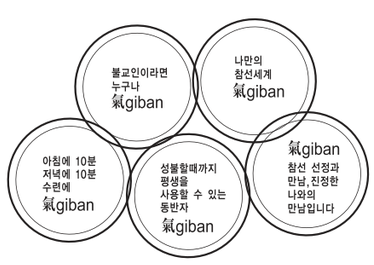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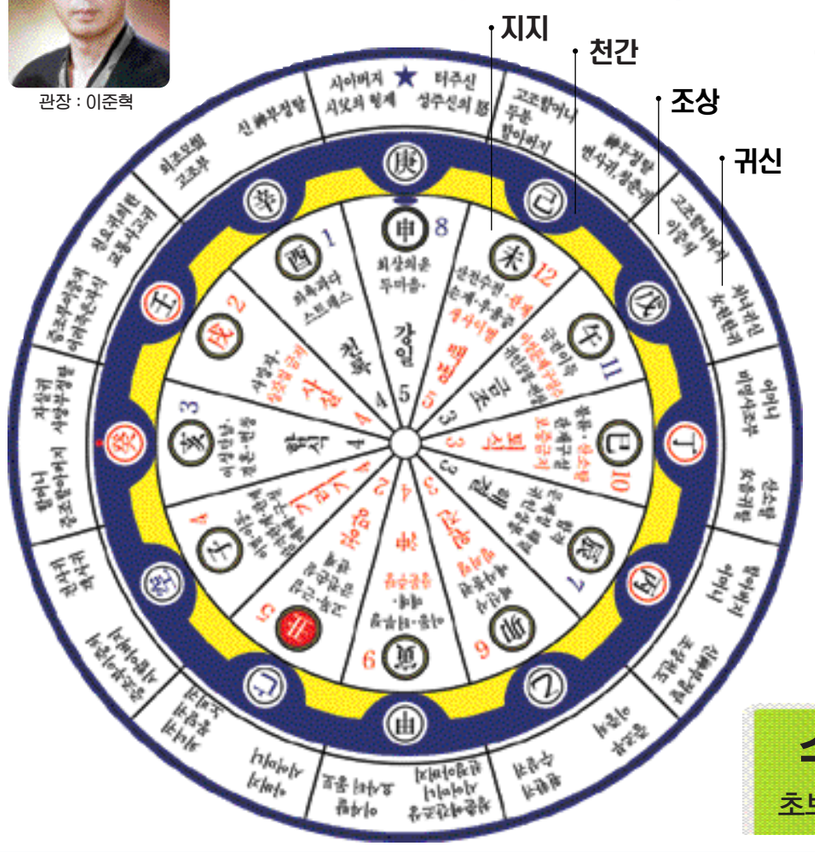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관장 : 이준혁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원판, 내 손 안의 귀장술입니다 (극비 도궁술 추가 강의)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렵니까?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 PC
4) ·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칠성상회 현불샵 복합기 할인판매



OKI MB471 DN -흑백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해상도 1200dpi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435,000원(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68,000원(용량:4,000매)
임대시 : 전화상담/기간24개월



OKI MC561 DN-컬러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컬러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자동양면 인쇄 가능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59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105,000원*4색(용량:5,000매)
임대시 : 전화상담/기간24개월

구매 문의 및 상담 :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www.7-star.net
입금계좌 : 농협 1282-17-003433 (주)한매소프트

---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명분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MAI ★ *미얀마 항공 취항 특가* ★

▶ 만달레이 / 바간/헤호 / 양곤 11월18일 / 11월25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불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한지 위에 펼쳐진 '자비무량불'의 감동

영담 스님 제 10회 개인전… 10월 29일~11월 4일 인사동 KCDF갤러리서



영담 스님이 꽃잎 종이를 만들고 있다. 영담한지박물관장 영담 스님의 제 10회 개인전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 10월 29일~11월 4일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열린다.

"외발 뜨기 한 번 물질해 발에 얹혀지는 종이바닥은 한 세계요, 한 올의 닥섬유는 사바의 두두물물이다. 얼키고설킨 닥섬유가 수십번의 물질로 겹겹이 쌓여 한 장의 종이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연기법계를 보여준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외연들과 내면의 신명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품으며, 자연물감과 어우러져 또 한 세계를 연출하는 자연 앞에 나는 지휘자로 때론 방관자로 물성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영담 스님에게 있어 한지는 무한한 우주이고 한없이 평화로운 자연이 된다. 영담한지박물관장 영담 스님이 제10회 개인전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연다. 10월 29일~11월 4일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법장, 자비무량불 등 한지에 자연물감으로 그려낸 18작품을 선보인다.

스님은 35년을 한지 연구에 몰두 전통 기법에 근거한 스님만의 독특한 한지를 만들어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법장'은 종이를 귀하게 여겨 일컫는 말이다. "법장에는 부처님 말씀인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가죠. 진리의 말씀을 펼쳐지는 곳이 바로 법장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천수경에 '개법장진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장을 여는 진언이라는 말이지요. 옛 어른들은 종이를 뜰 때 천년만년 보존하기 위해 상사화의 즙을 떠서 만들었어요. 꽃물이 독하지만 그래도 오래가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았죠."

그래서 스님은 현대인들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종이를 무작정 사서 사경을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조상님들은 일부러 닥나무를 키워 종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종이를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렇게 만든 종이 위에 사경을 하면 얼마나 신심이 돋겠어요? 빠른 것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종이를 귀하게 여기던 조상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자비무량불'은 관세음보살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스님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하지만 스님이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을 뜻하는 '삼신불'이다. "자비무량불은 말 그대로 자비가 무량하다는 뜻이죠. 이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온화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장사라는 말이죠. 퍼줘도 퍼줘도 마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자비에요.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이 구족되어 원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불이 사람 사람마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35년 한지 연구, 작품으로 승화
'법장' 등 불법의 세계 담아내
12명 작가 참여 3회 국제한지전도

그렇다면 스님이 한지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부처님 깨달음의 도리도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생사윤회의 끝없는 흐름이 있지만 그 주체인 마음에 매이지 말고 자유자재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법의 이치죠. '저절로'라는 말이 줄어 절이 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작위적인 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자연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마음의 평화가 오죠. 그 자연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한편, 스님은 개인전과 함께 제3회 국제한지전도 개최한다. 영담 한지로 작품을 만든 국내외 작가 12명이 참여, 작품 24점을 함께 선보인다. 영담 스님은 내년 필라델피아에서도 개인전과 국제한지전을 동시에 갖는다. 010-2535-358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한한 자비의 의미를 담아낸 '자비무량불'

민족통일 서원하는 '음성공양'

불교총지종 제4회 통일음악제 10월 25일 부산KBS홀서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가 10월 25일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음악회 장면.

제4회 불교총지종 통일 음악 예술제가 10월 25일 오후2시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마음의 평화를 통한 화합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남북 화합은 물론 다문화 가정, 새터민, 부산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법음으로 하나 되기를 서원하는 예술제다.

음악회에는 대만의 아모르라다와 바나이나가오 등 국제적인 명상음악가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떠힌 베트남 레민홍, 중국 팽려영, 티베트 카락뺀빠체링, 위드오케스트라 등이 공연을 펼친다.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지난해 서울 국립 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개최된 제3회 공연에 이어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제4회 음악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불교 총지종은 통일음악예술제를 통해 북녘의 동포들과, 다문화가정, 새터민, 부산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법음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지종도 및 다문화가정, 새터민, 부산시민, 불교계 주요 귀빈,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연극으로 만나는 구도와 깨달음의 세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10월 25일~11월 2일 국립극장서

한국 최고의 명콤비인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이 만든 첫 번째 히트작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2014년 새롭게 관객들을 찾아온다. 극단 완자무늬가 10월 25일~11월 2일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린다. 연극은 조각가 출신 스님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수행의 방편으로 불상을 만들면서 겪는 구도와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인간과 예술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더나아가서는 종교를 떠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

이 작품은 1990년 초연 당시 서울연극제 작품상, 백상예술대상, 삼성문예상을 휩쓸며 지금까지도 국어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공연, 정통리얼리즘 공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연극인들의 교과서 같은 연극으로도 손꼽힌다.

정진, 이문수, 명계남, 민경진 등 연극계의 중견배우들과 최광일, 박민정, 김윤경 등의 젊은 배우들이 합류한다.

특히 극단 완자무늬의 창단멤버이기도 한 배우 명계남이 망령 역을 맡으며 그만의 깊이와 입체적인 해석의 연기로 시월의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티켓은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이다. (02)2272-2152

정혜숙 기자



한국 최고의 명콤비인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이 만든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10월 25일~11월 2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인연 따라 오가는 풍경 렌즈에 담아

손민익 '다르마' 10월 22일~28일 토포하우스

여수 향일암과 인도 미얀마 등 불교의 자취를 렌즈로 담아낸 '다르마'가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손민익 사진전 '다르마'가 10월 22일~28일 토포하우스 아트센터 1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국내외를 여행한 다양한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가기에 제가 만난 불교와의 인연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작품의 제목을 달지 않은 것은 관람객들이 어떤 고정된 틀에서 매이지 말고 각자의 느낌대로 제 작품의 풍경을 담아 가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작가는 터키를 담은 다양한 사진들도 선보인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와 함께 〈이스탄불이 그리워지면〉이라는 제목으로 터키 여행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02)734-7555



개인전 '다르마' 여는 손민익 작가의 작품

동휘 스님 호국대법회 '열려라 대한민국'

해피만다라 동휘 스님이 10월 25일 강원도 홍천 여래사에서 호국대법회를 연다. '열려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가 활짝 피어 빛을 내뿜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피불, 해피만다라 등을 그리며 전시회를 열어 빛의 중요성을 전해왔던 스님은 이번 행사에서 호국법회 금광명경 기도 대축전 등으로 빛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엔틱 무궁화 작품과 동휘 스님의 무궁화 '옴' 등 이색 미니멀 전시회도 준비된다.

정혜숙 기자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수미단, 닫집, 영단, 법상, 경탁 등 법당장엄 일체 제작
각종 법당불사 컨설팅 해 드립니다.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박상희 작가의 '신과 인간 사이(Between God and Human)' 가 10월 22일~11월 4일 종로구 팔판동 갤러리 도스에서 열린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세상 꿈꿔요"

문화人 조각가 박상희

인간의 삶과 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지만 종교가 권력이 되고 인간의 삶을 제압하면 인간은 종교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박상희 작가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딴 세상의 그 무엇처럼 보이는 종교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십자가 목걸이를 한 부처님이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가하면, 푸른 형상의 예수님이 '卍' 자 목걸이를 하고 있다. 또 붉은 복싱글러브 위를 불상과 꽃으로 장식해 화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운 나무조각상을 쇠줄로 묶어 탐진치에 갇혀 있는 중생 또 이를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작품을 통해 분별과 대립이 극복된 이상적인 불국토, 연화장세계를 보여준다.

박상희 작가의 '신과 인간 사이(Between God and Human)' 가 10월 22일~11월 4일 종로구 팔판동 갤러리 도스에서 열린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상 예수상 등을 통해 종교의 허와 실 또는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다.

"특별히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종교의 본질을 이야기 하고 싶었죠. 인간과 사회 종교와 인간 사이에 서서 제 생각들을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인류의 죄를 대신한다는 예수님은 그 자세와 표정이 고통스럽죠. 반면 부처님은 자애로운 표정, 염화미소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끝을 알 수 없는 부처님 자비의 미소와 열반 그 법열의 순간을 담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세상의 수많은 불상이 있지만 저만의 미소를 찾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민도 많았죠. 작업을 하면할수록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참 어렵고도 매력적인 일이죠. 제가 부처님이 되는 것 같고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모습을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흙을 통해 전달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 저절로 행복이 찾아옵니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상 예수상 등을 통해 종교의 허와 실 또는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작품은 '이게 뭐꼬' (사진 위), 피에타(사진 아래)

종교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불상과 예수상 조각에 새겨
10월22일~11월4일 갤러리 도스
연화장 세계 작품으로 보여줘

물론 그는 이번 작품에서 예수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다수 선보인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공격해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모른 채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작가는 종교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총 맞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 잔인한 현실을 이야기 하고자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종교 때문에 무참히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현실을 대입할 수 있는 소재가 기독교에 많아요. 총에 맞아 구멍 난 예수의 상을 만들어 벽에 걸어 놓고는 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는 처참한 현실 때문이기도 했고 작가로서 표현의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날 작가는 구멍 난 예수의 몸에 꽃을 꽂아 주었다. 그러자 주검의 구멍은 희망과 사랑을 담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는 지난해 해인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홍류동 계곡에 와불상을 완성하기도 했다. "어느날 작업을 하다가 멈추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왔는데 누군가 와불 위에 동전을 놓고 갔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렇게 작업을 마치니 해인사 스님과 신도님들이 오셔서 봉안식을 했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얼마전까지는 단순한 돌덩이었는데 제 손길을 타고 완성된 와불이 어느 순간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죠."

늘 여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박상희 작가. 이런 그가 세상의 다양한 풍경 속에서도 유독 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종교를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과 절대자를 이어주는 종교에 대해 당분간은 할 이야기가 많을 거 같습니다. 너도 나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는 세상,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하는 무념무상 공의 세계를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두타승은 한 번 웃고 더 말이 없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㊶ 영통사 ㊥





영통사 뜰에 서 있는 대각국사비.

무상한 시간 구도의 징표

"또 앞으로 몇 리를 나아가자 산이 휘돌아 길이 막혔다. 올려다보니 다섯 봉우리가 장엄하게 다투어 높이 솟아 서로 형제들처럼 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관산이다. 그 기슭에 영통사(靈通寺)가 있었다. 이 절은 옛 송경(松京)의 대가람(大伽藍)으로, 중간에 화재를 당하여 건물이 열 중에 두셋 정도만 남아 있다. 뜰에는 세 개의 석탑이 서 있고 문밖에는 고려 시대 승려 의천(義天)의 비가 서 있는데, 중간 이하는 글자가 떨어져나가 읽을 수 없었다. 채수의 송도록에서 매우 칭찬한 명승지 서루(西樓)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문신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문집 〈농암집(農巖集) 제23권〉에 나오는 '송경(松京)유람기' 는 오늘날의 개성 주변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이다. 후반부에 오관산과 영통사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비교적 소상하다. 특히 "뜰에는 세 개의 석탑이 서 있고 문밖에는 고려 시대 승려 의천(義天)의 비가 서 있는데, 중간 이하는 글자가 떨어져나가 읽을 수 없었다." 는 부분은 오늘날의 풍경과 큰 차이가 없다. 2005년 천태종이 복원한 영통사 역시 보광전 앞의 석탑과 뜰 앞의 의천 대각국사 비가 그대로 존립하고 있다. 무상한 시간 위에 서 있는 구도의 징표인 셈이다.

김창협은 개성 지역을 유람할 때 영통사에 들렸던 소감을 시로 남겼다. 〈농암집〉 제6권에 '영통사' 라는 제목아래 두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영통유이구(靈通游已久)
단억입산심(但憶入山深)
예예석림색(曳曳石林色)
요요종고음(寥寥鐘鼓音)
사공탄지겁(寺空彈指劫)
객지백두음(客至白頭吟)
계마장랑하(繫馬長廊下)
전진창도심(前塵 悵道心)

영통사 유람한 지 하마 오래라
산속 깊이 들어갔던 기억만 아련하다.
바위에 나무숲이 무성도 하고
범종이며 북소리 적막하구나.
손가락 퉁길 사이 절은 텅 비고
길손은 백발 되어 시를 읊누나.
긴 행랑 아래에 말을 매면서
지난 일 서글프게 이야기하네.
넉넉한 마음의 홍취

첫 번째 시에서 김창협은 영통사의 풍경과 무상한 세상사를 담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에서는 그 무상감이 더욱 절실해지고 역사 속에 흘러간 영통사의 시간을 관조하는 자세를 보인다.

화기우래편(花氣雨來)
승거연리심(僧居煙裏深)
계행만창석(溪行萬蒼石)
루대오청잠(樓對五靑岑)
채로기유재(蔡老記猶在)
취헌시가음(翠軒詩可吟)
전조나부문(前朝那復問)
비자욕생금(碑字欲生金)

골고루 내린 비에 꽃이 피는데
깊은 안개 그 속에 스님들 사누나.
검푸른 일만 바위 흐르는 시내
푸르른 다섯 산봉 마주한 누대.
채로 기록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읍취헌 지은 시가 읊을 만하네.
과거 왕조 이제 와 어찌 물으리
비석 글자 황금이 흘러나올 듯한데.

시에서 3구와 4구는 '검푸른 바위' 와 '푸르른 산봉우리' 로 대구를 이루었는데, 5구와 6구는 '채로' 와 '취헌' 이라는 인물로 대구를 이루었다.

채로는 성종 때의 문신 채수(蔡壽 1449~1515)이고 취헌 역시 성종 때의 문신 읍취헌(揖翠軒) 박은(朴誾 1479~1504)이다. 채수는 허침, 조위, 안침, 성현 등과 개성 지역을 유람하고 〈유송도록(遊松都錄)〉이란 여행기를 남겼다. 김창협은 그 기록을 본 것이다. 또 박은의 경우도 영통사를 찾아가 '영통사에서 흥을 읊다(靈通寺記興)' 라는 시를 지었다. 그의 문집 〈읍취헌유고〉에는 '영통사기흥' 외에도 두 수의 칠언율시가 실려 있다. 그 중 '영통사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하다' 라는 시를 보자.

산화척촉자성림(山花 自成林)
고사송삼청역음(古寺松杉晴亦陰)
분부초인여쟁석(分付樵人與爭席)
추수곡조요동음(追隨谷鳥要同吟)
두타일소경무어(頭陀一笑更無語)
천석백년응사금(泉石百年應似今)
세만회심향화사(歲晩會尋香火社)
종전진토만부침(從前塵土 浮沈)

산꽃이라 철쭉이 절로 숲을 이루었고
옛 절에 솔숲은 맑은 날도 어둑하여라.
나무꾼에게 분부해 자리 다투게 하고
골짜기 새 따르며 함께 시를 읊고저.
두타는 한 번 웃고 더 말이 없는데
천석은 백 년 토록 늘 오늘과 같으리.
세모에는 반드시 향화사를 찾으리니
종전엔 진토 속에
부질없이 부침했구나.

시는 봄날 철쭉이 만개한 풍경 속의 영통사를 묘사하며 시작된다. 그리고는 나무꾼도 합석하여 즐기려는 넉넉한 마음과 새들이 우짖듯이 함께 노니는 벗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자 하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뒤이어 나오는 두타 즉 고행하는 스님은 한 번 웃고 말이 없다는 구절과 천석 즉 자연 만물은 백년토록 오늘과 같으리라는 대구도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 간 두타승과 만고에 여여한 자연 만물이 자연 그대로 공존하는 풍경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욕정이 사그라진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시인의 속내가 결구에서 가감없이 드러난다. 세모에는 반드시 찾아가리라 다짐하는 '향화사' 는 산사(山寺)를 뜻하는데, 고절한 은자(隱者)의 은거지라는 의미도 있다. 당나라의 백거이(白居易)가 벼슬을 그만두고 향산에 들어가 결사를 맺고 수행한데서 비롯된 말이다.

〈바로 잡습니다〉

10월 2일자 1012호에서 소개된 직지사 대웅전을 경북유형문화재 제215호에서 **보물 제1576호**로 바로잡습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8 ~ 10/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3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4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김영사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리셋 – 월호 스님 잠언집	월호	마음의숲
7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법보신문 연재 카툰)	김재일	책앤
8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웅연	불광출판사
9	임제록	종광	모과나무
10	초기불교입문	각묵	ㄴ



1천년 전 던진 임제 선사의 화두는?

임제록

종광 스님 강설 | 모과나무 펴냄 | 2만5천원



〈임제록〉은 동양 선불교사에 큰 영향을 끼친 중국 대선사 임제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어록집이다. 이 책은 달마대사로부터 전래된 순선의 사상을 최종적으로 정립시킨다. 또한 선사가 살아야할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당대 제일의 조사 임제의현(?~86)의 생애와 사상을 전하는 선가 최고의 경전으로 꼽힌다.

핵심사상은 '무위진인'을 자각하는 것인데 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분별이나 차별이 없는 참사람이라는 의미로 임제가 설하는 인간 개개인의 본래 진면목을 말이다. 즉 인간 누구나에게 본래부터 내재된 절대주체의 본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좋다 싫다는 차별경계 속에 몸담기 이전의 참자신이다.

임제 스님은 육조 혜능 스님의 법맥을 이은 선사였다. 육조 혜능 대사의 법을 남악회양 스님이 그 제자는 '평상심시도' 로 유명한 마조 스님이다. 또한 마조 스님 제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 는 중국 선종의 전통을 세운 백장 스님이다. 이런 백장 스님의 제자가 황벽 스님이고 그 제자가 바로 임제 스님인 것이다.

임제 스님은 조사선 불교가 찬란히 꽃피웠던 시기에 임제종을 열고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선종 역사에서 임제종은 그 맥을 이은 조계종의 시작이기도 하다. 임제 스님의 칼날 같은 호령과 가르침에는 한 순간도 번뇌를 일으킬 수 없는 긴장감이 있지만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하지 말라' 는 간절한 가르침도 있다.

특히 임제 스님의 '할(喝)' 은 덕산 스님의 '방(棒)' 과 더불어 조사선의 중요한 가르침이며 이것은 여전히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유명한 문구 역시 〈임제록〉에 실린 말이다. 입을 열고 말하는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활발발한 가르침에는 빈틈이 없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즉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되리라는 사자후는 1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으로 전달되고 있다.

초심자들도 한번쯤 들어봤을 한국 선종의 교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임제록〉이 대강백 종광 스님의 강설로 새롭게 태어났다. 스님은 1918년에 발행된 〈교정 임제록〉을 저본으로 선원과 강원, 불교교양대학서 꾸준히 강설했다.

임제 스님 어록 담은 선가 최고 경전
대강백 종광 스님 새롭게 해석
삶의 문제 해결 위한 대안으로 활용
선종오가계표 등 삽입해 쉽게 설명

〈임제록〉은 임제 스님의 법문과 말씀을 정리한 어록으로 서문, 상당, 시중, 감변, 행록, 탑기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상당은 임제 스님이 직접 한 법문이기 때문에 〈임제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상당에서는 대중들에게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며 수행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법거량의 성격이 짙어 가장 격조 있고 품위 있는 법문이다. 시중은 상당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법문으로 대중 속에서 가르침을 보여주는 대중법문이다. 감변은 수행하는 스님들이 서로 문답이나 특이한 행동을 통해 선승 상호간의 견해를 시험하고 불법의 안목을 점검하는 것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뤄지는 선문답이자 법거량이다. 그래서 선종이 지향하는 활발발한 현장감이 잘 살아 있다. 행록 역시 임제 스님의 삶과 수행의 여정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으며, 어떤 사람들과 어떤 법거량을 했는지, 누구를 어떻게 교화했는지 기록한다. 종광 스님은 〈임제록〉을 이해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면 임제 스님의 삶과 구도의 과정을 정리한 행록을 먼저 읽기를 권한다.

구성으로는 내용 단락을 나누고 임제 스님의 말씀서 제목을 가려 뽑아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임제 스님 핵심 가르침이 담긴 제목들은 1천 년 전 임제의현 선사가 던진 화두이자 당부의 말들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스님의 당부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삶의 진리들을 펼쳐놓은 임제 스님의 깨달음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광 스님 〈임제록〉의 목차는 단순히 글 싣는 순서를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임제 스님의 화두 집약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선불교의 탄생과 흐름에 대해 개괄 정리하고, 선종오가계보도표 등을 삽입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임제 스님의 거침없는 직설과 질타에 어리둥절한 수행자들에게 종광 스님의 이번 책은 임제 스님의 본뜻을 친절하게 해설하며 이해시킨다. 임제 스님의 말과 글에 머물지 않고 핵심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려했다는 종광 스님은 단순히 고전 어록을 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강설했다고 한다.

불교의 목적은 개인 해탈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대강백 종광 스님은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궁극의 자기 이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제 스님의 가르침이 군더더기 없고 직설적이라면 이번에 책을 펴낸 종광 스님의 강설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정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책 속의 밑줄 긋기

▲선, 특히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을 공부함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입니다. 그 가운데 대분심은 내가 본래 부처인데 왜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한 마음입니다.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 전쟁에 나온 장수와 같이 용맹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결기를 지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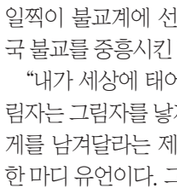
▲임제 스님의 가르침은 다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사람들은 경전의 말씀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감탄을 하며 밖에서 진리를 구합니다. 임제 스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경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속박이라고 일깨웁니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한 생각 한 생각마다 바깥에서 구하는 마음을 쉬어 버린다면 조사나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그대들이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법문들 듣고 있는 바로 그대들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여 밖을 향해 정신없이 헤매며 구하려고 한다.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는다"

인연의 강

덕해 지음 | 소금나무 펴냄 | 1만2천원



"내 의식 속에서 그 분은 한 날 한 시도 떠나지 않고 나의 머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금방이라도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은 그분의 온화한 음성에 젖는다."

온화한 음성의 주인공은 최고의 포교사이자 대강백으로 한국 현대불교사에 남은 관응 스님이고, 그 온화한 음성에 젖어 스님을 그리워하는 이는 관응 스님의 제자 덕해 스님이다.

책은 관응 스님(1910~2004) 열반 10주년을 맞아 세간에서 중부(仲父)와 조카의 혈연으로, 출세간에서는 은사와 상좌의 법연으로 키워져 스님을 평생 시봉한 세수 83세의 덕해 스님이 소년 시절 속세의 중부, 그리고 출가 후 은사에 대한 가시지 않는 그리움을 담고 있다.

관응 스님은 불경뿐만 아니라 유학과 신학문, 철학에 능통했고, 유식학의 체계를 세운 거봉이며, 무문관 6년 결사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일찍이 동산 스님은 탄허, 운허 스님과 함께 관응 스님

관응 스님 열반 10주기 맞아
제자 덕해 스님이 쓴 '관응 스님'

을 한국불교의 삼보 스님이라고 칭송했다. 동산 스님은 범어사의 조실과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고 일찍이 불교계에 선풍 진작과 정화운동을 통해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대선사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느니라." 입적하기 전 열반게를 남겨달라는 제자의 간청에 스님이 겨우 암긴한 마디 유언이다. 그 간소함에서 볼 수 있듯이 관응 스님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나는 산문에 들 때부터 노장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50년 넘게 스님을 모셨다. 처음 뵐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노장님은 처음 뵐 때의 모습이나 마지막 모습이나 한결 같으셨다. 올해가 노장님이 입적하신지 10년이 되시는 해이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십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스님 행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든 것도 또한 인연일 것이다." 그림자조차 남기려 하지 않았던 스승의 본체를 드러내기로 한 제자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의 간청에 못 이겨 고심 끝에 감히 스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덕해 스님은 출간의 과정을 밝혔다.

책은 총 다섯 개의 큰 장으로 엮었는데, 관응 스님이 걸어간 길에 제자 덕해 스님의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다. 관응 스님의 행장과도 같은 책은 스님의 개인사와 한국불교사를 함께 들려준다. 출가, 무문관 6년 등 스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쫓다보면 일제의 사찰령 공포, 정화운동 등 생생한 한국불교의 현대사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스님은 밤으로 잘 주무시고 낮으로 참선을 하시는 등 계속 수행하시며 보장사에서 7 년을 머무셨다. 날마다 지척에서 스님을 모신 나는 이때가 정말 행복했다."

또한 중부와 조카로서의 혈연과 스승과 제자로서의 법연 속에 흐르는 인연의 지중함을 읽을 수 있다.

관응 스님의 그림자는 지금도 팔십의 노구인 덕해 스님에게 드리워져 있다. 그 분이 남기신 말씀을 죽는 날까지 덕해 스님은 지키고자 한다. 그 누구보다 깐깐하게 중노릇하는 바람에 젊은 스님들이 견디지 못했고, 주지 맡기를 꺼려했기에 권속이 없었으며, 상좌두기를 지옥 보듯이 했다. 스스로에게는 가혹할 만감 근검절약하면서도 교육과 포교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었다. 덕해 스님의 서원은 종단차원이 아닌 사찰차원에서 최초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교육과 포교에 대한 열정은 은사인 관응 스님을 꼭 빼닮았다. 관응 스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덕해 스님. 그 인연의 강이 어떻게 흘러 어디로 흘러가는지 책은 어떤 때는 잔잔하게 어떤 때는 역동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다. 관응 스님과 덕해 스님의 지난 족적을 따라 근대 한국불교의 역사가 한 눈에 펼쳐지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불도, 출가자가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언을 곁들이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관응 스님은

1910 경북 상주에서 출생.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출가. 직지사에서 탄옹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금강산 유점사 강원 졸업.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졸업. 일본 류코쿠대학 유학. 조계사 초대 주지.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직지사 주지. 조계종 원로회 부의장. 조계종 제1회 포교대상 수상. 2004년 세수 95세 법랍 76세로 입적.

저자 덕해(德海) 스님은

193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1952년 경북 예천군 보문사에서 출가했다. 김천 직지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했으며, 부산 동래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경기도 안양시에 보장사를 창건했으며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이사장,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으며, 보장사 영각당 준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를 열었다.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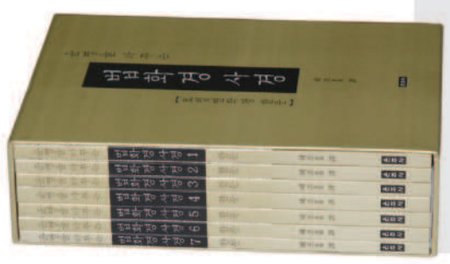
우리말 법화경 사경 (전5권)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40,000원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전7권)
한문 원문 및 한글음 사경에 우리말 번역 수록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1,760쪽 / 65,000원



운명을 바꾸는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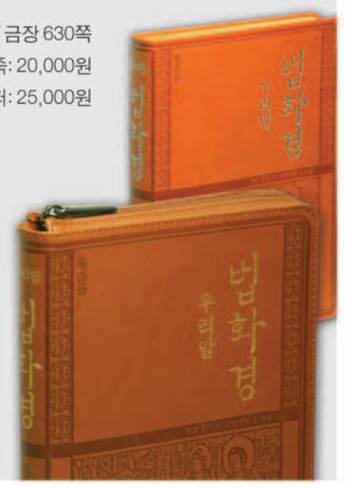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1,270쪽
55,000원

고급스럽게 꾸민 새로운 장정!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가죽〉
혜조 역 / 국판양장 / 금장 630쪽
가죽: 20,000원
가죽·지퍼: 25,000원



〈가죽·지퍼〉



독송용 한문 법화경
국판누박양장 / 금장 600쪽 /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좌선이 주는 큰 선물… 내 껍질 벗기

좌선을 권하다

히라이 쇼슈 지음 | 박재현 옮김
엑스오북스 펴냄 | 1만3천원



아무리 해치워도 할 일은 쌓이고, 아무리 참으려 해도 주변 사람들과 갈등은 커져가고, 아무리 애써도 지금 자리는 위태롭고, 거기다 아무 상관도 없는 뉴스와 SNS 소식에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

일본 총리에게 죽비를 내리치다

이런 혼란과 불안에 부대낄 때 하루 5분이라도 좌선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일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좌선회'를 이끄는 히라이 쇼슈 스님은 선승이나 하는 걸로 오해하는 좌선을 일반인도 일상 속에서 실천해보라고 권한다. 세상은 급변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는 막연하고,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 중심가의 사찰 '젠쇼안'의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좌선을 못한다는 구실은 핑계일 뿐이라며 '당신이 일본 총리보다 바쁘냐'고 묻는다. 총리 재임 기간 중 주말마다 좌선을 한 나카소네 전 총리, 때때로 좌선을 한다는 아베 총리에게 죽비를 내리치는 스님답게 단호하다. 좌선 한 뒤로 아베 총리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평가가 공공연히 거론되는 걸 보면, 좌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는 게 힘들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면 좌선을 시작해보자.

아무나 할 수 없는 좌선

좌선을 하기 위해 거창한 마음가짐과 세세한 준비는 필요 없다. 억지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다. 일단 그 자리에 가만히 앉는 것부터 해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사무실이든 안방이든 공원이든 지하철이든 지금 있는 곳 어디든 괜찮다는 것이다. 그냥 제자리에 앉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깊숙이 숨을 들여마셔 보라는 것이다. 호흡을 의식하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들이마신 숨 다시 천천히 다 내쉬고 나면 저절로 알게 된다. 나를 무기력하게 했던 우울이, 나를 휘둘렀던 분노가, 나를 주저앉혔던 좌절이, 나를 들볶았던 근심걱정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저자는 좌선 몇 번 했다고 그 모든 게 단박에 해결될 거란 기대는 애당초 하지 말라고 못 박는다. 눈에 띄게 마음과 몸에 좋은 변화가 곧바로 따라 올 수는 없다는 말이다. 우주도 세계도 사회도 당신도 아니 나부터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복잡하게 요동치지 않을까.

그 천변만화와 혼돈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좌선 하는 이유는 결코 돌부처가 되거나, 멘탈 갑이 되기 위해서도,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내가 잊고 있던 나를 찾아내고, 나 아닌 나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나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좌선을 해보자는 것이다. 좌선이 주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터이다.

좌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히라이 쇼슈 스님은 전설 같은 고고한 선승들의 삼엄한 수행을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한다. 밥 먹고 잠 자고 일하고 사랑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좌선을 하

'젠쇼안'의 주지 스님 좌선 특강
좌선에 꼭 필요한 것은 '끈기'
좌선 몇번에 큰 변화 기대 'No'
일상적용 사례 및 에피소드도

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걸을 때도, 정지해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모두 수행이다'라는 좌선의 가르침을 되새기기만 해도 한결 마음이 유연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좌선의 핵심 개념을 골라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선승으로 10년 넘게 수행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기쁨, 시시각각 목숨을 위협받던 사무라이들이 좌선을 한 이유, 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가 부동심을 지켜낸 비결,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과 육아를 시작할 때 가져야 할 마음자세, 좌선과 명상의 차이점, 좌선 호흡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원리, 삽화로 보여주는 제대로 앉는 법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가르쳐준다.

좌선할 때 꼭 필요한 단 한 가지

일상 생활을 하며 좌선을 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과 몸을 스스로 단련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굳이 좌선에 꼭 필요한 것 단 하나를 꼽으라면 끈기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고 심지어 놀 때도 좌선의 마음가짐으로 하려면, 그 끈기를 갖는 것 자체가 너무도 버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좌선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선승에게도 벅찬 일이다. 그러므로 큰 욕심 버리고 그저 하루 5분이라도, 아무데서나, 가만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는 것으로 첫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저자는 마음의 회초리를 휘두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년 12달 곁에 두고 싶은 '생활선' 길잡이

리셋

월호 스님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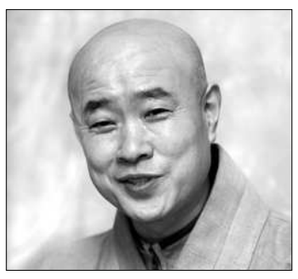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지금 만나는 사람, 하고 있는 일, 먹고 있는 음식, 피고 지는 꽃들 속의 순간들. 저 흘러가는 강물이나 구름은 물론 언젠가 당신마저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과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행복도 내 작품입니다〉〈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등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연소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해 온 월호 스님. 그간 수행과 대중 강연 중 가장 울림이었던 지혜의 '한마디'들을 모아 쓴 잠언집 〈리셋〉이 출간됐다.

충만하게 비우고, 있는 그대로 다시 채우기 위한 '지혜의 한마디'들로 이뤄진 이 책의 주제는 다양하다. '사랑' '인연' '마음 바라보기' '휴식' '공부' '수행' '죽음' '완전연소' '자연' '나눔' 등 1년 365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12가지 키워드다. 그래서 1년 12달 늘 곁에 가까이 두며 다달이 '생활선'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다.

"듣고 넘겨야 하는 마음이 있다. 소리 또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들리기 때문이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바로 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한 때다." 처럼 잠언 형식의 글들이라 머리맡에 두고 필요할때마다 꺼내볼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간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을 둘러싼 이 세계에도 더욱 견고한 평화가 전파되기를 발원한다. 하지만 간절한 발원과 달리 내 삶에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고, 날마다 수많은 고통과 슬픔, 이별과 아픔, 시련의 소식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한다.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언젠가부터 빛이 바래고, 자조와 절망의 기운이 나와 이웃,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 참 힘들게 살아간다.

본디 이 세상 자체가 '사바세계'로, 참고 견뎌 나가야 하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견뎌 내는 데 있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내고 있다. 바로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망각에서 번뇌와 고통이 기인한다. 우리의 마음 자리를 비추는 거울이 맑지 못한 까닭이다.

뿌옇고 흐려진 마음 자리의 거울을 닦아 '참나'와 만나기 위한 첫걸음, 그것이 바로 '리셋'이다. 없었던 것을 애써 만들어 내는 인위가 아니라, 본래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당위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 다시 자유롭게 다시 충만하게 시작하기 위해 편안히 비우는 것. 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김주일 기자

고형곤 박사 선철학 사상 정리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하여 한국선사상을 철학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철학자, 청송 고형곤의 생애와 선철학의 핵심을, 그의 제자인 소광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리했다.

1906년에 태어나 2004년에 세상을 떠난 청송(聽松) 고형곤은 한국 철학계의 제1세대에 속하는 철학자이다.

그는 경성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 연세대학교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한국철학회 초대회장, 전북대학교 총장, 동국대학교 역경원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정통 철학자이다.

동양의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하여, 한국선사상을 철학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철학자라는 평을 받는 그는,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선의 세계〉라는 한 권의 명저를 통해 토해냈는데, 그속에는 한국선의 정신과 원류에 대한 천착뿐 아니라, 현대 서양철학의 사조들과 선사상의 비교 등이 실려 있다. 서양철학에서는 특히 근현대 서양철학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의 사상, 그의 존재론과 선사상과의 연관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시절 청송으로부터 직접 배운 바 있는 소광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그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한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과 성격, 성향 등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경험들과 사건들을 여러 기록들과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즉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교육, 청년기의 대학생활, 연희전문 교수 시절, 그리고 해방 이후의 서울대 교수 시절과 전북대 총장, 국회의원 등의 활동 등을 보여준다. 한편 내장산에서 10년 동안 원효에 대해 천착하고 정리한 내용을 분실한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준다.

청송의 사상에 대해서는, 먼저 그의 서양철학 연구가 어떤 내용과 주제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서양철학 연구에서 시작하여 선불교 연구로 끝을 맺는 청송 철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의 철학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동서양 철학의 통섭, 즉 청송이 선과 존재 현전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송은 한국 선사상의 핵심과 그 전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청송의 실천철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어느 포교사의 전법활동담

올레불교

이종군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5천원



저자는 군 제대 후 불교를 만나 마음 수행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다.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인생 목표이다.

이 책은 저자의 평생 수행과 삶을 담은 일종의 자서전이다. 젊은 시절 불교를 만난 저자가 큰 스승을 찾아가 법문을 청하고 법회를 하는 곳이면 먼 길을 마다않고 좇아다닌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을 응용해 생활에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 생활을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와 행복을 만들어 줬는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밝힌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으로 힐링이 싹텄고 그 해결책으로 서양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은 명상에 주목했습니다. 명상 수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치료와 현대의 성인병, 특히 정신질환자들에게는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끼듯 올레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길이다. 닫혀진 좁은 공간을 활짝 열린 공간으로 만들길 바라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통하고 정서가 맞으면 빨리 친해지고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한다. 그 속에서 서로의 정을 확인하고 그것이 느껴지면 마음으로 믿음과 함께 신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정겨운 모습의 실체라고 저자는 책에서 말한다.

"현대인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 뿐 입니다. 내 것 네 것만 찾다보니 남에게는 관심과 동정심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란 인생을 살아보고 느끼고 세월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공감을 하고 찾는 종교입니다. 젊은 패기로는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면 세상살이가 보다 편리하고 안정되게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불교를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책 구성을 보면 4장과 5장에서는 성지 순례를 다니며 느낀 점과 포교사로서의 수행과 포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6장은 기도하는 방법과 초파일의 광경들을 엮어내고 있다. 7장은 어릴 적 해인사의 수련대회와 큰 스님의 법문을 되새기는 마음을 담았다.

김주일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求하라!**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求하라!**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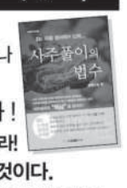
전국 서점 판매중!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격물치지’, 본성을 깨달아 진리를 구하다

불교로 읽는 古典

유교 경전 〈대학〉



함현찬
성균관대 BK21플러스사업단 연구교수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겪으면서 성립된 중국 한대(漢代) 유학의 특징은 소실된 경전을 다시 수집, 정리하고 자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훈고학이다. 그러나 훈고학은 경전의 내용과 거기에 담긴 진리 규명보다는 그 자구해석에만 매달려 논쟁을 일삼게 되면서 차츰 학계의 외면을 받다가, 불교가 전래된 이후 마침내 사상사의 주류에서 밀려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당(唐) 중엽부터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유학사상에 대한 재평가와 자체반성은 유학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하였고, 이어 송(宋)왕조의 성립과 함께 유학자들이 민족의 주체성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른바 정통성에 입각한 전통사상의 재정립이 새로운 추세가 되었다. 종래의 선진유학(先秦儒學)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유학의 바탕 위에 불교의 내용을 흡수하면서 신유학의 기운이 돋아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송대 유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교는 이단이고 또한 비정통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유학을 대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유학의 경전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천적 교훈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송대에 접어들어서 불교의 형이상학과 논리를 종합하여 새로운 시대와 사회에 맞는 새로운 유학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성리학(性理學)이라고 한다.

송대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주희(朱熹, 1130~1200)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희는 치밀한 논증과 명석한 사고, 해박한 지식으로 주돈이(周敦頤, 1017~1073), 소옹(邵雍, 1011~1077), 장재(張載, 1020~1077), 정호(程顥, 1032~1085), 정이(程頤, 1033~1077) 등의 사상을 종합하여 송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희는 종래의 사장학과 훈고학의 학풍을 쇄신하고, 노장사상과 불교를 배척하였으며, 마침내 새로운 시대와 사회문제에 맞는 유학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희가 처음부터 불교배척의 입장에 섰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유년기부터 불교 교리에 흥미를 갖고 널리 불교 경전을 섭렵하였다. 그는 14세 되던 해에 부친이 세상을 뜨자 부친의 유언에 따라 호헌(胡憲, 1086~1162)·유면지(劉勉之, 1091~1149)·유자휘(劉子翬, 1101~1147) 밑에서 수학하였다. 이들은 당시 불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선승들과의 교류도 빈번하였다.

“나는 15~6세 때 또한 일찍이 불학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하루는 병옹의 처소에 있다가 한 승려와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승려는 다만 상응하는 대답만 할 뿐 옳고 그름은 말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유 선생(유자휘)과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분명하고도 신령한 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유 선생이 뒤에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나는 마침내 이 승려에게 긴요하고 오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그에게 찾아가 질문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에 응시하러 갈 때에 미쳐서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허황된 설을 제거하였다.(〈朱子語類〉 卷104, ‘朱子1 · 自論爲學工夫’)

이와 같이 주희는 선승들을 직접 만나 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였고, 그가 과거시험 보러가면서 휴대하고 있었던 책은 당시 간화선의 대표자였던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어록 한 권 뿐이었다는 일화도 있다. 이처럼 주희는 유년기부터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설을 듣고 분명하고도 신령한 선을 이해하고자 했었다.

송대 성리학 집대성했던 ‘주희’
본성 깨달아 만물의 이치 아는
〈대학〉의 격물치지론에 주목

불교의 이치 넘어서려 했으나
용어에만 집착한 한계 보여줘

그런데, 유자휘 · 유백수 등의 선은 주로 정(精)에 치우친 묵조선적 경향이 강한 반면, 대혜종고의 간화선은 동정을 초월한 일상의 일념상에서 대오함으로서 인간의 능동성을 북돋우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면 주희가 처음 받아들였던 선학의 특징은 정적이며 묵조선이었는데, 주희는 당시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정(精)에 치우친 묵조선에 만족할 수 없었다.

주희가 불교와 멀어지게 된 것은 이동(李侗, 1093~1163, 연평延平)과 만나게 되면서였다.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주희는 이동이 “그대는 공(空)에 매달려 허다한 도리는 이해하면서도 눈앞의 일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도란 현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상생활에 있을 뿐이니, 착실히 공부하는 데서 이해하면 곧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고 하면서 “성인의 경전을 잘 읽어 보라”는 말을 토대로 공부하면서 불교를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실 주희가 생각하기에 직지인심을 통한 본성의 인식은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이고 내면적 자기반성 의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었고, 외면적 · 객관적 근거를 담보해 내는 것 역시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주희는 객관적이면서도 확실한 근거를 갖는 방법을 구하였는데, 주희가 여기에서 착상한 것이 바로 외부세계이다. 즉 변화하는 외부세계의 사물을 관찰하고, 그 외부사물 안에서 변화하지 않는 이치(太極-理-性)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외부 사물의 이치를 자기에게 치환함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된 데에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서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는다)”이라고 언명한 것에서도 동기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주희의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 근거는 바로 유학 경전 중 하나인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이다.

격물치지란 본래 〈대학〉 경1장에 보이는 용어로, 성리학에서는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고, 이를 미루어 인간의 본성을 다 알아 궁극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내지는 실체를 밝혀낸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학〉의 내용은 삼강령 팔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령은 모든 이론의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을 지니며,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 이에 해당되고, 팔조목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말한다. 주희는 〈대학〉의 삼강령 팔조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적 문제가 바로 격물치지라고 보고 “이 편의 종지는 강령이 세 가지가 있고, 조목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격물치지가 가장 급선무가 된다.(〈晦菴集〉 卷15, ‘講義 經筵講義’)”고 하였다.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앎을 이룸이 사물을 접하는 데 있다(致知在格物)고 한 것은, 나의 앎을 이루고자 한다면 사물에 접하여 그 이치를 궁구함에 달려있음을 말한 것이다. 대체로 사람 마음의 신령함은 앎이 있지 않음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있지 않음이 없으나, 오직 이치에 대하여 아직 다 궁구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앎이 다 이루어지지 못함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따라 더욱 궁구하여 그 극진한데 이를 것을 구하지 않음이 없게 한 것이다.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아침에 활연히 관통하는 데 이르면 모든 사물의 겉과 속, 정밀한 것과 거친 것이 이르지 않음이 없고, 내 마음의 전체의 큰 씀씀이가 밝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격물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의 이루어짐(知之至)이라 이른다.”



송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 1130~1200)의 진영. 그는 〈예기〉 제42편을 따로 떼어낸 〈대학광의(大學廣義)〉를 다시 편집해 〈대학장구(大學章句)〉로 만들어 이를 숭앙했다. 주희의 노력으로 〈대학〉은 세상에 널리 읽히는 유교 경전이 됐다.

이 글을 분석해보면, 주희 철학의 근본 목적은 현실세계에서 변화하고 있는 만물의 내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본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치환함으로써 복성(復性), 성성(成聖)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이루고, 나아가 죽음으로 인해 멸절되는 인생의 무상감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의 전개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외부사물에 당연히 태극=천명=리=성(太極-天命-理-性)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본성이 투영되어 있다는 유학의 전통적 사유체계이다. 바로 이러한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주희는 본래의 마음을 밝히는(明明德) 최우선적 방법으로 그의 격물치지론을 전개하였으며, 본성을 인식하고 · 성인의 경지를 이루어 천인합일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출발선상에서 외부사물을 자기의 반영체로 자각했던 것이다. 즉 주희는 외부사물이 자기의 반영체라는 전제 하에 외부사물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리가 곧 본성임을 확인하고 그 외부사물의 리를 미루어 자기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그의 격물치지론을 전개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희의 격물치지는 선종에서 자아의 본래성품을 여래장(如來藏), 불성(佛性), 또는 성(性)이라고 부르고, 수행을 통하여 분별심에 물들지 않은 본래성품을 보면 곧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명제를 배척하고 유교경전에 의거한 새로운 인식론을 확립하기 위해 전개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위 · 진 이후 남북조 · 수 · 당의 오랜 세월에 걸쳐 유학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불교는 화엄학 · 선학 등 중국인의 체질에 맞는 학적 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당에서 송에 이르는 동안 중국의 사상계를 거의 석권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유학의 부흥을 기치로 이루어진 성리학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사상에 대한 경계와 비판과 배척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중국의 남송 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진 주희의 성리학이 정통유학을 계승하는 시대사상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성행해 왔던 불교사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주희에게 있어서는 시대적 사명이었던 것이다.

특히 불교는 중국에 들어온 후에 중국인들의 사유방식에 맞게 중국화 되었는데, 그 중 화엄학(華嚴學)은 사법계(四法界)이론을 제출하여 본체계(理法界)와 현상계(四法界)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理事無碍法界)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 현상계의 일들이 서로 막힘 없이 관통하고 있음(事事無碍法界)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작용(作用)이 곧 성이라는 설을 제출하는데, 이에 대해 주희는 “불씨는 원래부터 리를 알지 못하여 지각운동(知覺運動)이 성이 되는 줄 안다.(〈朱子語類〉 卷126, ‘釋氏’)”고 하면서 불교가 리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心)을 성으로 혼동하였다고 비판한다. 성즉리(性卽理)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주희의 입장에서 볼 때 불교에서 지각운동을 성으로 보는 것은 곧 기(氣)의 작용을 성으로 보는 것이 되고, 이는 심을 성으로 혼동한 것이 된다.

주희가 말하는 리란 곧 태극(太極)이며 우주의 본체이다. 구체적인 사물에서 보면 태극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주 만물의 본체인 리로 내재한다. 또한 주희에게 있어서 리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리, 즉 인륜의 뜻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희는 불교가 천리를 알지 못해서 본성이 곧 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마음을 성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비판하고, 불교는 작용이나 심을 성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견성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고 보면 주희에 따르면 불교는 리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심성과 수양법에 있어서 정치한 이론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이론일 수 없고, 또한 수양방법과 윤리 문제에 있어서도 참된 이론을 구성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도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리는 주희처럼 본체이자 실재인 객관세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깨침(覺)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깨친 경지’를 개념화시킨 것이 리이다. 다시 말해서, 리는 실재 개념이라기보다는 방편 개념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법’이나 ‘법’이 유학의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나 ‘소당연지칙(所當然之則)’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희가 말하는 객관적 천연의 이치가 실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불교를 공허하다고 비판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불교의 본래 모습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고, 오직 유식무경(唯識無境)의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리와 불교에서 말하는 리는 그 범주가 다르다. 따라서 사실상 서로를 단순하게 리라는 ‘용어’에 천착해서 비교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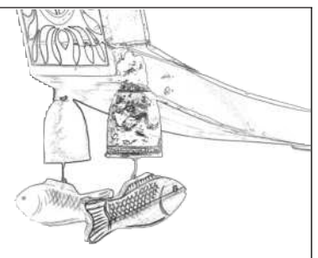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거지달마와 인연을

소승은 시각장애자 71세
무소유 초대종정 대종사입니다
남은 여생 암자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실분을 찾습니다
010-9003-7783

최 면 공 부

주1-2회, 3시간씩,
총 5회, 55만원.
단체환영, 시간,
돈이 없는 분 상담환영
프로최면 강태현 합장
010-9609-191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천 기 누 설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전수합니다
010-9229-3801

무료 공개 강좌

<매주토요일 오후2시~4시>
* 묘심 기공 1시간
건강. 의료 치료 기공사. 손빛 氣치료.
* 역학 강좌 1시간
성명학. 운기 명리학.
까페 : 네이버 : 묘심기공
다음 : 일묘심 약사 선원
전화 : 02-766-1296 / 010-8477-7952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50대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명리,기문둔갑,천기대요

3개월 무료강습
부산.울산.경남.경북지역
비구니스님에한함
<10명선착순>
언양읍 대웅사
052)254-4135
010-3423-4136

불교의식전문

천도재 49재회향
법주1인 범음범패
학인 범패 의식교육
목포인근사찰만 행사 합니다
010-2011-1020

불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경북 울진)
010-8957-47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한가족, 한식구 처럼 함께 할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50-60대까지,
조계종 대구 청계사)
010-3254-8930

천둥 · 번개 · 벼락

- 천둥번개를 부리는 무서운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면접 후에 결정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바꾸는
기도법을 특별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 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직강 : 명리, 중국기문, 태을신수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즉시 상담가능
실전반 스님, 철학관, 영업하실 분
(인연영가 찾는 천도재비법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여자상좌를 구합니다

보연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79번지)
* 사찰에 거주 (주 · 야간)
하실 분
010-8920-5663
031-848-0663
011-888-2727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권 선 문

지장도량에 명부전 건립과 지장보살님, 십대왕 조성불사에 시주 설판이나 화주하여 주시는 분께 10여분 큰스님 작품 20여점을 드리겠습니다. 뜻 깊은 이번 대작불사에 지극한 정성과 큰 자비심으로 도와주시면 평생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큰 인연으로 무량복덕을 지으시고 생사고행을 벗어나서 성불하십시오.
연락처 : 경북 안동 덕왕사 054)853-3855. 010-9890-1237
계좌번호 :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입니다.
기도 중에 전화 연락이 안될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원각 합장

천도재의 빅뉴스

정체불명의 심신장애 등
각종 신기(神氣), 빙의령,
천도재를 본인의 기도로써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말하며
직접 천도를 하게 지도해 드립니다
051-802-5087 대각스님

지리산에서 수만평 약초 재배로 자급자족하는 조용한 선사에 기도정진하며 생활 할 비구니 스님 2분, 처사님을 모십니다

010-4924-372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스토리텔링 힐링약손 치유요법 강좌

-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요일) ~ 12월 11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8시까지 총 9강
- 장소 : 사단법인 녹색연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대구, 수성구 동원로 91 / 3층)
- 모집인원 : 선착순 9명
- 주간 개인지도 : 부처골 지장선원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 2길 136
- 입금 : 농협 703088-51-013554 / 메일 : jijangsw@naver.com
- 강의 : 대체의학 초능력심령치료의 대가 혜봉스님 www.jijangsw.com
- 전수비 : 35만원. 회향하는 지식나눔의 재능기부로 (특별 70% 할인 교육 강좌비)

010-8585-4908 / 054)383-8553
2급 스토리텔링 힐링약손 자격증 취득 가능 / 중점강좌 : 복부, 어깨, 목허리, 오십견, 독소 빼기 / 우울증, 불면증, 빙의, 영적질병, 영동 수기, 족기 치유요법 / 장수 주천도수법 / 영동신기술 (단기 속서지도 가능)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이제부터 기도는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살아 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7일마다 한번씩 20분 정도 쉽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 넣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는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 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서, 이 기도로서 업장과 전생의 빚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운명과 운세가 좋게 바뀌는 것을 경험 하실 것입니다.

전화 주시면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 숫타니파타 -

사 찰 안 내

사 찰
- 위치 : 부산 금정구
- 대지 : 1,000평
- 건물 : 법당, 용왕당, 노상부처님 요사채, 방6개.. 주차장
- 묘땅 : 1억 7천(스님 사정으로..)

※필히 방문 상담, 전화상담요

신도시 사찰
- 위치 : 김해시 주촌
- 대지 : 658평
- 건물 : 80평(법당,요사채,산성각,주차장,텃밭)
- 산세가 수려함
- 가액 : 7억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양도세. 취 · 등록세 전문상담(무료)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지리산줄기 토굴 양도
- 한옥주택75㎡. 토지6,500㎡
- 황토차방등.남향 청정계곡접.뒷산임
- 양도금액 : 3억2천만(조정가능함)

010-4904-3988 (건물주)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조용하고 포교하기 좋은 인법당
- 남향의 따뜻하고 밝은 사찰, 마당약간
- 비구니 스님 수행 전진하기 좋은곳
- 대지 188㎡, 건평 76㎡
- 가액 : 2억 5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커배로 153번길18

051)861-223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 8천

◎ 위치 경기수도권
◎ 종교용지 : 1300평
◎ 법당 : 50평,전각 3채
◎ 요사 : 100평,
◎ 양도 : 15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용인 양지IC 부근 토굴 양도
* 요사채건물 85㎡, 법당은 임시법당
* 토지800㎡ 도로에서 보이며 조용한토굴
* 양도금액 : 토지값 정도로 3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010-4725-590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200만원 (조절불가)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사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동남향
- 지목 : 임야 (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당 10만원 약 2,200평
-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직접)

010-2215-365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 실내 화장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010-8518-5515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소재
- 부지: 800평(종교용지:국유지 650평)
- 법당: 35평(2층 단청)
- 요사채:35평(1층 방3개), 기타: 산신각 등
- 가액: 3억원
- 특징: 청주 IC에서 5분거리이며,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터로 포교 및 기도정진 할 도량으로 정말 좋습니다.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2동 80평
- 기타 : 종무소, 대중공양간(20평) 등
- 가액 : 7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도구성이 잘되어 있는 포교도량 입니다.

※ 전국소재 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대구)010-5848-0455 / 서울)010-5728-0455
동진사찰 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포교원 선원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강남역 인접 역삼역 3분
- 4층 중 4층. 15평
- 보증금 1000만원,월세7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5백만원(절충가능)

010-9019-3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 대지 : 302평
- 법당 20평, 주방 10평
- 요사채 2동, 창고 1동 목욕실, 화장실 1동
- 교통편리하고 주차공간 많음 텃밭도 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882-2897

월10만 4년계약 장기임대 안내

- 위치: 부산시 초읍 중학교 부근
- 신도에 여념치 않고 기도하실 청정(비구, 비구니스님)모십니다
- (부산광역시) 금정산(화지산) 산하 도심속 작은 기도처입니다 개인사정을 절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 (삼존불)모시고 있으며, 예로부터 관음기도 도량으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기도성취 염험도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응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 모든시설은 완벽하며, 방사가 하나인 관계로 (이삿짐이 많으면 안됩니다)
- 시설비 없습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일천만원 / 월 10만원 / 답사후 결정

051)529-2100/011-590-255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20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전원주택(한옥)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 좋은환경,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집
- 황토방, 정자(이민관계로 양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답사후 절충 요함

010-7582-0098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듸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선원(암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조건 : 양방향 대로변 1층
- 법당1,방3,주방1,실내화장실2,욕실3
- 울창한 정원 10평있고, 마당화단 유
- 도심 속 산중같은 암자(약 55평)
- 보증금 1500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800만원대 건강기구 포함)

011-505-9509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시 동구 수정동 (버스정류장) 전철역 1분거리
- 상가 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무량수전, 지장전 등)
- 공양간, 방 3개 등 생활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10-6413-04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 면적 : 총 55평
- 법당구조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소불
- 음향시설, 방2개, 거실, 공양간 시설은 A급. 몸만 오세요
- 가액 : 보증금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2,500만원

010-2610-9997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달동 874-4번지 3층 (교보생명 빌딩 뒷쪽)
- 평수 50평, 법당, 방3, 주방, 화장실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100만원

010-8928-9494
010-7132-9157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1층 건물 100평
- 시설일체 특
- 주차시설완비, 온천수 펑펑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010-3574-3303 스님
010-3577-9947 보살

사찰(급)안내

- 위치 : 북진천IC에서 2㎞ 2분거리
- 평수 : 202평
- 층구조 : 2층 건물 (아래채 요사채, 윗층 법당)
- 수도 : 지하수
- 난방구조 : 심야전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8841-56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산세수려하고 소나무 경관 멋진도량
- 마을 앞 4차선 확정 5분거리 면 소재지 IC 확정
- 지적4,460평 종교부지838평, 전70평
-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 구돌방 1개, 요사채 22평 외 토목공사
- 가액 : 2억8천

010-8484-3917
010-2757-2342

사찰 암자 기도터 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2길 484-3
- 면적 2,000평, 법당, 요사채
- 산신각, 용왕전, 미륵전, 기도방 2동
- 뒷산 밤나무 100주(매년 수학)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 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 지상물 일체포함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3억

011-278-944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 평수 35평, 3층 건물의 3층 외 방1개, 옥상 30평 이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 칠성탱화, 영가단, 앰프 및 최신시설 완비
- 냉장고, TV, 컴퓨터, 에어컨 등, 주방집기 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6403-37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시청 부근
- 대지 78평(건물 70) 3층 전체, 옥상전체사용
- 4존불, 보물급후불탱, 삼성각 별도 위치, 음향시설, 에어컨 4개, 방3개, 종무실1, 후원, 다실1, 옥상창고25평. 몸만오시면 됨
- 현 불교대학 명상센터 방편 있으신 분 유리
- 가액 : 전세금 2,000만원, 월 40만원
- 집기 및 시설비 상호절충 시설 최고(개인용품 제외)

010-8737-458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내
- 삼존불, 지장전, 신중단, 소불 200불
- 2층 건물 2층전체 75평
- 교통편리, 역세권 공항 15분, 기차역 5분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248-3562

명당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사 찰 안 내

- 제주도 서귀포시 돈내코 초입에 위치한 숲속의 사찰
- 큰법당. 산신각, 요사채(5칸), 주차장, 인터넷 등 설비 완비
- 가액 : 1. 전세: 5천만원
  2. 보증금 3천만원 + 년세300만원(1,2항 중 선택)
  3. 비품,시설비 없음

010-5214-7872(스님)
010-5816-5623
064)762-4690(책임자)

토 굴 안 내

- 위치 : 중부 곤지암 IC 10Km (제2영동 고속 동광주 IC 6km, (성남-장호원 고속국도 IC 3km)
- 대지 147평, 건물 (1층 40평, 2층-20평, 복층식)
- 사진은 문자로 보내드림
- 가액 : 2억 3천

010-2887-5764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물금역 2길-12 기차역 3분거리
- 3층건물 3층 (옥상 사용 가능)
- 50평 미타전 지장신중단 큰방2,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8475-7982

포교원(임법당)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복산동 598-3
- 법당 : 지방보살 1불, 1층 단독, 방4개
- 주차시설완벽 살림도구 일체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300만원 월세 25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8789-9794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주안 1~2분사이 가정법원,등기소 1분거리내 아파트 대단지, 사통팔달 교통 편리, 지하철역 근접 2분거리내 카페 골목, 시장 복지관 사이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010-8941-1484

생각사용 설명서

전현수 박사 (정신과 전문의)

〈6 · 끝〉 나를 사랑하기

"남에게 도움주면 나에게 좋은 일 생긴다"

나의 가치를 알면 열등감 없어

자기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전혀 동요가 없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열등감은 있을 수 없다.

불교 경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어느 날 붓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친 말과 욕을 했다. 붓다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갔다. 제자들이 모여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붓다가 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투로 이야기 했다. 그러자 붓다가 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물었다. 제자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다 듣고 난 뒤 붓다는 "오늘 일은 다음의 비유로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상에 먹을 수 없는 것이 올려져 있어 먹지 않고 돌아오면 그것을 누가 치워야 하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니 제자들이 "당연히 상을 차린 사람이 치워야 합니다." 했다. 이에 붓다는 "오늘 일이 그와 같다."고 대답했다. 붓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않는다. 붓다는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고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흔들릴 수 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봐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수가 있다.

언젠가 여행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도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가치가 있다. 우리 모두는 진품이다. 모조품이 없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런 점에서 가장 독창적이다.

정신 건강한 사람은 조화 찾을 줄 안다

정신 건강은 자신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그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생의 괴로움은 갈등이 있을 때 온다. 갈등은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생긴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괴롭다.

나에게 치료받았던 40대 초반의 남자는 친척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중견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의욕이 없고 잠이 잘 오지 않아 나를 찾아왔다. 자기에게 왜 그런 증세가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자세히 물어보니 그럴만한 원인이 있었다.

이 사람은 맡은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격이어서 이전 직장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 현재 친척 회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전에 일하던 회사로부터 다시 와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조건도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친척의 회사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갈등이 병의 근본 원인이었다.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의 병이 완전히 낫기는 힘들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을 때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몸은 여기에 있고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을 단념해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은 안정되고 중심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고 주체성이 뚜렷하여 주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신을 실제로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다. 자신을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서 하고,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남이 안 좋게 보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함부로 하게 된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아무렇게나 하게 된다. 자신이 나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개의치 않는다.



> 우리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 각자 나름대로 가치 갖고 있어
> 자신에 대한 확신 없으면
>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려
>
> 두가지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
> 한쪽 단념해 결정내리고 책임지면
> 흔들리는 마음 안정되고 중심잡혀
>
>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 자신에게 손해 보는 일 안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남에게도 그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좀 전에 인용한 붓다의 말처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도 함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게 된다. 인간관계가 나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경전에 좀 전에 등장했던 빠세나디 왕이 붓다에게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고요히 명상하는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일까?'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든지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을 듣고 붓다는 왕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시로써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알면 자신을 악한 행위에 묶어두지 마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 어렵다." (〈사랑스런 사람 경〉, 쌍윳따니까야 1권 268~271쪽)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 보는 일을 한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 즐거움을 안다.

붓다에게 배운 마음치료 이야기

나는 평소 불교가 넓은 의미에서 정신 치료이고 붓다는 위대한 정신치료자라고 생각해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외아들을 잃고 거의 실성하다시피 하여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울부짖음 같은 목소리로 길거리에서 지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 아들을 살려내 달라고 했다.

그러다 어찌하여 붓다를 만나게 됐다. 붓다를 만나서도 막무가내로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내 달라고만 했다. 그러는 여인을 붓다는 처음에는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여기서 잠시 오늘날 이런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도 그 여인이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이고 그래서 나와 같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됐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극도의 격앙과 혼란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는 진정제로 재우거나 그렇지 않고 좀 더 여유가 있거나 정신치료에 관심이 있는 정신과 의사라면 그 여인의 마음이라도 좀 가벼워지도록 대화를 통해 감정을 뱉어낼 수 있게 시도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도 그 여인의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살려내 달라고 울어댈 때,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으로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아픔에 몸을 떨 때 우리는 대꾸할 말을 잊고 무력감 속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진정제가 필요할 때다 하며 약으로 그 여인을 재울 것이다. 한숨푹 자고 나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하고 기대한다. 그 이상의 뾰족한 처방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부딪칠 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붓다는 어떻게 했는지 2천 5백여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붓다는 한참을 침묵으로 있다가 먼저 그 여인이 가장 갈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뜻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소. 단, 내가 시키는대로 한다면…"

그러자 여인의 눈에 희망과 생기가 돌고 날듯이 기뻐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빨리 말해달라고 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이 죽어 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한 줌을 얻어오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소."

그 여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사로잡혀서 자기만 아들을 잃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 없이 사는 줄 알고 금방이라도 겨자씨를 얻어 그렇게 보도 싶은 아들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쁨에 쏜살같이 그곳을 떠났다.

몇 시간이 지나 그 여인이 돌아왔다. 빈손이었지만 손은 축 늘어져 있지 않았다. 얼굴에는 몇 시간 전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시고 차분함과 안정감 그리고 어떤 의미를 자각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 여인은 붓다에게 삼배를 하고는 말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 혼자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집마다 누구나 다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지만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통함으로 제 마음이 괴롭긴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저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불교 교단에 출가를 한다.

이 경전을 보면서 나는 붓다의 정신 치료자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보았다.

고통 속에 놓인 사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 문제의 핵심에 대한 확실한 통찰,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정신 치료적 해결 과정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치료 후 문제해결 및 증상의 해소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해마저 하게 돼 그 여인의 인격이 그 전보다 더욱더 성숙하게 된 것은 – 그것도 단 한번의 치료로–위대한 정신 치료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수년간 수백 시간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인격의 변화를, 붓다가 단 한 번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불교가 정신 치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붓다가 위대한 정신 치료자적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전현수 박사의 〈생각사용 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 최고 자리
- 위치 : 부산 기장
- 대지 661㎡(200평)
- 건물 495㎡(150평)
- 은행 2억 5천 안고 3억 5천 인수 급안내

(주)한길부동산중개 연제구 서보호. 이세하
010-3808-4499
925-3800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 IC 10분거리
- 유명한산 칠부능선
- 365일 1급수물 사시사철 흐르고 옹달샘 있음
- 가옥40평, 25평 2채
- 땅 평수 : 8,500평
- 터를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 경기 충남지역 상가와 물물교환 가능
- 가액:9억8천만원

010-4130-060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전 1,000평, 대지120평
- 임법당 18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3평(친견실 및 방3칸)
- 공양간 및 아래 요사채(방3칸)
- 가액 : 비품대 300만원 월세 10만원(보증금 없음)

010-6707-604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구로동 7호선 남구로역
- 3층 건물 2층
- 30평, 삼존불 등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5597-72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항동
- 3층 건물 2층
- 38평 대로변
- 가액 :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5만원

010-7314-8732

토 굴 월 세
- 위치 : 하동군 북천면
- 방 3, 창고 2, 에어컨 1
- 임법당, 천수천안 관음
- 몸 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보증금 1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400만원

010-4608-2628

포교원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닦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조절가)

010-9317-91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구미역 후단지
- 포교원 포교활동 기도도량 최적지 (금오산 정기 받을 자리임)
- 대지 60평, 건평 85평 3층건물
- 3층 포교원, 옥상 기도참선 최적지
- 1,2층 임대수입 : 보 8천만 월 75만원
- 융자 7천 3백만원 있음
- 가액: 5억 7천만원. 시 권: 15천만원
- 합 7억 2천만(자부담 5억 6천 7백만원)

010-3851-000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 거리
- 건물 :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 수목장, 등 적지)
- 가액: 6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음성 감곡면 영산리
- 총평수 약 200평, 건물 법당 요사채 방3
- 공양간 화장실 2개, 창고 1, 텃밭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없음
- 오랫동안 사용가능
- 주지스님 이주 관계로 급 안내 그리고 내부시설 협의 가능

010-3293-1705

사찰 토굴 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400평. 건평 70평 (인법당20평, 방 6)
- 뒤에산, 전철, 버스, 온천인접
- 텃밭, 주차완비, 즉시법회, 명상센터 적합
- 가액: 4억5천만원

010-6559-0913

청주시내 사찰 안내
- 대지 60평, 건물2동, 요사채, 대웅전
- 주지실, 방4, 대불190㎡ 3불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 등500등, 2층1m동16나한전, 심야전기, 차고
- 최고 음향시설, 방송실
- 꼭 하실분만 연락하세요
- 가액 : 3억. 절충가능

010-9546-2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 한옥 : 40평
- 아미타 삼존불 소불(옥불) 73불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381-08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서구청뒤 대평리 시장
- 3층 건물중 2층 약 4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시설 갖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천 5백만원 (조절가능)

010-9363-229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2층 공양간, 3층 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두 반송 2동
- 평수 : 50평, 4층건물중 4층... 정원이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전세: 3,000만원 .. 월 20만원 또는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레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포교원 안내
- 위치 : 사천시내 중심지
- 평수 : 6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 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절터자리로 좋은 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사계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음
- 토성작업이 완성된 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외
- 가액 : 4억(현세에 맞지않음)

010-6253-3107

별장지 및 사찰터 최적지
-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백두대간 예천테라피 자연 치유공원내
- 별장,사찰 최적지
- 사철계곡에 물이흐르는 자연경관 최적지(도로접)
- 답 1800평(평당가 33만원)
- 답 1900평(평당가 18만원) (당가 절충가능,주인직접)

010-2608-7277

갤러리 색즉시공



바라보기

"당신의
온전한 성품에
마음 모아
합장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입니다.

지금…!"

그림·글 희상 스님

행복과 향복

〈幸福〉 〈享福〉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내가 주인공' 긍정적 삶 필요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해"

지금 여기, 현재에만

파스칼은 "병도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유방암 초기에 수술을 받고 요즘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다. 인생의 파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사람은 파도타기 속에서 성장해나가지 않는가. 파도가 격렬하게 출렁이며 지나가면 수면이 고요해지듯이 삶에서도 거친 파도가 칠수록 내면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생을 축제처럼, 순례처럼 여기며 살기를 기원한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선에 흔들림이 없으면 된다. 나는 '덥다' 소리, '춥다' 소리를 잘 안한다. 상처에 적당한 약을 써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그때마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구나, 업을 소멸시키는구나 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스스로 그것을 축하한다. 누가 해주길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선물한다.

가급적 재미있는 일을 만들며 살려고 한다. 순간에 그치는 기쁨이라 하더라도 좋은 업으로 상승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엄마 안 힘들어?"

친구들과 산에 가려고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자 아들이 배낭을 달라고 하더니 끈이 짧다며 늘려주었다. 순간 행복한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들이 행복해야 집안 자체가 행복해진다. 집에 오면 엄마가 얼굴 한 번 찌푸리거나 한숨을 내려쉬지 않아야 한다.

인생은 자기가 연출한 무대 위에서 배우로 사는 것이다. 자기가 만족하면 주연 배우가 되어서 엑스트라까지 다 하는 것도 되는 것 아닌가. 만족하면 무대에서 내려와도 즐거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는 자기 인식, 긍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탕이 안 되면 영원히 즐거울 수가 없고 남의 것만 구경하다가 마는 것이다.

다음은 〈신심명(信心銘)〉에 있는 내용이다.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도는 화통해져 명백히 드러난다. 간택을 싫어하고 증애가 없는 마음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의 간격으로 벌어진다. 지극한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순과 역이 있게 하지 말라."

자주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좋아한다' , '싫어한다' 는 생각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며, 이것이 바로 윤회의 바퀴를 돌게 한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기대하지 말며 현재에 사로잡히지 말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

요즘 내 마음속에 있는 잠언이다.

네 덕 내 탓

'나 혼자 좋은 것' 은 행복이고, 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줄 수 있는 것은 향복의 단계다.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나는 늘 아이들에게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 "그 아이 어디가 좋았니?" 하고 물어보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게 좋았어."

"어떤 배려심?"

"우리 집은 풍족한 집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나를 만나더라. 그게 배려심 아닐까?"

사돈을 처음 만나던 날 그 말을 전하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가 좋다고 하던가요?" 하고 물었다.

"언제 보아도 한결같다고 하더군요."

앞 뒤 중간이 다 좋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사돈이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우리 딸이 살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유모, 침모, 찬모 다 있었어요. 노후에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들이 새로운 모성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저희들끼리 잘 살면 족할 뿐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처음 만나던 날, 며느리가 될 아이의 모습을 보니 나의 처녀 적 모습을 보는 듯 했다. 후에 우리 집에 놀러온 예비 며느리를 여동생이 보더니, "너희 엄마 처녀적 모습과 똑같다."고 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모양이다.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밖으로도 빛이 난다. 며느리를 보니 언어가 반듯했고, 깊이가 있어보였다. 나는 두 아들을 생산하러 이 세상에 왔고, 며느리는 대보살 노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믿고 있다.

상견례 때 "저는 아들 둘을 교과서대로 키웠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차를 오늘도 타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위가 문을 열어주는 차를 타세요."하고 말했더니 고마워했다.

얼마 전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전문의 되고 나면 엄마한테도 용돈 주고 싶어요."

"엄마는 비바람만 피하고 밥만 먹으면 돼. 너희들 끼리 잘 살면 돼."

남들은 자식 키워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좀 억울한 얼굴을 하는데, 좋은 일 좀 시키면 좋지 않은가. 결혼 후의 삶은 그 애들의 문제이며 나는 그 애들이 세워놓은 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실천할 뿐이다.

사돈이 천주교를 믿어서 묵주 두 개를 사서 "열심히 믿으세요."라는 마음으로 함에 넣었다. 우리 아들을 사돈댁에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보냈더니,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흐뭇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 밉기도 한 것이다. 며느리 나이에 나는 무엇을 알아서 제대로 했겠는가 생각하면 아무런 불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밥을 태웠다. 어쩔 줄 모르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내가 두터운 솥을 샀어야 했는데 밑이 얇은 솥을 사서 네가 밥을 태웠구나." 하고 미안해 하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내가 갓 시집을 왔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밥을 시켜서 탔구나. 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무랐다. 이번엔 새신랑이 나섰다. "내가 누룽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색시가 누룽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밥을 태웠으니, 제 탓입니다."

이처럼 각자 자기 탓이라고 여기면 그 집엔 불화가 없다. 화합은 천신도 찬탄한다고 하지 않는가. 평생 마음공부만 하신 스님들도 돌아가실 때 상좌들에게 "화합하고 살라"는 말씀을 남긴다고 들었다.

"엄마 피곤하시죠? 누워 봐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결혼한 아들이 잠깐 다니러 와서도 그렇게 말하고 어깨며 등을 주물러 주면 족하지 않은가.

며느리는 큰 보살의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내 삶보다는 나을 것이다. 아이들을 긴 호흡으로 키우면 좋은 인연이 된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를 닮는다. 알고 지내는 거사님의 얘기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여자 친구가 아이를 가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딸처럼 받아들이세요. 아드님의 여자 친구도 그 집에서는 기가 막힌 딸입니다."

거사님은 아들의 여자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가 학교에 다니게 하고, 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아이를 낳게 했다. 아들의 학교에 찾아가니 무슨 운명인지 자신의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아들의 담임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선생님께 술 한 잔을 내고는 나에게 와서 "우리 부부도 고3 때 아들을 임신해서 부모들의 눈을 피해 고향에서 도망 왔다"고 고백했다. 아들의 일로 심란했던 두 부부가 설악산 봉정암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그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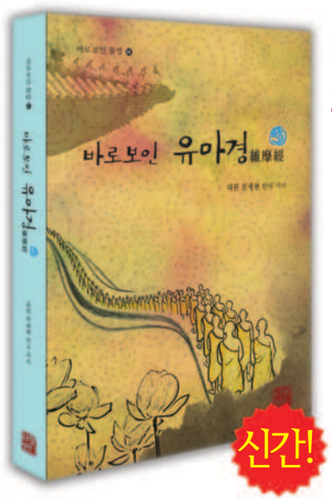
"네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살이 되었겠느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귤 하나 건넸는데,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기에 나가보니 길에서 귤을 건네주었던 사람이 사위감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자식들은 엄마가 인욕하고 살아온 세월을 모르지 않는다. 엄마가 인욕하고 산만큼 잘 커준다. 불교를 접하고 나서 보니 우리 집이 수행처이고 극락이었다.

〈여여원 원장〉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67권째 저서 출간!



바로보인 유마경
신간!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행 스님

부처 중생을 다 집어삼키는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데는 한 달, 한 달이 있고 날이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앉았던 때가 바로 이 자리라고 봅니다. 사람은 항상 날짜를 따지고 월을 따지고 년을 따지고 하지만, 불바퀴는 시공이 없이 항상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바퀴라는 그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나깨나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화두 참구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것 자체가 화두입니다. 화두가 따로 있어서 내가 화두를 딴 사람한테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북하면 부처 중생을 다 집어삼키는 공부라고 했겠습니까.

그대로 여여한데 그럼 왜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하느냐? 이런 게 또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그 사실, 또 내 자체가 화두라는 거, 그리고 와선이나 입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이나 이것을 한데 합친 것이 참선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動靜)' 이라는 말 자체도 바로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 두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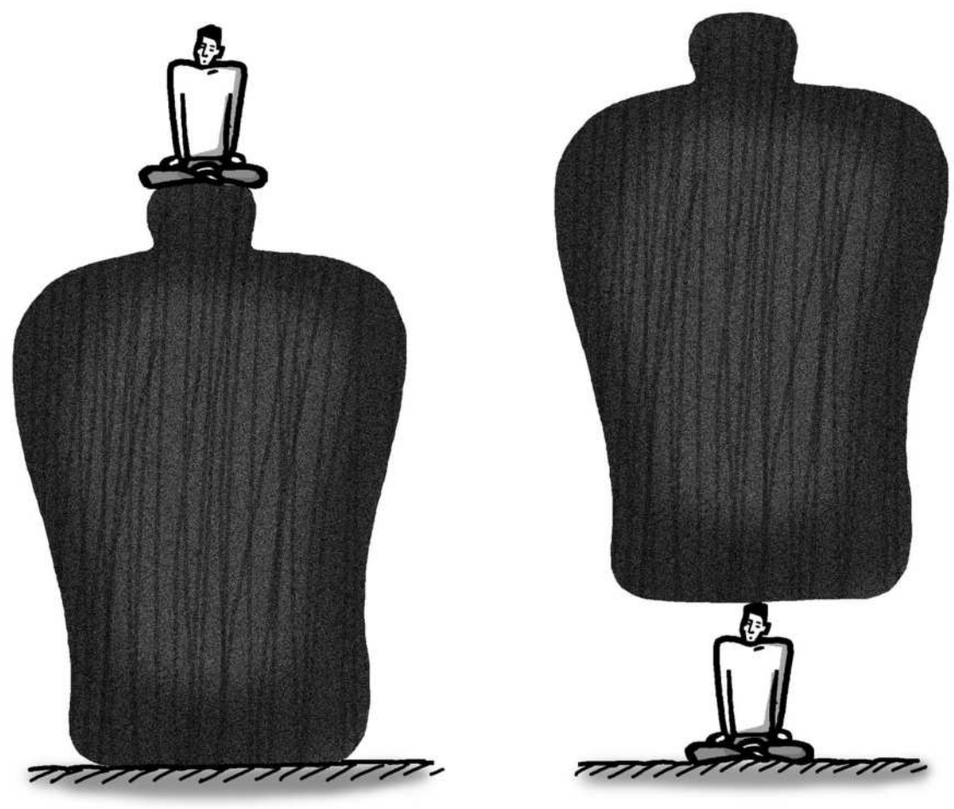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오늘 여러분께서 하실 질문 요지를 수합하여 제가 대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불성이 있었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 불성이 온갖 무명(無明)을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태초부터 무명이 있었다면 중생에게 어찌 불성이 있다고 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불성이라는 것은요,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성이라면 그 생명의 근본은 전체에 같이 돌아가는 평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이 세상이 직결이 돼 있고 세상은 가설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그렇게 같이 돌아가지만 그 외에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의식 자체가 천차만별로 돌아갑니다.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중생(下衆生)은 나쁘고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쁘고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든 중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다스리면서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본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이 영혼 자체가 살아나온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 업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자기 자성(自性)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과 현실에 사는 자기가, 즉 말하자면 같이 합류화돼서 작용을 해야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1(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겨라, 맡겨라 하시는데,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온갖 망령된 장난일 뿐이라고 이해됩니다. 맡긴다는 생각도 망념의 한 가지일 것인데, 망념 사량으로 주인공에게 맡겨서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지 저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은 도인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허허허…. 첫째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두 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세 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에서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명을 벗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든 모든 의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 상대성의 끈에, 인과의 끈에 의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째는 주인공이라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중심을 꿰어야만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말입니다. 차도 중심이 있으니까 바퀴가 굴러가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없으면 목석이죠.

그래서 가는 것만 알았지 오는 거를 모르니까, 오는 거와 가는 거를 한데 합류화시켜서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은 중심을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입니다. 이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건 내면에서도 한마음이요, 모든 내면세계의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도 '나' 아님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 하고 세워야 그 끈을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잡고 실험도 할 수 있고 그걸 잡고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수련하는 것은 맡겨 놓는 작업입니다. 숙명통이 컴퓨터라면 거기에 입력이 돼서 악업 선업이 자꾸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가 되맡겨 놓아야만이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놓고 이래야만이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져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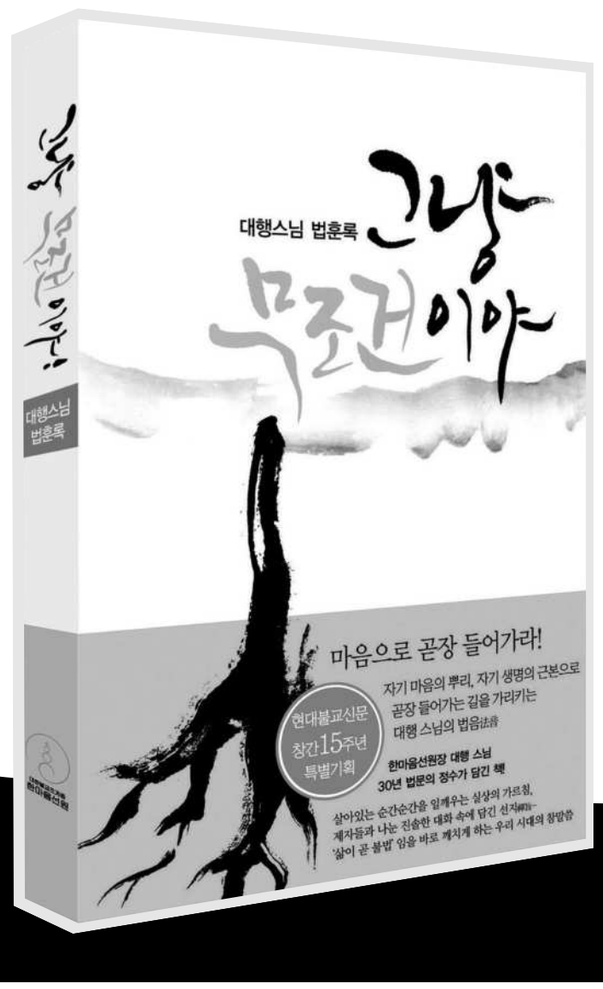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질문자1(남): 여쭙기 황송하오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큰스님께서 발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발심하셨는지요. 그리고 닦아 이루셨을 때의 체험은 어떠하셨는지요.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스님: 아, 질문도 참 묘하게 하시는군요. 허허허…. 저는요, 아홉 살에 남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 불러 봤습니다, 어떻게 엄한지…. 그래서 (가슴을 가리키시며) 여기에다가 아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인데 늙고 젊고가 따로 있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갈 거라면 차라리 그냥 가는 게 좋겠지.' 하고선 뭐, 죽고 사는 건 염두에 두지도 않고요.

남의 집을 살다 보니까 고생이 돼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어도 아빠를 부르고 울었고, 고독해도 아빠를 부르고 울었죠. 그때는 물통에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일 전을 가지고 물을 사면 고련씩 요만큼씩한 표를 주었는데, 표 하나씩을 가지고 한 지게, 두 지게 요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지게를 져야만이 그 집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살, 열 살, 열한 살이 되기까지 그것을 져 날랐습니다. 그것만 져 나른 게 아닙니다. 엄마 없는 아이가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공부를 해서 꼭 자기 자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 애를 업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곤 했죠.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업고 자고, 온통 야단을 하고 울면 같이 울고, 그렇게 아빠에게 맡기고 했는데, 그 애를 주려고 과자를 사 놓은 걸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 사정은 일일이 말로 다 못 합니다. 그런 거를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만 붙들고 울었을 뿐이죠. 이걸 얘기를 하려니까 그 얘길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저 모든 일체를 다 거기에 맡겨 놓고 했죠. 물을 길러 가도 신발이나 좋았습니까, 어디? 게다짝이죠. 또 게다짝이 닳아서 못 신으면 짚신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이 다 엎질러져서 옷도 다 젖고 그래서 귀퉁이도 무척 쥐어박혔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니까 한 모금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저 바깥에 나가서 뜨뜻한 물도 없이 기저귀를 빨아서 전부 철망에다 널어야만 했습니다. 그럭하고 나면 손이 얼어 부풀어서 그냥 뭐, 막 아파서 죽겠죠. 시린 게 아니라 아파요. 아픈 거를 꼭꼭 쥐고서 거기다 맡겼죠. 그저 그때서부터 거기다 맡기는 것을 내내 하면서, 밤이면 밤대로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나같이 어려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밥을 굶는 때가 많았습니다. 아주 뭐 밥 굶는 사람이 늘비했죠. 그러니까 있는 곳간에 가서 보이지 않게 훔쳐다가 어떡하면 저 사람네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내면에 맡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죠. 허허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내내 그렇게 돼서 8·15 해방이 되기 전이니까 열여덟 살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감응은 왔지만 정말 열여덟 살에, 지금으로 치면 깨쳤다 그러지만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나'가 혼연히,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왔고, 그 아빠는 반드시 나를 리드해 줬습니다. 항상 그저 잘못된 거면 잘되게 다스려 주고 또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네가 일할 때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일을 안 할 때는 네가 나와 하나가 되고,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子)가 부(父) 앞으로 가면 부와 하나가 되고, 부가 자 앞으로 오면 자와 하나가 되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그때에 생각하기는 체가 없는 마음이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부와 자는 둘이 아니다. 그건 체가 없어서 그냥 이 몸도 움죽거리게 자꾸 이끌어 주면서,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둘로는 안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고 갔는데 그 후에 날이 퍽 추웠습니다. 날이 퍽 추우니까 "여름이 옳은 거냐, 겨울이 옳은 거냐? 겨울이 좋으냐, 여름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여름과 겨울이, 사계절이 어떻게 둘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사람이 춥다 덥다 하는 거지 진리라는 건 춥다 덥다가 없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천지가 한데 합치는 거 같았습니다. 산하 대지가 일제히 전부 손끝을 한데 모으고 (합장해 보이시며) 그냥 전부 그러는 게 보이면서, 천지가 그냥 하나로 뭉쳐져 버리면서 차츰 차츰 차츰 작아지면서, 불덩어리가 작아지면서 그냥 불덩어리 구슬이 돼서 그냥 팡! 일어나는데 그때에 놀랐습니다.

그럭하고 난 뒤에 무척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천(天)은 지(地)를 다스리면서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을 다 기르는데, 제가끔들 천차만별로 마음에 따라서 저렇게 짓고,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하니 참 너무도 기가 막히구나! 나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데, 왜 저다지도 저런가?' 하는 생각에서,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하여튼 무척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것처럼 또 싱긋싱긋 웃고 다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 나와서 가는 길만 알았지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지, 가는 길을 알고 오는 길을 안다면, 그게 양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겁니다, 싱그럽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고생하는 거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살, 8·15 해방되고 나서 입산을 해서 스물세 살, 즉 말하자면 6·25나던 그해 3월 달에 계(戒)를 받았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말을 영 못 하다가 이 근래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허….

질문자2(남): 큰스님,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도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티베트 왕사인 달라이라마 스승이 환생하셨다는 링린포체라는 동자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 사찰을 순회하면서 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보고 의정이 난 것은, 제 소견으로 천도재는 조상님이 열반하시고 나면은 다시 환생하기 전에 '좋은 곳으로 환생하십시오.' 라는 후손들의 간절한 뜻으로 지내는 재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링린포체처럼 새로운 육(肉)을 받아서 금생에 다시 태어났다면 육과 종전에 조상이었던 영이 하나가 돼서 금생을 지나가는 어떤 동자승일 텐데, 그 동자스님이 어느 날 다시 육으로 금생에 살다가 홀연히 육에서 빠져나와서 전생의 자기 자손들 한테 가서 해도 끼치고 또는 복도 좀 주고 가르침도 주고 해코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천도재는 지내는 시기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렇게 인도환생한 이후도 자손들이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재를 계속 지내 드려야 옳은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큰스님: 조상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모의 천도를 시키는데, 부모가 전자에 살면서 그 의식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세생생에 끄달리는 거죠. 그런다면 그게 왜 끄달리느냐? 내 몸체가 죽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모르고, 아주 캄캄합니다. 눈이 뜨이지도 못하고 귀가 뜨이질 못해서,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 몸속에 있는 인과로부터, 그 수없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내 모습과 모든 것이 그전에 살아 있을 때처럼 있는 줄 알고 강을 못 건너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有)의 세계에서 무(無)의 세계로 건너가야 할 텐데 건너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져 죽을까 봐, 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갑니다. 셋째, 이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서질 못하는 이유는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버릴까 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관습이 남아서 돌아가니까 첫째, 강 주변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언덕을 넘어서야 할 텐데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배 오기를 기다리는데, 천 년이 가도 그만이요 만 년이 가도 그만이다 이겁니다. 한 생각이면 건너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를 이 생시에 몰랐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렇게 모른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줄 알고 친척이나 아들이나 딸한테로 맴을 도는 거죠, 넘어가질 못하니까. 맴을 돌면서 자기는 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왜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먹을 것도 저희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부모가 자식을 해코지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이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 죽어지면 사대(四大)는 흩어지고 마음은 저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대가 무너지면 훨훨, 그냥 여여할 텐데, 살아서 여여해야 죽어도 여여한데 그렇지 못하고선 그냥 발버둥일 치고 분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저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조상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던 조상,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본은 첫째, 불성을 말하지만, 영혼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던 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천도를 시키면은 활짝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죠. 스님마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천지를 다 간파하고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간파해서, 정말 콧구멍 없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또 콧구멍 있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작용의 에너지가 광력을 이루듯이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모두 이렇게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산 사람 영혼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천도를 하면 좀 더 마음이 완화되고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니까 조상들의 마음도 한마음으로 맡기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영가들도 마음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가 없이 탁 거기에 안치가 되니까 전부 알겠거든요. 아니까 그때서야 편안한 감을 가지고, 거기서 굴려 나가서 천도가 돼도 거기서 미리 알고 나갔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말 '무(無)'와 '유(有)'의 세상을 잘 알고 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염불할 때도 영가들은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압니다,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왜냐? 스님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사다가 차려 놨다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가들도 그것만 알고 갑니다. 그러나 지금 천도를 시키는 스님이, 이 우주 전체를 섭렵하고 타파할 줄 아는 그런 스님이 탁 열고 할 때는 전부 이 세상의 모둠떡을 하나로 먹고선 천도가 되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든가, 마음으로서 수천수만을 거느리고서 회사를 경영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가, 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는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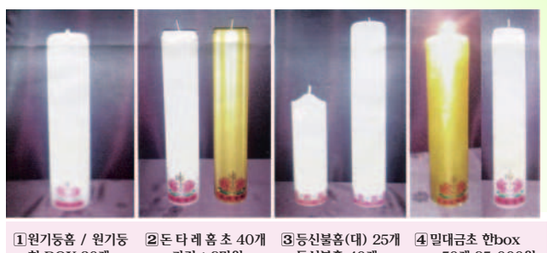
상대성 원리의 작용이라는 것이 인연줄에 따라서 나쁘게 악으로 가느냐, 인연줄에 따라서 선으로 가느냐,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시키는 스님네들도 이 도리를 알고, 지내는 사람도 이 도리를 알고 해야만이 삼천대천세계에 이르기까지 공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서 천도를 하신다면 세상에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을 줄 수 있고, 너무나 자기를 밝게 볼 수 있고 밝게 뛸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공덕입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한다는 것은 맡겨놓는 작업입니다.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되어 악업 선업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현실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놓으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놓고 이래야만이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져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삼보양초



①원기둥홈 / 원기둥 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출시예정 11만원)
②돈 타 레 홈 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홈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등신불홈(대) 25개 등신불홈 40개 한 BOX · 가격 : 9만원
④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 원 사 주지 도명 합장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산사음악회와 북콘서트가 손잡으면



이미령
불광불교대학전임강사
북칼럼리스트

가을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가을은 축제, 잔치의 계절이다. 여름내 무더위에 찌들어 숨을 헐떡이던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 기지개를 켠다. 밖으로 나가서 서늘해진 공기를 폐가득 들이켜고 저 높은 하늘 어디쯤에 눈길을 던진다.

가을에는 그래서 산사음악회가 제격이다. 고즈넉한 사찰에서 종일 파란 하늘과 고운 단풍을 감상하다가 석양도 빛바래고 단풍도 지칠 즈음이면 악기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대기에 퍼져나간다. 어느 해인가 나는 강진 백련사에서 재즈를 들었고 가야금산조를 감상했다. 심장을 통 치는 가야금 가락이 지금도 생생하다.

세속의 소음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산사에 가장 세속적인 음악이 더해졌는데 그 둘은 아주 잘 어울렸다. 기가 막힐 정도였다. 도심에서 정신없이 뺑뺑이 돌며 지내던 일행들은 사찰에서 재즈와 국악이 어울리는 그 순간에 극락을 경험했다고 한다. 극락을 경험할 기회가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불자 아닌 사람들 중에는 등산을 하다가 산사음악회를 보았다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산사음악회는 사람들을 저절로 절로 불러들이고, 나아가 그들을 불교와 작은 인연 맺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연 속 사찰마다, 도심 속 사찰마다 아름답고 나직한 음악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음악회에 책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람들은 책을 즐기고 싶어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책을 '공부' 로만 만나왔다. 책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그러다보니 책은 어렵고, 무겁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은 책을 펼쳐 읽기도 전에 책을 멀리했다. 그러잖아도 이놈의 사바세계, 고단하고 퍽퍽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책마저 인내를 강요하고 시험하려 드니 그걸 반길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이걸 눈치 챈 사회 일각에서 책을 공부거리가 아니라 즐길 거리로 변신시켰다. 도서관이 문턱을 낮추고 편안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저자들은 근엄한 양복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음악을 곁들이고, 토론 대신 수다로 책을 말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대중에게는 독서 토론회보다 북카페에서 열리는 북콘서트가 더 호소력이 있다.

세상에나…. 책을 카페며 콘서트와 콜라보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으랴. 이건 산사와 음악회가 만난 것만큼이나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제 산사와 음악회가 만나는 그곳에 책의 자리도 마련했으면 한다. 그 책이 시중의 베스트셀러라면 좋겠다. 일반대중의 관심이 모일 테니까. 하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불서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상상해보자. 주지스님이 대중들을 향해 잘 오셨다는 인사를 건네면,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그 음악이 잠시 잦아드는 시간에 북콘서트가 이어진다. 진행자는 저자에게 그 책을 어떤 동기에서 쓰게 되었는지를 물을 테고, 저자는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를 책에 풀어놓았노라고 답하리라. 저자의 자기고백적 이야기를 듣다보면 '불교책' 하면 무조건 '어렵다' 라고 생각하던 독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겁을 먹지 않을 것이다.

묵묵히 자기 분야에 몰입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탑을 쌓듯 한 권의 책을 완성한 저자의 자기 이야기를 듣기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사찰 말고 또 있을까?

저자의 이야기가 조금 지루해질 즈음 멋진 연주가 흐르고 직선의 활자와 곡선의 가락이 섬세하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뻣뻣하게 긴장해 있던 몸에서 힘을 빼고 마음을 푹 내려놓을 것이다.

시중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는 산사, 각계각층의 필자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산사, 불교서적이 독자를 만나는 산사, 스님필자나 불교전문필자가 책 속 한 대목을 설명해주고 자기 책을 낭송도 하는 산사, 그러느라 뻑뻑해진 목과 귀를 음악이 나직하게 흐르며 갈무리하는 산사….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불자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불교서적이 안 팔린다고? 사람들과 책이 만날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초대해보자. 분명 사람들은 즐기려고 모일 테고, 이런 축제라면 대웅전의 부처님도 나한전의 나한님들도 호기심이 동하시리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차드 멩 탄 방한과 불교

세계평화는 내면으로부터



황수경
명상리더십 센터장

차드 멩탄은 명상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각국을 다니며 세계평화를 이루자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국가정책이나 사회구조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마음을 바꾸어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마음을 바꾸어 평화를 이룬다? 이것은 우리 불교의 이야기다. 돈과 경쟁을 추구하는 기업에 소속된 직원에게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차드 멩탄은 싱가폴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구글에 발탁됐다. 미국 본사로 온 후 임원까지 됐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도 충분히 많이 벌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런데 사실 상 별로 큰 행복감은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스님의 뇌파 측정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가 측정된 것이다. 그 스님은 그때 자비 명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는 마음을 입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의 행복을 바라는 상태가 최고로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멩탄 씨는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전 행복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지위, 그 어떤 조건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말하게 됐다.

그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마음을 입력하는 명상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의 대표적인 직원 교육이 됐고,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다. 이 책은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축원하라고 한다.

자기 돈을 투자해 비영리단체까지 만든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유머를 섞어가며 "보세요, 행복은 이렇게 쉽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고 기원해주세요"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하며 놀라곤 한다. "정말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지네요."

차드 멩탄 씨는 세계 평화는 이렇게 각자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기본이라고 한다. 전 세계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게 되면 세계평화는 저절로 찾아 올 것이라고 한다.

구글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도 명상을 통한 마음 보기와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수행이나 성불이 아니다. 행복한 인생이다. 돈 많이 벌고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을 찾다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마음을 내게 됐다.

왜 그럴까. 남을 생각하다 보면 아상(我相)이 녹아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원래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나' 라고 하며 경쟁만 강조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해를 끼치게 되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도 진실한 행복은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없어지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보자.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원래 부처님이니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나와 남을 둘 아니게 보고 무조건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하기를 축원해보자. 그 마음 마음마다 행복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세계평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

社說

중앙종회, 勢아닌 종책으로 말해야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10월 16일 열렸다. 이를 통해 직선직?직능직?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80명이 당선됐다.

종도들의 민의는 현 총무원 집행부를 선택했다. 선거 결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끄는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45석으로 압승했다. 반면 집행부 견제 나섰던 삼화도량은 16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권세력으로 분류된 무량회는 10석을 지켰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 34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종무행정에 대한 입법 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불교광장과 무량회가 연대를 할 경우 종헌 개정이 가능한 의석 수인 55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총무원이 추진하는 종책과 입법에 날개가 달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수의 논리' 라는 세력을 앞세워 종회가 운영될 경우 파행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우려되는 것은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축소이다. 종책이 없고 오로지 세력 싸움만 종회에 존재한다면 종단 행정과 미래가 어두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들은 '세 모으기' 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종책에 대한 당위성 등을 주장하며 '종책적 이슈' 를 만들기 위해 뛰어다닌 후보 스님들은 거의 없었다. 도리어 미입주 사찰을 포함한 9곳에 주지 인사를 선거 앞두고 단행하고 타교구 스님을 이첩시키는 신종 편법이 생겨났다. 전문분야 인사를 종회에 입성시키기 위한 직능대표는 본래 목적을 상실해 이미 종단 정치 세력의 '의석 나눠먹기의 장' 이 된지 오래다.

새롭게 구성될 16대 중앙종회는 더 이상 종단의 구태와 적폐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회 스스로 쇄신이 필요하며, 세력 싸움이 아닌 종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거대 여당으로 성장한 불교광장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며, 야당인 삼화도량은 중앙종무기관과 범여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늦춰서는 안된다. 변화하는 조계종 16대 중앙종회를 기대해 본다.

조계종 '진짜 쇄신' 에 앞장 서기를

"조계종이 진행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가짜 쇄신운동이다. 제방서 청정하게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종단 내부의 자정능력을 회복해 진정한 승가쇄신을 이루도록 하겠다"

청정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이 10월 14일 인사동 관훈갤러리서 '송담 큰스님의 수행가풍은 조계종의 수행가풍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선언문 골자다. 이 모임은 송담 스님 탈종선언 이후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계종의 청정 수행가풍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결집됐다. 현재까지 대략 165명이 연명을 통해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 송담 스님 탈종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들은 앞으로 타락한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수행자답지 않은 이들을 척결해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다.

재가불자들은 이어 △송담 큰스님의 경책에 대한 사부대중의 참회 △종단의 송담 큰스님 승적 회복 △큰스님을 모욕한 총무부장 해임 △종단의 정치파벌 해체 △청정치 못한 승려 발본색원 △부패 권승 일소를 위한 제방 청정승가의 결집 △사부대중 외연확대 △승가 쇄신운동 지지 및 바른 스님 모시기 운동 전개 △가짜 출가자 척결 대중운동 등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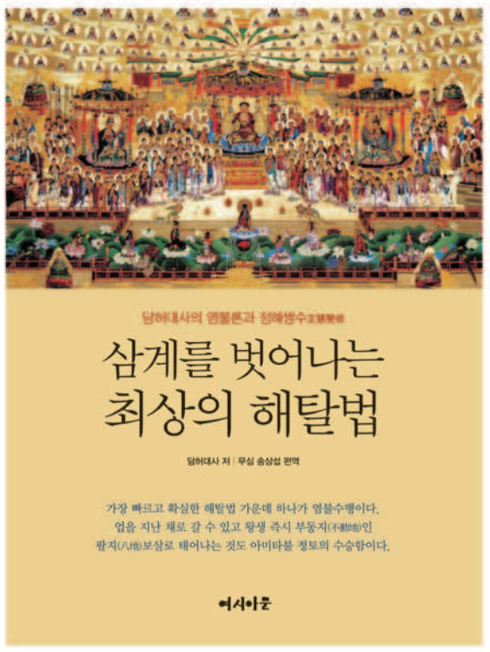
아울러 향후 매달 한차례씩 대중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종단이 처한 문제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청정승가 회복을 위한 운동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재가불자들의 의지가 여느때 못지 않게 결연한 만큼 진정한 승가쇄신을 이루도록 충실한 감시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 작은 변화를 일궈내는 것은 결국 긴 호흡의 열정이 필요하듯이 그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송담 스님이 원하시는 바일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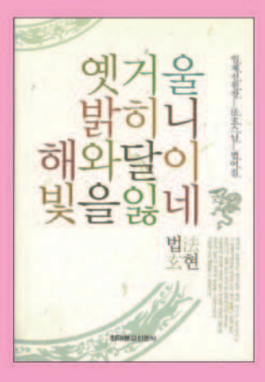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